

第二號

宗報

清州楊氏大宗會

第二號

宗報

清州楊氏大宗會

目 次

大宗會 畫報：宗旗	3
各 派宗會 祠堂 墓域寫真	4
1. 清州 楊氏 大宗會 Homepage	12
2. 卷頭言(教學社 代表 兼 大宗會 會長 楊 澈 愚)	13
3. 刊行辭(首席副會長 楊 致 炳)	14
4. 清州 楊氏 沿革 吳 近況	15
5. 清州 楊氏 大宗會 定款	20
6. 清州 楊氏 大宗會 任員	24
7. 族譜修正 吳 宗報 編纂委員	27
8. 溯源錄	28
9. 始祖 上黨伯 忠憲公 巖谷 諱 起 行狀	35
10. 忠憲祠 配享 4位(退隱公・大峰公・漁村公・道谷公)行蹟	44
11. 愍貞嬪 楊氏傳	57
12. 蓬萊 士彥先祖 行蹟 吳 吉明祠 鄉土遺蹟 32號 略史	60
13. 獎學金 支給規程 吳 受惠者 名單(大學生 99名・高等學生 103名=202名)	62
14. 各 派宗會 任員	
1) 西原伯派宗會	65
2) 政丞公派宗會	66
3) 典書公派宗會	67
4) 西平君派宗會	68
5) 密城君派宗會	69
6) 唐岳君派宗會	70

15. 文 藝

遺詩：楊 治(兵馬節度使·退隱公)	71
時調：淸寧祠를 돌아보고(抱川文化院 副院長 楊 潤 宅)	72
詩：淸寧祠 重建(抱川鄉校 典校 錦岩 楊 載 昌)	73

16. 提 言

1) 葬禮文化 改善點에 關한 小考(扶餘派 會長 楊 喜 燮)	74
2) 漢字를 正確히 알고 쓰자(靑城 漢詩會 會員 楊 載 昌)	76
3) 靑少年 禮讚(前 서울高等學校 校長 楊 柱 錫)	78
4) 姓氏와 族譜(隨筆家 楊 景 植)	80
5) 宗財 保全에 關하여(首席副會長 楊 致 炳)	84
6) 忠憲公 始祖님의 行狀에서 奏請使로 活動하신 年代에 對한 異見(楊 澈 坤 博士) ...	86
7) 祖上을 위한 獻誠金, 金石에 새겨야 하나?(前 永川市 市議員 楊 庚 生)	88
8) 救國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高麗大學校 政經大 校友會 事務局長 楊 大 植)	89
9) 周邊을 일깨우는 楊門의 큰 일꾼(慶州 門中代表 楊 鍾 澤)	90

17. 附 錄

1) 淸州 楊氏 忠憲祠 位置 現況	91
2) 淸州 楊氏 先代의 墓所 位置	92
3) 淸州 楊氏의 宗土現況	93
4) 德崗書院(덕강서원)과 養淸齋(양청재) (新寧派 會長 楊 漢 基)	95
5) 朝鮮官職 品階表 및 古今官爵 對照表	96
6) 歷代王都表, 賜貫 및 賜姓 一覽表	98
7) 淸州 楊氏 始祖 및 各派 先代祖 祭享日	100
8) 政丞公(諱, 天柱) 墓를 찾은 來歷(政丞公派 會長 楊 範 洙)	101

※ 編輯 後記：宗報編纂 委員長 楊 澈 坤 博士

103

※ 公지사항

104



清州 楊氏 宗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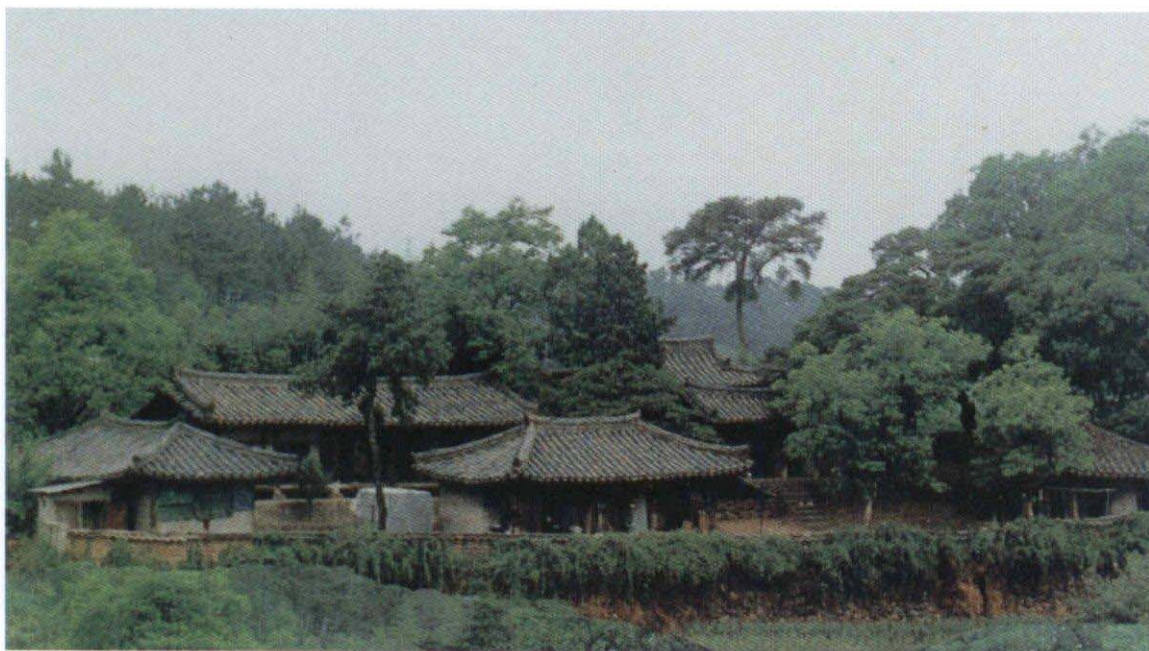
忠憲祠：始祖 忠憲公 諱 起 影幀 奉安

退隱 諱 治, 大峰 諱 熙止, 道谷 諱 應春, 漁村 諱 珣 配享
忠南 論山市 上月面 酒谷里(鄉土遺跡 第 14號)



忠憲祠

全南 寶城郡 筏橋邑 馬洞里



忠憲祠

慶南 昌寧郡 遊漁面 陳倉里



二世祖 政丞公 諱 天柱 墓

京畿道 龍仁市 二東面 時美里



二世祖 西平君 諱 之壽 影幀



二世祖 西平君 諱 之壽 崇慕碑

京畿道 楊州市 長興面 釜谷里 318



清寧祠(二世祖 諱 之壽：西平君) 竣工式(1998. 12. 23)

京畿道 楊州市 長興面 釜谷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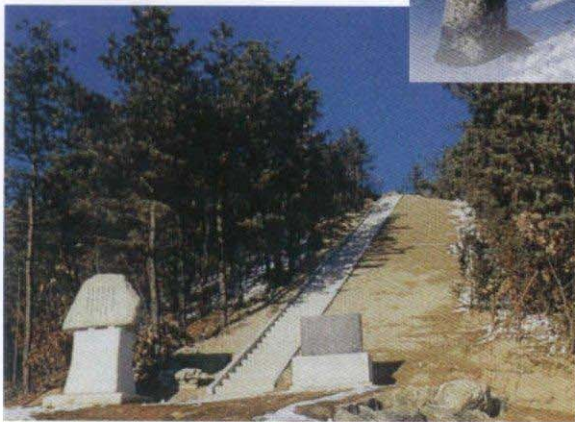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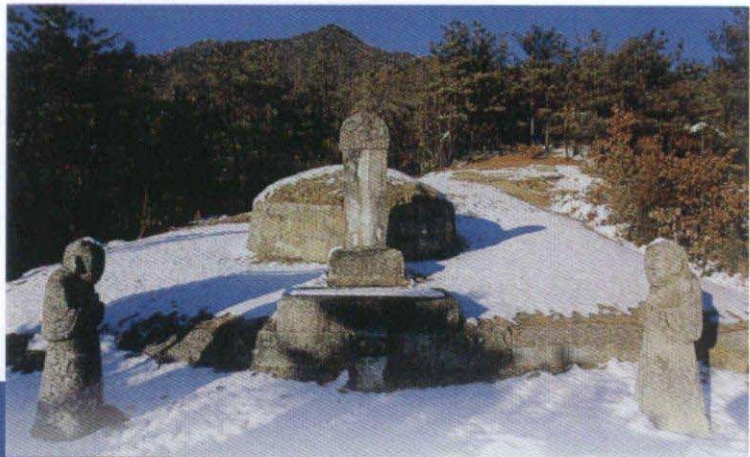
清寧祠 담장 工事を 2004년에 完了하고 西平君 影幀 奉安

京畿道 楊州市 長興面 釜谷里 318



二世祖 西平君 諱 之壽 墓

京畿道 楊州市 長興面 釜谷里 山 56-1



蓬萊公(士彦) 墓와 단장된 墓道

抱川市 一東面 吉明里



吉明祠 全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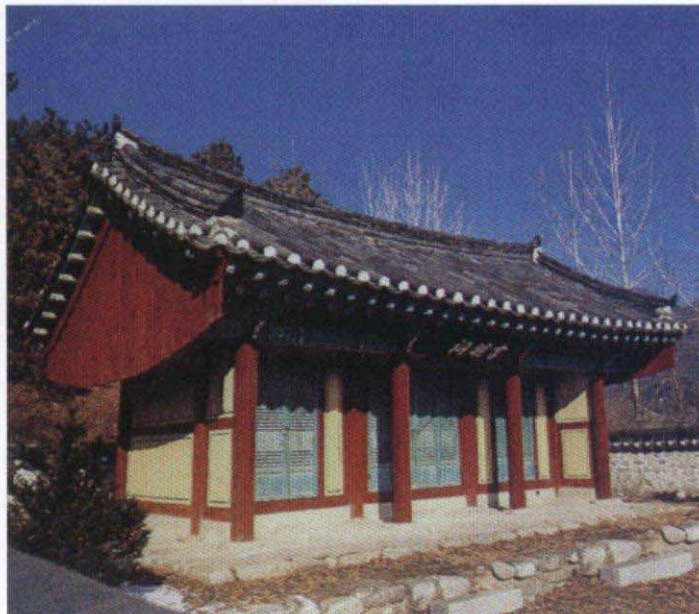
抱川市 一東面 吉明里



蓬萊公(士彦) 影幀



蓬萊遺墨(後孫 載雄 所藏)



吉明祠 祠堂



黃海, 咸吉 兩道 兵馬節度使 諱 治 神道碑 竣工式(2000. 12. 23)

京畿道 抱川市 新北面 機池里



清州 楊氏(西平君) 扶餘派 永慕堂 竣工式(2004. 05. 08)

忠南 扶餘郡 外山面 前場2里 169(옥산 불무골)



德岡書院(5世祖 楊孝智 靖簡公)

경북 영천시 화산면 화산리



9世祖 僉正公 諱 春健 墓所

忠南 論山市 上月面 酒谷里

淸州 楊氏 大宗會 Homepage



淸州楊氏大宗會



[Home](#)
[Sitemap](#)
[Contact us](#)

[대종회](#)
[시조](#)
[항열](#)
[종파](#)
[계시판](#)

ID

PWD

LOG IN

회원가입 | ID/PW 찾기

News more

- 先代贈의 史料를 모읍니다.
- 보성 불교음 흥현사 제향을 다녀와서
-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Link site


[敎學社](#)


[風水](#)



미국적수입
리바이스 jeans 501

59,800

우편번호 찾기

Copyright(c)2004 Chung Ju Yang's All rights reserved.

- Homepage : www.chungjuyang.com
- E-mail : yangsstar@yahoo.co.kr
- Tel : (02) 719 - 4298
- Fax : (02) 714 - 7533

〈卷頭言〉

宗門 여러분께 새해 福 많이 받으시기를



大宗會 會長 楊 澈 愚

尊敬하옵는 楊門一家 여러분!

甲申年이 저물고 乙酉年의 새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닭울음 소리가 새벽을 고한다 싶더니, 民生은 먼 地平 위에 떠오르는 아침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乙酉年 새해 새아침에 楊門一家 모든 분들께 祝福과 榮光, 그리고 歡喜와 恩寵이 함께 하시기를 祈願하며, 人事드립니다. 저는 지난 정기 총회에서 宗門 여러분의 추대로,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제가 大宗會 會長이란 영광스럽고도 막중한 宗事를 맡게 되었습니다. 조상의 陰德에 感謝드리고 大宗會 會長職을 잘 이끌어 가야 할텐데 하는 걱정이 항상 앞을 가립니다. 宗門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무릇 宗事란 崇祖尙門・敦親和睦・愛育英才를 그 골간으로 하여 실천에 옮길 때, 그 문중은 더욱 번성하고 무궁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부터 전래해 온 한민족의 문화적 전통의 아름다움이 위의 세 가지 실천 덕목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先祖를 숭상함을 大宗事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東西洋이 다를 수 없습니다. 東洋에서는 중국의 격언에 “조상을 잊음은 源流가 없는 시냇물이요, 뿌리가 없는 나무다.”라고 하였고, 西洋에서도 E. 버크라는 영국인은 그의 저서에서 “先祖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子孫에 대해서도 돌보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일가들 간에 友誼를 돈독히 하고 자라나는 門中 세대들을 훌륭하게 가르쳐 국가의 棟樑으로 키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宗事가 아닐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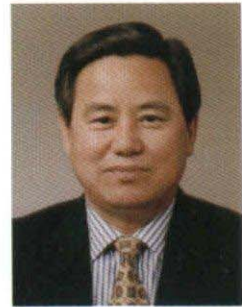
저는 위의 세 가지 실천 덕목을 성실히 수행하는 데 大宗會 여러분과 함께 힘을 합쳐 盡力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乙酉年을 맞는 새해 새아침에 宗報 刊行을 축하드리면서, 宗門 여러분의 건강과 家內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권두사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2005년 1월

《간행사》

刊 行 辭



首席副會長 二十世孫 楊 致 炳

어언 宗報 創刊號를 刊行한지 15年만에 第2號를 刊行하게 되었습니다.
全楊門의 모두에게 健勝과 平安이 깃드시기 仰祝합니다.

그 동안에 우리 楊門의 大宗會도 發展을 거듭하여 全門中을 結集하는 組織을 체계화하기에 邁進하였으며, 丁卯譜(1987)에 誤記되거나 漏落된 一家들의 懇請을 받아 바로잡고 追加 登載하여 修正譜(1993)를 刊行함으로써 一家 모두가 하나로 뭉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大宗會 獎學會도 뜻있는 많은 분들의 精誠어린 參與에 힘입어 本 軌道에 올라 回를 거듭할수록 많은 受惠者들에게 獎學金을 支給하여 자라나는 後裔들에게 꿈과 勇氣 그리고 矜持를 가지고 나날이 發展的인 사람이 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全國에 散在한 모든 枝派 派宗會 간의 相互交流도 大宗會를 通하여 알차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보람있는 일입니다.

이번에 刊行되는 宗報 第2號에서는 儀禮的인 記錄 外에 始祖 忠憲公과 忠憲祠 配享 先祖 四位의 記錄과 碑文을 차례로 掲載하고, 이어서 愍貞嬪(惠嬪)에 관련된 記錄과 蓬萊公과 그를 配享하는 吉明祠에 관련된 記錄을 掲載하여 先祖에 대한 崇祖精神을 高揚하고 業績을 깊이 새기어 本받는 契機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모쪼록 宗報 第2號를 通하여 우리 楊門이 結合하는 契機가 되고 相互의 情報交換을 이루어 멀리 흩어 살아도 內心은 하나 되는 契機가 되기를 바랍니다.

全楊門이 날로 繁昌하고 世上을 밝히는 燦然한 빛이 되기를 빌면서 줄입니다.

2005년 1월

淸州 楊氏 沿革 및 近況

淸州 楊氏 淵源(淸주 양씨 연원)

淸주 양씨의 연원(淵源)은 中國의 공손 황제(公孫黃帝)의 세계(世系)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의 41世系 백교(伯僑)가 양씨의 태시조(太始祖)이다. 후한(後漢) 때 관서부자(關西夫子), 사지공(四知公)으로 일컫는 양진(楊震·字 伯起)은 60世孫으로 본향(本鄉)이 홍농(弘農)이어서 그 후손을 홍농양씨(弘農楊氏)라 한다.

양진(楊震)의 43世孫 기(起)가 원(元)나라 정승으로 있다가 서기 1351년 12월 25일(고려사 권 38·2) 고려 공민왕이 태자 때 원(元)나라 노국대장공주(魯國大長公主)와 결혼하여 북경에 머무르고 있던 중 즉위(卽位)하기 위하여 환국할 때, 노빈도령(魯賓都令)으로 공주를 배종하여 동래(東來)하였으며, 그 후 만 백성의 적폐(積弊)였던 세공(동녀 5천인, 준마 3만필 등)을 삭감하여 그 빛나는 공훈으로 나라에서 삼중대광보국(三重大匡輔國 崇祿大夫) 및 상당백(上黨伯)을 봉하고 본관을淸주로 사관(賜貫)하여淸주 양씨의 시조(始祖)가 되었다. 그 후 다시 벽상삼한창국공신(壁上三韓昌國功臣)에 오르고 청백리(淸白吏)에 녹선(錄選)되었으며, 1394년 92세로 서거하여 시호(諡號)를 충헌(忠憲)으로 내렸다.

氏族史 概要(씨족사 개요)

淸주 양씨 시조 충헌공(忠憲公)이 동래한 것은 1351년 12월 25일로 공민왕(恭愍王)이 왕위(王位)에 오르기 직전인 고려

충정왕(忠定王) 3년이 정설이며, 지금(2004년)으로부터 653년 전이다. 처음 개경에서 41년간 정주(定住)하다가 1392년 이씨조선(李氏朝鮮) 건국과 더불어 일족(一族)이 한양으로 옮겨 왔으나 2세인 아들 6형제 중 일부는 잔류(殘留)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1455년 단종(端宗) 3년까지 63년 간 조야(朝野)에서 혁혁한 치적(治績)을 쌓아가고 있었으나 이른바 단종선위(端宗禪位)의 슬픈 상잔(相殘·乙亥亂)의 회오리 속에 충헌공의 현손(玄孫) 혜빈양씨(惠嬪楊氏)가 연루되어 당사자가 참형(斬刑)됨은 물론 일족이 수도를 뒤로 하고 팔도(八道)로 이산(離散)하는 비운을 맞게 되어 대부분의 후손이 경기, 황해도를 중심으로 세거하였으나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壬辰倭亂)을 계기로 씨족 대이동을 겪어 남·북 각지로 이주를 하게 되었던 바, 세거지 별로 남·북에 6대 4정도의 비율로 산재해 살고 있으며, 약 5만여명으로 추산된다.

6大派宗會別 世居地

(6대 파종회별 세거지)

◆ 서원백(諱 成柱)파 (西原伯派)

처음 개경에 정주하였는데, 한양 천도 후 8세까지 세거하다가 9세 춘건(春建) 첨정공(僉正公) 때 충남 논산시 상월면 주곡리에 정착하여 종가(宗家)를 이루고 있으며,

그 밖의 후손들은 개성, 해주, 숙천, 이천(利川), 평원, 대구, 밀양 등지에 세거하고 있다.

◆ 정승공(諱 天柱)파 (政丞公派)

조선조 초기부터 경기도 용인, 이천 지방과 화성군 마도면 백곡리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으며, 황해도 백천(白川)지방에 세거하고 있다.

◆ 전서공(諱 萬壽)파 (典書公派)

5세 식(湜) 좌찬성(左贊成) 안원군(安原君) 때부터 충북 괴산군 증평읍 증천리에 5백여년 간 양씨촌을 이루고 면면히 살고 있으며, 이 밖의 천안, 이천, 안성 등지에 세거하고 있다.

◆ 서평군(諱 之壽)파 (西平君派)

서평군과 역시 천도시 한양으로 옮겨와 살다가 양해빈의 수난을 계기로 남·북으로 이산(離散)하게 되었는데, 장·차남 흥립(興立), 흥야(興野)의 후손은 함경도 함흥과 황해도 평산, 안악, 송화 지방에 많이 살고 있으며, 3남 첨식(添植)의 후손 중 효지(孝智) 정간공(靖簡公)의 직계손은 경북 영천군 화남면 일대에 3백여호가 집성촌을 이루고 세거중이며, 4남 천진(天震) 경안공(景安公)의 후손은 가장 번창하여, 남·북 각지에 수천호가 분포되어 있다.

경안공의 장남 배(培) 귀암공(歸庵公)의 장남 계원(繼元) 병사공(兵使公)의 후손은 경주 주변과 영천군 북안면 명주동 근처와 영일군 신평면 냉수동에 수십호씩 산거(散居)하고 있으며, 제2남 계동(繼童) 부사공(府使公)의 후예는 경주, 광양 및 칠곡 지

방에 영주하고 있으며, 전남 보성군 벌교읍 마동리 칠동 근교에 3백여호 집성촌을 이루고 4백여년 간 세거하고 있고, 제3남 계종(繼宗) 사정공(司正公)의 후손도 경주 근교 및 영천에 살고 있다.

경안공의 2남 수(脩) 부윤공(府尹公) 후손은 충남 서천 지방에 누대로 세거 중이며, 3남 혁(赫) 목사공(牧使公)의 후손은 평북 변에 정주(定住)하고 있고, 4남 억(億) 주서공(主書公)의 후손은 충남 은진, 금산 및 예산 지방에 근 5백여년 동안 세거하고 있다.

경안공의 5남 치(治) 함길, 황해 양도병마절도사(咸吉, 黃海, 兩道兵馬節度使) 퇴은공(退隱公)의 후손이 수천호에 이르는데, 제 1남 순달(順達) 교리공(校理公)의 후손은 경기도 연천, 양주, 충남 천안 지방에 세거하고 있으며, 경북 달성군 다사읍 달천리와 대구 근교에는 교리공의 증손 득효(得孝) 남재공(南齋公)의 후예 4백여호가 살고 있는데, 근 4백여년 동안 세거하고 있다. 2남 효달(孝達) 생원공(生員公)의 후손은 경기도 포천, 가평 일대와 전남 순천, 광양에 수백여호가 세거하고 있으며, 3남 계달(悌達) 사정공(司正公)의 후손은 충북 괴산, 이천, 음성 등지에 장파(長派)가 세거하고 있으며, 포천군 일동면 길명리를 중심으로 근교에 수십여호씩 부락을 형성하고 있고, 그외 일부는 개성, 장단, 청주 등지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4남 윤달(允達) 첨정공(僉正公)의 후손은 충남 대흥, 천안, 부여군 홍산, 전남 영암 등지에 세거하고 있으며, 5남 신달(信達) 통덕랑(通德郎)의 후손은 포천군 신북면 기지리와 영중면 금주리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으며, 포

천시 각 읍면 일대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으며, 포천군 각 읍면 일대에 수백여호가 5백여년 동안 세거하고 있다. 경안공의 6남 제(濟) 사직공(司直公)의 후손은 황해도 연백에 세거하고 있고, 7남 동(凍) 통덕랑(通德郎)의 후손은 강화 지역에 수십여호가 살고 있다.

서평군의 5남 천록(天祿) 판한성사(判漢城事)공의 후손은 평북 초산, 벽동, 강계 등지에서 대대로 살고 있다.

◆ 밀성군(諱 根)파 (密城君派)

밀성군의 장남 문(文) 가선대부(嘉善大夫)공의 후손은 4세까지 경남 밀양에 세거하다가 5세 호생(好生) 부사공(府使公)이 창녕군 유어면으로 이천하여 그 일대에 4~5백호가 집성촌을 이루고 5백여년간을 연면히 세거하고 있으며, 2남 헌문(憲文) 전서(典書)공의 후손은 충북 음성, 경기도 용인, 전북 익산 등지에 세거하고 있다.

◆ 당악군(諱 浦)파 (唐岳君派)

당악군의 증손 백후(伯厚) 부령공(副令公)의 묘와 현손 원격(元格) 판서공(判書公)의 묘가 보은에 있고 현손 원식(元植) 판서공(判書公)의 묘가 청원에 있는 것으로 보아 5~6세 때까지는 청주와 그 근린(近隣)에 세거하다가 희지(熙止) 대사헌공(大司憲公) 대에 대구 지방으로 이주한것 같으며, 원격(元格)의 후손 중 장파(長派)는 대구 지산동에 수백세대가 세거하고 있고, 7세손 염(廉) 현령공(懸令公)의 후손 일부는 충남 금산에 살고 있으며, 연기군에도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원식(元植)의 후손 중 유지(有沚) 부사공(府使公)의 후손은 청주에 세거하고 있으며, 유정(有汀) 쌍백당(雙柏堂)의 후손은 회덕과 문의에 세거하고 있다. 3세 세무(世茂) 판서공(判書公)의 후손 중 12세 춘기(春起) 통덕랑(通德郎)이 예천에 정착하여 수백년간 세거하고 있다.

大 宗 會 沿 革

淸州 楊氏의 本貫인 淸州는 本來 百濟時代에 上黨縣인데 娘臂城 또는 娘子谷이라고도 했으며, 685年(新羅 神文王 5)에 처음으로 西原小京을 두었다가 景德王이 西原京으로 昇格 시켰으며, 940年(高麗 太祖 23)에 淸州로 고쳤다. 現在 忠淸北道 淸州市이다.

우리 淸州 楊門의 本貫이 淸州로 된 것은 高麗 恭愍王때, 始祖(諱 起)에게 上黨伯을 封하고 淸州로 賜貫한 데서 부터 由來된다.

그 동안 修譜事를 살펴보면, 1570年(宣祖 3)에 創始譜(筆寫本) 刊行을 비롯하여, 1690年(肅宗 16)에 2次 庚午譜(木版本), 1766年(英祖 31)에 3次 丙戌譜, 1807年(純祖 7)에 4次 丁卯譜, 1850年(哲宗 1)에 5次 庚戌譜, 1900年(光武 4)에 6次 庚子譜, 1928年에 7次 戊辰譜, 1957年에 8次 丁酉譜, 1987年에 9次 丁卯譜, (1993年 丁卯譜 修正版) 등 9次에 걸쳐 大同譜를 刊行하였다. 1959年에 大宗會를 創立하였고, 1983年에 大宗會를 再整備하여 定款에 依해 3年을 週기로 運營하고 있으며, 1987年부터 獎學會를 設立하여 每年 獎學金을 支給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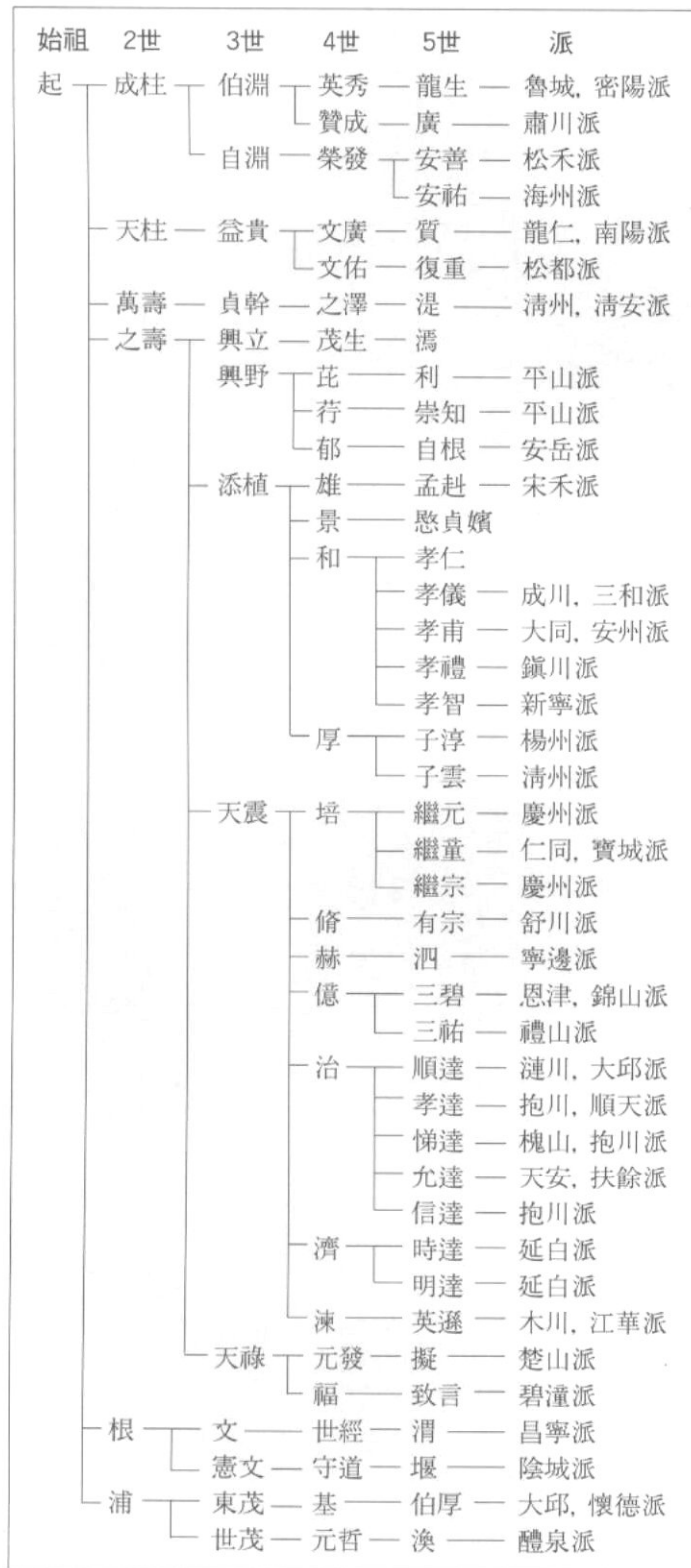
歷 代 會 長

初代	楊潤植	1959. 4. 15~1963. 9. 15
2代	楊潤植	1963. 9. 15~1965. 9. 15
3~7代	楊潤植	1965. 9. 15~1977. 9. 15
8代	楊澈愚	1977. 9. 15~1980. 9. 15
9代	楊澈愚	1980. 9. 15~1983. 3. 1
10代	楊澈愚	1983. 3. 1~1986. 3. 15
11代	楊澈愚	1986. 3. 15~1989. 3. 15
12代	楊澈愚	1989. 3. 15~1993. 3. 15
13代	楊澈愚	1993. 3. 15~1996. 11. 19
14代	楊澈愚	1996. 11. 19~2000. 4. 15
15代	楊澈愚	2000. 4. 15~2003. 4. 15
16代	楊澈愚	2003. 4. 15~現在

祠 宇 · 書院錄

名 稱	配 享	所 在 地	建 築
忠憲祠	忠憲公 楊 起	논산시 상월면 주곡리	1654年
忠憲祠	忠憲公 楊 起	보성군 벌교읍 마동리	1750年
忠憲祠	忠憲公 楊 起	창령군 유어면 진창리	1906年
淸寧祠	西平君 楊之壽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1967年
德岡書院	靖簡公 楊孝智	영천시 화산면 화산리	1621年
吉明祠	蓬萊公 楊士彦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1991年
梧川書院	大峰公 楊熙止	대구 수성구 과동	1786年
葛川書院	道谷公 楊應春	논산시 가야곡 산로리	1736年
光山書院	漁村公 楊 暉	창령군 유어면 진창리	1728年

清州 楊氏 世系圖



行列圖(항렬도)

世	行列	世	行列
20	致 ○	32	河 ○
21	○ 錫	33	○ 杓
22	澈 ○	34	容 ○
23	○ 植	35	○ 坤
24	熙 ○	36	鉉 ○
25	○ 周	37	○ 淳
26	鎮 ○	38	東 ○
27	○ 洙	39	○ 烈
28	柄 ○	40	載 ○
29	○ 榮	41	○ 商
30	在 ○	42	源 ○
31	○ 鎬	43	○ 來

청주 양씨 대종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본회는 청주양씨대종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 특별시에 둔다.

제3조 본회는 승조정신을 진작하며 종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아울러 도의 선양사업·장학사업 및 사회봉공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선조봉사·묘역·사우·제각수호 및 종재 보존에 관한 일
2. 종파 종중간의 친목에 관한 일
3. 대동보 간행
4. 선조의 유물 사적보존 및 현양에 관한 일
5. 도의선양사업·장학사업 및 사회봉공사업에 관한 일
6.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관한 일

제2장 회 원

제5조 본회 회원은 정관 제3조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친 만 20歲 이상의 종인으로 구성하며, 각 파종회의 임원 및 문중대표는 자동적으로 회원이 된다. (개정 2003. 4. 23)

제6조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가 있다.

1. 총회에서 발언권과 결의권
2. 임원선거 및 피선거권
3. 본회의 회무 및 재산에 관한 서류 열람권

제7조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가 있다.

1. 정관 및 제규정 또는 총회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2. 본회 유지에 필요한 회비를 출연(出捐)할 의무

제3장 임 원

제8조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명
2. 회장 1인

3. 수석 부회장 1명 (신설 2003. 4. 23)
4. 부회장 30인 내외
5. 이사 60인 내외
6. 감사 2인
7. (삭제 2003. 4. 23)

제9조 본회의 임원의 임·면은 다음과 같다.

1. 고문·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총무 및 사무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제10조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은 대총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대총회 사업에 적극 협찬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통괄하며, 각종 회의에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회장이 수석부회장을 상임으로 지명하여 회무를 감리하도록 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주요안건을 의결하며, 필요할 때는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5. 회장 및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6. 감사는 본회의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 청주양씨 각 파종회(문중·파종중) 대표는 자동적으로 본회의 임원이 되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2.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충한다.
3.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은 본회 유지에 필요한 회비를 출연하여야 하며 명예직으로 하되 상임임원·총무 및 사무원에게는 보수 또는 수당을 지급한다. 단, 본회가 자립운영될 때까지 임기 내 1회 이상 회비를 내지 않는 임원은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03. 4. 23)

제4장 회 의

제13조 본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상임위원회로 한다.

제14조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형편에 따라 각 파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대의원의 구성비율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봄 또는 가을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할 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 총회 소집은 회의 7일 전에 회장이 일시·장소 및 안건을 공시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총회, 이사회, 상임임원회의 성립 및 의결은 다음에 의한다.

1. 이사회 및 상임임원회는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한다. 단, 총회는 이에 구애받지 아니한다.
2.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단, 찬반이 동수일 때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17조 총회의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개정
2. 임원선출
3. 사업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일
4. 종재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일
5. 이사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6. 기타사항

제18조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일
2. 이사회에 의결을 필요로 하는 일
3.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타사항

제19조 상임위원회는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일
2. 긴급을 요하는 일
3. 기타 사항

제5장 재 정

제20조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당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 본회의 경비는 등록된 회원의 연회비 2만원, 찬조금, 사업 전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3. 4. 23)

제22조 회장은 매 연도말에 다음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이사회를 거쳐 정기총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1. 결산서 및 예산서
2. 사업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3. 기타 중요사항

제6장 해 산

제23조 본회의 해산은 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24조 본회가 해산 될 때에는 임원 전원이 청산원이 되며 청산 잔액 처분은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

제7장 부 칙

제25조 본회에 다음의 조직체를 둔다.

1. 고문회
2. 파종회
3. 장학회
4. 청년회
5. 친목회
6. 분쟁조정위원회(단, 분쟁조정위원회는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7. 본회 조직 중 친목회 및 청년회는 회칙과 회원명단을 본회에 등록하고, 대종회 임원으로 부회장 1명과 이사 2명을 선출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4. 23)

제26조 본 정관은 2003年 4月 23일부터 발효한다. (개정 2003. 4. 23)

淸州 楊氏 大宗會 任員

職 位	姓 名	世 孫	門 中	住 所
顧 問	樂 柱	18	抱 川	경기 부천시 원미2동 풍림A 105-603(032-611-8796)
	燦 宇	25	唐 岳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3-16(02-567-4363)
	淳 植	23	論 山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현대A 22동 501(011-265-2662)
	春 得	20	仁 同	서울 마포구 서교동 346-32(02-336-2266)
	貞 圭	20	寶 城	서울 서대문구 홍제2동 82-109(02-737-5297)
	寅 穆	25	錦 山	경기 성남시 수지동 신봉리 현대그린빌라 101-302(031-264-2647)
	煥 洪	19	新 寧	경북 영천시 북안면 임포리 268(054-335-1243)
	九 烈	24	唐 岳	대구 수성구 범물 2동청림A 103-201(053-784-8450)
會 長	澈 愚	22	魯 城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67(02-717-3555)
首席副會長	致 炳	20	禮 山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8-1 로알파레스 A동 2905(011-222-5325)
副 會 長	澈 坤	22	論 山	경기 군포시 수리동 수리 한양A 808동 1101(019-9142-6285)
	澈 宇	22	°	서울 용산구 청파동 2가 8-18(02-714-5555)
	澈 世	22	°	충남 논산시 상월면 지경리 2구(041-732-4502)
	承 植	23	°	충남 논산시 상월면 산성리 66-5(041-732-4008)
	熙 容	24	°	서울 광진구 중곡 3동 30-42(02-542-1313)
	澈 彥	22	密 陽	경남 밀양시 교동 936 교동타워 116(055-354-3117)
	範 洙	20	政 丞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440-24(011-479-5776)
	淳 植	23	典 書	충북 증평군 증평읍 창동 개나리A 104(043-836-5626)
	熙 英	24	°	충북 증평군 증평읍 증천 2리 636(016-770-4481)
	鳳 雄	27	咸 興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A 101-808(02-544-9432)
	柄 斗	20	新 寧	경기 양주군 광적면 덕도리(두양섬유)(011-230-8181)
	城 郁	21	寶 城	서울 동작구 대방동 501 대림A 103-503(02-825-1197)
	廷 雲	18	大 邱	경북 대구시 북구 산격 4동 1382-65(011-9593-4565)
	昌 萬	25	咸 興	서울 강동구 성내 1동 463-2(02-478-7113)
	永 實	21	抱 川	서울 송파구 잠실 5동 주공A 507-709(02-773-9701)
	常 鉉	20	°	서울 서초구 방배 1차 현대A 105-1201(017-334-8747)
	林 周	25	密 城	부산 사하구 다대동 현대A 105-1901(051-263-5389)
	鍾 武	24	°	울산 남구 신정 3동 종합물류센타(011-9336-5126)
	東 健	20	新 寧	울산 남구 신정 1동 632-15 울산지회장(011-863-1211)
	鍾 九	24	唐 岳	대구 수성구 지산 1동 1268-18(016-507-6916)
理 事	讚 秀	23	密 陽	경남 밀양시 산내면 용전리 1305(055-352-6279)
	澈 也	22	論 山	충남 논산시 상월면 주곡리(041-732-4264)
	大 吉	22	°	경기 광명시 철산 3동 주공A 1307동 1305(011-225-3189)
	澈 南	22	°	충남 논산시 상월면 지경리(011-9741-4050)
	雨 成	26	堤 川	충북 제천시 봉양읍 옥전 1구(043-653-9926)
	世 文	25	°	충북 제천시 봉양읍 옥전 1구(043-651-4854)
	澈 炯	22	論 山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A 505-402(02-644-5999)
	柄 千	21	政 丞	서울 노원구 공릉동 400-23(02-872-2884)
	錫 均	21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1동 미리내A 925-1502(011-363-7160)
	澈 洙	22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2-1 진주도시락 103 (017-344-6644)
	柄 國	21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2-10(011-284-1402)
	熙 瑞	24	°	경기 화성시 마도면 백곡리(031-356-1492)
	熙 成	24	°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탄 2동 199-71(016-504-0555)

職 位	姓 名	世 孫	門 中	住 所
理 事	柄 柱	21	政 丞	서울 성북구 장위 2동 238-381(02-919-6477)
	明 植	23	典 書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삼익A 105-302(019-549-5778)
	廷 植	23	"	충북 증평군 증평읍 증천 5동(043-836-3496)
	澈 玉	22	"	충북 증평군 증평읍 신 3동 1105 선경주택 19(043-836-2494)
	永 植	23	"	충북 증평군 증평읍 증천 2동(043-836-4771)
	澈 暎	22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242-2(043-838-2995)
	澈 敏	22	"	서울 송파구 문정 2동 150 웨미리A 108-104(02-449-7961)
	熙 根	24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92-30(043-256-8267)
	相 植	23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043-838-4564)
	澈 華	22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 1동 291 용담건강원(011-9921-4431)
	煥 吉	20	"	서울 양천구 신정동 973-17 신정신경외과원장(011-770-5668)
	庚 生	21	新 寧	경북 영천시 화북면 오동리 352(054-337-6208)
	熙 正	24	典 書	충북 청주시 문화동 286-1(016-9566-1920)
	起 錫	21	禮 山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 56(011-9064-7076)
	致 貞	20	"	경기 평택시 세교동 228-3 리스빌라 301(031-655-8313)
	澈 成	22	"	경기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LG아파트 107-804(031-287-7830)
	致 洙	20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6 삼성회계법인(017-242-9432)
	永 福	21	寧 邊	경기 의왕시 와곡동 세종A 104-703(016-262-1800)
	基 成	20	永 平	경기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458(031-532-6559)
	載 昌	19	抱 川	경기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78(011-9779-6917)
	載 權	19	"	경기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650-6(031-534-7677)
	潤 宅	20	永 平	경기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031-535-6447)
	東 春	20	抱 川	경기 포천시 가산면 정교리 533(031-542-0730)
	載 範	19	"	경기 포천시 화현면 지현리(031-532-9775)
	俊 錫	21	"	경기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031-533-6235)
	文 鍾	20	檜 泉	경기 성남시 분당구 미동 242 무지개A 703-303(031-717-7863)
	柄 周	24	慶 州	포항 북구 학산동 159-2(054-242-6020)
	龍 德	24	"	경기 화성시 우정면 석전리(에다원 모텔)(02-942-8528)
	奉 九	23	"	서울 서대문구 홍제 4동 현대A 117-708(010-2282-8870)
	鍾 萬	21	寶 城	전남 순천시 남정동 550-12(016-744-2740)
	瑛 培	21	"	전남 순천시 풍덕동 금호A 4-303(061-745-2277)
	洪 錫	21	"	전남 보성군 벌교읍 마동리(061-858-1957)
	錫 殷	21	"	서울 송파구 삼전동 52-20(02-418-5307)
	永 瓚	21	抱 川	경기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031-535-4782)
	戊 吉	21	始 興	서울 금천구 가산동 235-34(02-863-0723)
	在 福	22	長 湍	경기 파주시 월롱면 위전 2리 606(031-945-0065)
	昌 鍾	19	加 平	경기 가평군 하면 현리 261-1(031-585-0827)
	正 植	23	漣 川	서울 종로구 평창동 182-25(018-312-8588)
	在 植	21	淸 州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595-32(043-253-5139)
	載 一	21	大 興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7-1(011-398-1160)
	載 千	21	天 安	서울 마포구 합정동 412-34 현대A 101 광신기업(011-267-6764)
	敬 完	20	靈 岩	서울 중구 소공동 80 북창빌딩(베르샤니오 양복 02-754-5338)
	喜 燮	20	扶 餘	서울 중구 만리동 2가 231-28(016-9304-4093) 팩스 (02-392-4093)
	泰 珍	27	錦 山	충남 금산군 추부면 장대리 539(041-752-5400)
	宅 鎭	26	恩 津	충남 논산시 연무읍 안심 8리 1101-9(041-742-0416)
	大 植	21	大 邱	서울 중랑구 묵동 174-1 삼구빌딩 3층(019-255-1001) 팩스 (02-564-0305)
	辰 錫	19	"	대구 서구 원내동 3가 1368-35

職 位	姓 名	世孫	門 中	住 所
理 事	壬 錫	19	大 邱	대구 수성구 범어 4동 청구가든하이츠 102-703
	三 植	20	＊	대구 달서구 감삼동 정원맨션 202(053-567-6884)
	貞 元	20	＊	대구 남구 대명 6동 941-3(053-656-2346)
	炳 玉	24	順 天	전남 순천시 서면 죽평리(061-752-6647)
	鍾 九	21	洪 川	경기 홍천군 홍천읍 장전평 1리 255(011-9480-6245)
	江 錫	26	錦 山	충남 대전시 동구 삼성동 121 무진건설 대표(042-632-2296)
	盛 植	23	舒 川	서울 용산구 청파동 3가 42(02-719-1806)
	斗 錫	21	慶 州	충남 대전시 서구 과수원동 764-6(042-541-5494)
	應 哲	22	江 華	서울 구로구 고척 1동 164-37(02-684-2282)
	常 設	20	抱 川	서울 강북구 수유 3동 174-40호 2층(011-260-0945)
	銓 奎	23	密 城	울산 북구 연암동 1004(북구청 허가과)(052-219-7485)
	永 大	24	＊	울산 중구 태화동 912-3(울산지회총무)(019-547-7716)
	久 周	25	＊	부산 영도구 봉래동 3가 132-1(051-416-7433)
	炳 權	20	＊	서울 동대문구 충신동 206-6호 충신빌딩 3층 정원통상(02-744-6486)
	運 甲	23	唐 岳	대구 달서구 이곡동 1000-280(053-581-6780)
	又 甲	23	＊	대구 수성구 지산 1동 516-5(053-784-3188)
	萬 得	23	＊	대구 지산 2동 1253-15(053-762-8592)
	滿 植	23	論 山	대전 서구 관저동 구공마을 A, 510-303(042-545-5414)
	德 龍	25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636(043-533-3134)
大 宗 孫	大 奎	25	論 山	충남 논산시 상월면 주곡리(017-680-3280)
總 務	成 植	23	麻 田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56-34(016-630-1342)
監 事	允 奎	19	抱 川	경기 광명시 철산 2동 주공A 1110-203(017-281-0234)
監 事	庚 烈	21	新 寧	서울 성동구 금호동 벽산A 107-603(011-782-2095)
計	113名			

清州 楊氏 族譜修正 및 宗報 編纂委員

職 位	編纂委員	電 話 番 號	備 考
委 員 長	澈 坤	031-347-6285(019-9142-6285)	
副委員長	喜 燮	02-392-4093(016-9304-4093)	
委 員	載 昌	031-532-6917(011-9779-6917)	
委 員	允 奎	02-2617-0237(017-281-0234)	
委 員	基 成	031-532-6559(016-9343-6559)	
委 員	潤 宅	031-535-6447(011-9994-5293)	
委 員	成 植	02-719-4298(016-630-1342)	
委 員	永 實	02-773-9701(011-286-3718)	
委 員	常 設	02-996-5377(011-260-0945)	
委 員	庚 烈	02-2296-2096(011-782-2095)	
委 員	景 植	032-674-2234(019-735-1214)	

1. 族譜 修正 및 增補 基準

- 1) 族譜修正은 必히 族譜修正 委員會의 審議를 得한 후 發刊해야 한다.
- 2) 從前의 族譜에 收錄된 內容을 修正・增補할 때는 確實한 根據의 證憑 書類(除籍謄本, 戶籍謄本, 住民登錄謄本)를 必히 添附하여야 한다.
- 3) 證憑書類는 다음 族譜發行할 때까지 必히 編纂委에서 保管해야 한다.
- 4) 漏譜者 登載는 依頼者의 要求數量을 印刷하여 配付하고 保管用 1帙은 必히 大宗會 事務室에 備置하여 다음 大同譜를 發行할 때에 根據資料 原稿로 使用한다.
- 5) 漏譜者 修正本 發刊費用은 族譜修正 委員會의 決議에 따른다.
- 6) 校正은 3回 以上으로하고 全 委員이 參席하여 確認한 후 印刷한다.

2. 宗報 編纂 基準

- 1) 各派 先祖의 史蹟・遺物・遺蹟・文獻資料
- 2) 各派 中始祖의 祠宇創建・齋室改修・墓碑建立・移轉事實
- 3) 各派 門中一家의 孝行・篤志篤行・善行事實
- 4) 各 派宗會의 實情과 活動事項
- 5) 先祖에 對한 實記, 傳說(抗日 愛國志士 行蹟 포함)
- 6) 傳統禮節, 孝悌思想을 高揚할 수 있는 論壇
- 7) 詩・隨筆・紀行文・感想文
- 8) 司法・行政考試 合格 또는 昇進
- 9) 其他 特別한 內容을 宗報에 記載하여 一家間에 消息을 傳達한다.

소원록(溯源錄)

弘農 楊氏의 先祖는 晉나라에서 周나라로 歸化한 唐 叔虞(숙우)의 後孫 伯僑(백교)를 周나라에서 楊侯로 封하고 食菜케 한 데서 楊이라는 姓氏를 갖게 되었다는 說과, 또한 周 宣王이 그의 아들 尙父(상보)를 楊侯로 封한 데서부터 楊이라는 姓氏를 갖게 되었다는 說 등이 있으나 分明치 않으며, 다만 晉나라 太傅(태부) 叔向이 楊氏(楊地)에서 食菜하였다 하여 그 땅을 平陽楊氏縣이라고 부른 데서부터 由來되었다는 說이 가장 有力하다고 思料될 뿐이다.

叔向이 伯石을 낳아 그 邑으로 姓을 삼아 楊石이라 불렀으며, 楊石이 旂盈(기영 : 기는 姓氏) 무리의 一派이었는데, 盈이 晉나라에 罪를 짓게 되어 더불어 楊石氏까지 滅하게 되었다. 叔向의 자손이 華山 仙谷으로 도피해서 마침내 華陰에서 살았는데, 楊章이란 분이 있어 韓襄王의 麾下(휘하) 장수가 되어 무술을 닦았다. 그로부터 자손이 이내 河內에서 살았다.

章의 아들 欸(款)이 秦나라 上卿이 되었고, 欸의 아들 頤은 字가 太初인데 沛公을 따라 정벌에 참여함으로 해서 太史가 되었다. 頤의 아들 喜의 字는 幼羅(유라)인데 高祖 때 功을 세워 赤泉嚴侯가 되었으며, 喜의 아들 敷(부)의 字는 伯宗인데 赤泉定侯가 되었다.

敷의 아들 胤(윤)의 字는 母害(무해)로서 太子師傅가 되었으며, 胤의 아들 敞(창)의 字는 君平인데 丞相으로 安平敬侯가 되었다. 敞의 아들은 忠이며 字는 信仲인데 安平頃侯가 되었고, 忠의 아들 譚(담)의 字는 直之인데 屬國安平侯가 되었으며, 譚의 아들 寶의 字는 稚淵(치연)인데 歐陽尙書까지 通達했으나 벼슬을 하지 않고, 哀王·平王 때에 은거 생활을 하며 學問만을 교수하였다.

居攝(거섭) 2년에 兩龔(량궁)과 함께 나라에서 불렀으나 隱居(은거)하여 간 곳을 알지 못하였다. 光武帝가 그의 節義를 높이 評價하고 官의 수레를 보내 특별히 불렀으나 老病을 憑藉(빙자)하여 응하지 않았다.

寶의 아들 震(진)의 字는 伯起인데 젊어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歐陽尙書를 太常 栢郁(백옥)으로부터 배워 經書에 밝고 박식하였으며, 깊이 연구하지 않은 글이 없어서 關西夫子(또는 關西孔子)라 호칭했으며, 太尉 벼슬에 올랐다.

震의 아들 秉은 字가 叔節인데 어려서부터 父業을 이어받았으며, 兼하여 京氏周易에도 밝았을 뿐만 아니라 詩書에 能通하였으나 항상 은거하며 學問만을 教授하다가 後에 太尉가 되었다. 秉의 아들 賜(사)의 字는 伯獻(백헌)인데 소시에 家訓과 학문을 傳受하여 독실한 뜻을 세워가며 더욱 건문을 넓혔으나, 항상 집에 있으면서 門徒들을 겸허하게 가르쳤다. 후에 司空 벼슬을 하였으며, 謚號(시호)를 文烈로 받았다. 賜의 아들 彪(표)의 字는 文先인데 젊어서부터 傳家의 학문을 이어 받았으며, 太尉가 되었다. 彪의 아들 修의 字는 德祖인데 俊才로서 公卿이 되었고, 修의 孫子 準 또한 公卿을 지냈고, 準의 曾孫子 佺期(전기)는 政丞이 되었으며, 佺期の 후손 善才가 元나라 侍中尙書(中書省政丞)를 지냈으며, 善才의 아들

幹(간)도 侍中尙書를 지냈으며, 幹의 아들 仁保 또한 侍中尙書를 지냈다.

仁保의 아들 起가 金紫光祿大夫 都僉議(금자광록대부 도첨의)로 關西夫子 震의 43代孫이며, 우리 淸州 楊氏의 始祖이신 忠憲公 할아버지시다.

◆ 소원록(溯源錄) 및 원류고(源流考) 用語解説

(1) 溯源錄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용어(用語)의 해설(解説)

- 溯源(소원) : 溯源은 물의 근원(根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감. 사물(事物)의 根源을 거슬러 올라가 찾아냄의 뜻으로, 우리 족보(族譜) 위에서 소원록이라 함은 우리 淸州 楊氏의 근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간 記錄을 말함.
- 唐叔虞(당숙우) : 여기에서 唐은 周나라 成王이 동생 叔虞를 봉(封)한 諸侯國을 일컬음. 唐 叔虞는 周나라 諸侯國의 叔虞를 말함.
- 唐 : 이 연(李 淵 : 唐 高祖)이 수(隋)의 뒤를 이어 세운 나라(618~907)
- 後唐(후당) : 이존욱(李存勖)이 세운 5代(後唐·後晉·後漢·後周 五季)의 하나(923~936)
- 南唐(남당) : 李 昇(이 변)이 세움(937~975)
- 周(주) : 무왕(武王)이 殷(商은 殷나라 처음 이름)나라 紂王(주왕)을 쳐서 紀元前 1121년에 周王朝를 세움. 무왕이 羌족(羌族)과 庸족(庸族) 등 여러 부족과 연합하여 殷(殷)을 멸한 후 周王祖를 세워 諸侯에게 분봉(分封)하고 鎬京(鎬京)에 도읍(都邑)을 세움.
- 晉(진) : 지금의 中國 山西省 부근에 있었던 春秋 때의 諸侯國.
- 太傅(태부) :三公의 하나. 임금을 도와 나라를 다스림.
* 高麗 때 三師의 하나. 從 一品 官職
- 三公(삼공) : 나라의 세가지 최고 官職
 1. 周의 太師·太傅·太保
 2. 漢의 大司馬·大司空·大司徒
 3. 後漢·唐·宋의 太尉·司空·司徒
 4. 朝鮮의 領議政·左議政·右議政
- 韓襄王(한양왕) : 周의 諸侯國인 韓의 襄王
- 秦(진) : 周 孝王이 伯益(백익)의 後孫을 封한 나라. 壯公 때에 大丘 곧 지금의 陝西省으로 옮겼으며, 국력이 날로 강해져 七雄의 하나가 되었고 始皇帝가 천하를 통일하였다.
- 上卿(상경) : 周代에 가장 존귀한 사람을 일컫는 말. 조정대신을 두루 일컫는 말. (국내) 正一品과 從一品의 判書.
- 沛公(패공) : 漢高祖 劉邦(유방)이 帝位에 오르기 전 稱號(칭호). 沛縣(패현)에서 군대를 이르켰을 때 軍중이 擁立(옹립)하여 붙인 칭호.

- **太史(태사)** : 역사 또는 문서의 기록을 맡은 官吏. 天時・星曆・祭祀 따위를 관장하던 관리.
- **屬國安平侯(속국안평후)** :
 - * 侯 : 君主의 統稱. 五等爵(公・侯・伯・子・男等)의 둘째.
- **諸侯(제후)** : 周代와 漢代에 각국에 分封된 작은 나라의 임금의 統稱
周 때에는 公・侯・伯・子・男의 五等級. 漢 때에는 王・侯의 二等級으로 區分
- **丞相(승상)** : 고대 帝王을 보좌하던 최고관리. 政丞
- **歐陽尙書(구양상서)** : 歐陽生이 伏生에게서 今文尙書를 배운 뒤 이를 代代로 전하여 尙書에 歐陽氏學이 있게 하였음. 尙書는 書經의 舊稱임.
- **居攝(거섭)** : 나이 어린 임금을 대신하여 攝政(섭정)을 함.
- **光武帝(광무제)** : 중국 後漢의 始祖. 劉秀(유수)의 稱.
- **太常(태상)** : 太常寺(태상시). 漢 때 禮樂・郊廟(교묘)・社稷(사직) 등의 일을 맡은 관청.
- **字(자)** : 사람의 본 이름 외에 부르는 이름
- **諡號(시호)** : 卿相・儒賢들이 죽은 뒤에 그들의 行蹟(행적)을 칭송하여 임금이 追贈하는 이름
- **司空(사공)** : 漢의三公의 하나로 御史大夫(어사대부)를 개칭한 이름. 漢代 죄수를 관장하던 벼슬
- **主簿(주부)** : 漢 때 중앙관서 및 君縣(군현)에 두어 文書를 관장하고 사무를 처리하게 한 벼슬
- **關西夫子(關西孔子)** : 後漢의 楊震을 이름. 大學者
- **關西(관서)** : 중국의 함곡관(函谷關) 또는 동관((潼關)의 서쪽지방을 가리킴. 孔子의 탄생지는 山東省 曲阜(곡부)로 關東地域에 해당됨으로 이에 對應시킨 용어라 사료됨.
- **太尉(태위)** : 秦・漢代(진・한대)의 벼슬 이름. 군사에 관한 일을 맡았으며,三公의 하나로 일컬어짐. 太尉(領議政), 司空(左議政), 司徒(右議政)
- **中書省(중서성)** : 隋・唐・宋의 중앙관청. 무(機務)・조서(詔書)・민정(民政) 등을 총괄하였음.
- **金紫光祿大夫(금자광록대부)** : 고려 문관의 從二品 官階, 忠烈王 원년에 匡靖大夫(광정대부)로 개칭. 僖宗王 5년에 從一品의 上을 金紫光祿大夫라 稱하였다가 11년에 다시 폐지함.
- **京氏周易(경씨주역)** : 漢의 京房지음. 경방은 陰陽五行說로서 자연재해를 사람의 吉凶禍福에 끌어대어 해석하는 天人感應說을 주장하였고, 元帝 때는 易學의 한 유파를 이룸. 3卷
- **侍中** : 처음에는 丞相의 속관이었으나 皇帝의 곁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 봄. 唐 때는 門下省의 장관으로 宰相職. 신라 때는 執事省의 으뜸 벼슬. 고려 때의 관직. 廣評省. 門下省. 門下府의 從一品 벼슬.
- **尙書** : 隋・唐 때 六部의 장관의 명칭이 되었음. 고려 六部의 으뜸 벼슬. 또한 고려 때 尙書省의 正三品 벼슬.

- **都僉議侍中(도첨의시중)** : 고려 때 都僉議使司의 으뜸 벼슬. 正一品. 충렬왕 24년에 僉議中贊(첨의중찬)을 고쳐 쓰던 官職.
- **어려운 漢字音** : 旗盈(기영), 款(관), 敷(부), 兩龔(량공), 佺(전), 彪(표)

(2) 源流考(원류고)를 理解하는 데 도움이 될 내용

• **高麗末 王室 世系表**

25代 忠烈王(1274~1308) — 26代 忠宣王(1308~1313) — 27代 忠肅王(1313~1330) — 復位(1332~1339) — 28代 忠惠王(1330~1332), 復位(1339~1344) — 29代 忠穆王(1344~1348) — 30代 忠定王(1348~1351) — 31代 恭愍王(1351~1374) — 32代 禔王(1374~1388) — 33代 昌王(1388~1389) — 34代 恭讓王(1389~1392).

- **恭愍王(공민왕)** : 1330(충숙왕 17)~1374(공민왕 23). 고려 31대 왕. 재위 1351~1374. 諱(휘)는 顥(전). 충숙왕의 둘째 아들. 1341년(충혜왕 복위 2) 元나라에 감. 元 魏王의 딸 魯國大長公主를 비로 맞아 元의 지시로 忠定王을 폐하고 王位에 올랐으나 원에 반항할 뜻을 품음. 1352년 辮髮·胡服 등 몽고풍을 폐지. 1356년 몽고의 年號·官制를 폐지하고 文宗 때의 옛날 제도로 복구. 내정을 간섭하던 元의 征東行中書省理問所를 폐지. 100년 간이나 존속해 온 元의 雙城總管府를 폐지. 원에게 빼앗겼던 영토 복귀. 1368년(공민왕 17) 朱元璋(주원장)이 明나라를 세우자 그에 협조. 1360년에 紅巾賊의 란. 1361년에 왜구의 침입 등으로 나라의 형편이 기울어지기 시작함. 1365년(공민왕 14) 노국대장공주가 難産으로 죽자 佛事에만 전심하고 王妃만을 추모하며 국정에 疏忽(소홀).

- **魯國公主(노국공주)** : ?~1365(공민왕 14). 고려 恭愍王妃. 일명 寶塔實里公主. 元나라 宗室 魏王의 딸. 1349년(충정왕 1) 元나라에서 공민왕과 결혼. 1351년 공민왕이 卽位次 還國時 왕과 함께 귀국함. 1364년(공민왕 13) 難産으로 발병. 이듬 해 2월에 죽음. 왕이 정사는 돌보지 않고 불사를 일으켜 魂祭를 지내고 화려한 影殿을 세움.

- **始祖 忠憲公** : 1303년 中國에서 태어나심. 20歲에 上護軍으로 元나라 駐屯監督府인 屯田經略司의 軍官. 1322년 藩王(심왕 - 高(고) : 忠宣王의 조카)의 鈞旨(균지)를 갖고 三司副使인 李謙(이겸)과 元나라 賀正使로 가신 바 있음. 그 뒤 年代 未詳이나 원나라로 들어가심. 元에서 首侍中으로 계시면서 世子와 公主를 敎育하심. 1351년 12월 “公主를 따라가 고려를 도와서 朕(짐)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元나라 皇帝의 命으로 恭愍王 卽位次 환국시 陪從(배종) 겸 公主를 隨行(수행)하심. 그 후 王妃를 보좌하시면서 나라의 극진한 禮遇로 金紫光祿大夫의 蔭敍(음서)를 받으시고 恭愍王의 정치 諮問役을 충실히 수행하셨으며, 元 至正 末葉(1360年 代初葉)에 中國에 가셔서 歲貢(童女 5千人, 駿馬 3萬匹, 絹綾 3萬疋 및 白紵布 6萬疋等)의 무리함을 上奏(상주)하여 이를 削減(삭감)하는 데 크게 寄與하시어, 萬歲의 功勳(공훈)을 이룩하셨다 하여, 나라에서 壁上三韓昌國功臣, 清白吏(벽상삼한창국공신, 청백리)를 封하며 本貫을 淸州로 下賜(하사)하고 淸州와 松禾를 食邑地로 정해주게 되었음.

- **瀋王 皞(심왕 고) = 瀋陽王** : 고려 때 元나라에서 받은 封爵(봉작)의 하나. 1308년(忠烈王 34년)에 元나라 武宗을 王位에 추대한 공으로 고려의 前王인 忠宣이 瀋陽王의 封爵(봉작)을 받은 것이 시초였다. 당시의 瀋陽 즉 지금의 奉天·遼陽(요양) 지역을 맡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음. 심양에 대한 지배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여 준 것임. 1310년 瀋王에 改封. 忠宣이 고려의 王位를 그의 둘째 아들 燕(도)인 忠肅王에게 넘긴 뒤로는 元에서는 瀋王으로만 호칭하였음. 다시 충선은 瀋王의 位마저 그의 조카인 延安君 皞에게 넘겨주면서부터는 심양 등지에 대한 실권이 없어지고 名譽的인 封爵에 지나지 않았음. 이 때부터는 元나라에서 이 심왕을 교묘히 이용함으로써 고려의 왕을 견제하는 도구로 이용했음. 고려의 조정에서 미움을 받은 무리들이 심왕 皞와 결탁하여 陰謀를 일삼으며, 또 元나라에 청하여 忠肅王을 내몰고 瀋王을 王位에 올리려는 운동을 일으켰으나 실패한 바 있음. 이 문제는 忠惠王 때에 다시 대두되어 나중에는 군대를 이끌고 開京을 점령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음. 그러나 그 뒤 恭愍王이 弑殺(시살)되자 다시 심왕 皞가 王位를 계승하려고 음모를 꾸몄으나 成功하지 못하였음. (여기에서 우리 始祖께서 1322년 瀋王 皞의 鈞旨를 갖고 李謙과 같이 元나라 賀正使로 가신 바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심왕의 위치와 관련시켜 여러 모로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라 사료됨.)

* 前王 : 忠宣이 고려 26대 王位에 오르기 前 25대 忠烈王 25년(1298년)에 일시(7개월간) 왕위를 이어받은 때가 있었으며, 이 때 父王은 太上王이라 呼稱하였음. 따라서 忠宣을 前王이라 呼稱하게 된 것임.

- **源流(원류)** : 물이 흐르는 源泉, 사물이 일어나는 根源.

- **四知公** : 비밀은 숨겨두어도 언젠가는 반듯이 들어남.

後漢의 楊震(진)이 東萊太守로 있을 때에 昌邑縣令(현령) 王密이 밤에 찾아와서 뇌물로 金 10斤을 선사하며 “아무도 모른다”고 하자 “하늘과 땅과 그대와 내가 아는데, 어떻게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가(天知 地知 我知 子知 何謂無知)?”라고 하며 거절하였다는 古事에 緣由되어 清白吏의 대표적인 人物로 높여부른 愛稱.

- **清白吏(청백리)** : 청렴하고 결백한 관리

- **宰相(재상)** : 왕을 보필하고 百僚(백료)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二品 이상 벼슬의 통칭. 丞相(승상)

- **魯嬪都令(노빈도령)에서 都令** : 승정원 도승지의 딴 이름

- **都丞旨(도승지)** : 고려 때 光政院의 중 5품 벼슬. 조선 때 丞政院의 으뜸 벼슬 정 3품. 王命의 출납을 맡았음.

- **陪從(배종)** : 임금을 모시고 따라감.

- **上護軍** : 고려·이조의 武官職. 이조 때는 五衛에 속해있던 중3품 무관. 9명의 정원. 衛에서 둘째가는 무관. 五衛(中·左·右·前·後衛 등).

- **鈞旨(균지)** : 임금이나 丞相·장수의 명령에 대한 경칭.

- 屯田經略司 : 官과 官衙(관아)에 소속된 밭을 경영하고 다스리는 관직
- 蔭敍(음서), 蔭官, 蔭任, 蔭職 : 과거를 거치지 않고 다만 조상의 은덕으로 얻은 벼슬
- 除授(제수) : 벼슬에 천거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임금이 바로 벼슬을 내림
- 高麗史節要 : 고려의 編年史. 1452년(文宗 2)에 완성
고려사는 紀傳體인 것에 비해 史節要是 編年體임.
- 紀傳 : 本紀와 列傳
- 本紀 : 帝王의 事跡(사적)을 기록한 紀傳體의 歷史
- 列傳 : 많은 사람의 傳記를 차례로 벌려서 기록한 책
- 紀傳體 : 紀傳의 체제에 의하여 記述하는 歷史 編纂(편찬)의 한 체제
- 編年體 : 年代의 순서를 따라서 編次한 歷史編纂의 한 체제
- 東國通鑑 : 成宗의 명을 받들어 서거정, 정효항 등이 新羅始祖 赫居世로부터 고구려, 백제를 거쳐 고려 공양왕에 이르기까지의 1,400년 동안의 사실을 記錄編纂한 56권 26책으로 된 歷史冊
- 典儀寺(전의시) : 고려 때 祭祀, 贈諡(증시)에 관한 일을 맡아 본 관청
- 宗親府(종친부) : 이조 때 宗室諸君의 府. 高宗 31년에 宗正府로 개편
- 播遷(파천) : 임금이 都城을 떠나 만곳으로 피난함.
- 竄定(찬정) : 불필요한 것을 지우고, 틀린 것을 바로 고침.
- 讎校(수교) : 文字를 교정함.
- 穿鑿(천작) : 학문을 깊이 파고 들어감. 구멍을 뚫음.
- 淘汰(도태) : 줄여 없애버림.
- 煙滅(연멸) : 연기같이 흔적도 없이 살아짐.
- 官撰(관찬) : 관청에서 編輯(편집)한 歷史書籍.
- 三司(副使) : 고려 때의 관청. 국가의 錢穀(전곡)의 출납·會計를 맡아 봄.
- 受教謄本(수교등본) : 임금의 敎命 原本을 보고 베껴쓴 서류
- 彫村(방촌) : 黃 喜 政丞의 號. 李朝 初期의 名相, 24년간 政丞을 지냄.
- 葛藤(갈등) : 서로 불화하고 다툼.
- 消長 : 사라짐과 자라남.
- 疏(疎)略(소략) : 꼼꼼하지 못하고 거침. 소홀하고 간략함.
- 僭擬(참의) : 아래사람이 망령되이 스스로를 높은 사람과 비김. * 太史公 自序
- 食貨志 : 중국 역대 正史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經濟記事의 卷의 이름. 史記에서는 平準書로 되어 있음.
- 誅求無厭(주구무염) : 誅求는 관청에서 백성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아 감을 뜻하며, 無厭은 실증납이 없음을 뜻함.
- 吏部尙書 : 중국에서 吏部의 長官. 吏曹과 같은 뜻으로 文官의 選任, 功勳, 封爵 등의 일을 총괄. 正三品

- 申 概(신 개) : 인명
- 權 踞(권 재) : 인명
- 謀陷(모함) : 여러 가지 꾀를 써서 남을 어려운 구렁에 빠지게 함.
- 背馳(배치) : 엇나감. 반대기 됨.
- 經筵(경연) : 임금 앞에서 경서를 강론하는 자리. 경연청
- 奏上(주상) : 上奏라고 써야 옳다고 봄. 임금에게 말씀을 아뢰.
- 附會(부회) : 억지로 끌어 대어 이치에 맞게 하는 것
- 俄然(아연) : 급작스러운 모양
- 遜位(손위) : 임금의 자리를 사양함.
- 隱遁(=遜)(은둔) : 세상 일을 피하여 숨음.
- 擬定(의정) : 기초하여 정함.
- 顛倒(전도) : 엎드러져서 넘어짐. 전부(顛仆). 위와 아래를 바꾸어서 거꾸로 함.
- 支離滅裂(지리멸렬) : 갈갈이 흩어지고 찢기어 갈피를 잡을 수 없이 됨.
- 乖離(괴리) : 서로 등지어 떨어짐.
- 徒勞(도로) : 보람없이 애씀. 헛되이 수고함.
- 譏謗(훼방) :毀謗을 잘못 기재한 것. 남을 헐뜯어 비방함. 남의 일을 방해함.
- 典書 : 1. 책, 典籍. 2. (ㄱ) 高麗 忠烈王 34(1308)년에 典理司 · 軍簿司 · 版圖司 · 典法司를 폐하여 選部(선부) · 民部 · 讞部(언부)를 두고 그 전의 判書를 고친 이름. 品階는 정3품.
(ㄴ) 조선 초, 六曹의 으뜸 벼슬. 품계는 정3품. 太宗 5(1405)년에 정2품의 判書로 고쳤음.
- 典理司 : 고려 때 尙書吏部의 뒷 이름
- 軍簿司 : 고려 忠烈王 元年에 尙書兵部를 고친 이름
- 版圖司 : 고려 때 尙書戶部의 뒷 이름
- 典法司 : 고려 忠烈王 元年에 尙書刑部를 고친 이름
- 어려운 漢字音 : 擬中華(의중화), 貶慶源(핍경원), 焚巖(분암), 藥(=蕊)城君(예성군), 碧潼(벽동) : 地名, 迂廻(우회)

始祖 上黨伯 忠憲公 巖谷 諱 起 行狀

시 조 상 당 백 충 헌 공 암 곡 휘 기 행 장

公의 휘(諱)는 起요 字는 可尹이며, 姓은 楊氏로서 中華 사람이다. 그 先代는 당숙우(唐叔虞)의 후손이다. 백교(伯僑)가 진(晉)나라에서 周나라로 옮겨와 周나라에서는 楊侯로 봉하고 楊(지역 이름)을 食邑으로 주면서 楊氏의 姓을 내려주었다. 晉나라 대부(大傅) 숙향(叔向)에 이르러 다시 楊에 食邑하게 됨으로써 그 땅을 평양양씨현(平陽楊氏縣)이라 일컬었다.

叔向이 伯石을 낳았는데 號를 楊石이라 했다. 그 뒤에 叔向의 자손이 華山골 선곡(仙谷)에 은거하다가 나중에 화음(華陰)에서 살았다. 그 아들 楊章이 韓나라 양왕(襄王)의 장수가 되어 수무(修武)를 지키다가 그로 인연해서 河內에서 살았다. 장(章)의 아들은 관(款)으로 秦나라 상경(上卿)을 지냈고, 款의 아들은 석(碩)이며 字는 太初인데 패공(沛公)을 따라 政伐에 참여하여 太史가 되었다. 碩의 아들은 희(喜)로서 字는 유라(幼羅)인데, 高祖 때에 큰 공훈을 세워 적천엄후(赤泉嚴侯)에 봉하였다. 희의 아들은 부(敷)이며 字는 伯宗으로 적천정후(赤泉定侯)가 되었다. 敷의 아들은 윤(胤)이며 字는 무해(母害)로서 태자사부(太子師傅)가 되었으며, 胤의 아들은 창(敞)이며 字는 君平인데 安平敬侯가 되었다. 敞의 아들이 忠이며 字는 신중(信仲)인데 安平頃侯가 되었으며, 忠의 아들은 담(譚)이며 字는 직지(直之)인데 屬國安平侯가 되었다. 譚의 아들은 보(寶)이며 字는 치연(穉淵)인데 구양상서(歐陽尚書)를 배워서 애제(哀帝)·평제(平帝) 때에 은거(隱居)하면서 교육에 힘썼다. 거섭(居攝) 2년에 양공(兩龔)씨와 같이 나라에서 불렸으나 끝내 숨어 살면서 벼슬을 하지 않고, 있는 곳을 알리지 않았다. 한(漢)나라 光武帝가 그 節義를 높이 사 官의 수레를 보내 특별히 불렀으나 늙고 병들었음을 핑계로 끝내 나가지 않았다.

보(寶)의 아들은 진(震)인데 字는 백기(伯起)로서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좋아하고 歐陽尚書를 태상(太常) 백옥(栢郁)으로부터 배워 경서(經書)에 밝았으며, 박식하여 깊이 연구하지 않은 것이 없고 독실·경건·청렴할 뿐만 아니라 근검·공순하고 너그러워 약관에 이미 온 누리에 그 이름을 날리고 관서부자(關西夫子)라 호칭했으며 태위(太尉)가 되었다. 震의 아들은 병(秉)으로서 字는 숙절(叔節)인데 대대로 이어내려온 學風과 家業을 전수하였을 뿐 아니라 경씨역전(京氏易傳)에도 밝았으며, 시서(詩書)에 능통하여 은거하면서 교육에 힘썼다. 나중에 불려서 太尉 벼슬을 주었다. 秉의 아들은 사(賜)이며 字는 백헌(伯獻)인데 어릴 적부터 집안의 學風을 이어받아 거듭 독실하게 박람하고 道를 안고 이름을 감추고 세상에 묻혀 가르쳤으니 문도(門徒)들이 뒤따라 사공(司空)을 제수했으며, 사후 시호를 문열(文烈)로 받았다. 賜의 아들은 표(彪)로서 字는 文先인데 집안 學風을 떨어뜨리지 않고 항상 은거하였으나 얼마 있다가 나라에서 太尉 벼슬을 받았다. 彪의 아들은 수(修)이며 字는 德祖인데 총명한 준재(俊才)여서 공경(公卿)이 되었고, 修의 손자 준(準) 또한 公卿을 지냈으며,

準의 曾孫인 전기(佺期)는 정승이 되었으며, 佺期の 後孫 善才는 大德 초기에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政丞을 지냈으며, 善才의 아들이 간(幹)이며 字는 여수(汝秀)인데 또한 政丞 벼슬을 받았다. 幹의 아들이 인보(仁保)이며 字는 의현(義顯)인데 政丞이었으며, 仁保가 公 기(起)를 낳았다.

公의 天性이 어질고 너그러워 어려서부터 清白을 법도로 삼았으며 평소에 큰 뜻을 품고 살면서 따뜻하고 배부른데 개의치 않고 제세안민(濟世安民)으로 소임을 삼았으며, 천하의 重任이 이와 같음을 알고 百姓의 뜻을 구제하는 것으로 포부와 경륜을 삼았다. 과거(科擧)에 수석이 되었으나 화려함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다. 벼슬이 金紫光祿大夫 中書省政丞에 이르렀으나 그것 때문에 대체(大體)나 소절(小節)에 구애되지 않고 그 위치가 당당하면서도 땅에다 누대(樓臺)를 세우지 않고, 집안에 있을 때는 四知公의 유품을 지켰으며 朝廷에 나가면 큰 규모의 정치를 할 수 있었다.

강호(江湖)에 물러가 설 때는 그 임금을 걱정하고 정치를 의론할 때는 그 백성을 걱정했다. 도덕과 경전을 논의할 때는 나라의 경륜(經綸)과 陰陽의 변하는 섭리(攝理)를 밝히고 나라를 돕는 성의와 세상을 구제하는 계책이 직(稷)·설(卨)·이윤(伊尹)·여상(呂尙) 등의 보좌(補佐)에 뒤 떨어지지 않았으므로 天子가 가상히 여기시고 아주 선량한 고굉지신(股肱之臣)으로 받아들여 장마철에 있어서의 배와 돛대인 듯이 정사를 부탁했으니 임금의 칭찬과 중임이 이와 같았으니 宰相이 된지 10년만에 中國 백성으로 그 덕을 입지 않은 사람이 없어 德望이 온 나라에 퍼지고 이름은 외국에까지 떨치게 되었다.

어느날 임금께서 清白 두자를 내리시었다. 공이 대답하기를 臣의 清白함은 비단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뿐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家風으로 傳해온 것이므로 완전하게 지켜서 잃지 않고 後世에 남겨 子孫에게 누(累)가 없도록 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하물며 임금께서 명(銘)을 주시니 어찌 어기겠습니까. 臣의 좌우명(座右銘)으로 삼고 더욱 감명하여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하였다. 그 후 공이 공무에서 물러나 설 때 친척이 財産을 좀 모으라는 권고가 있으면 공은 옷깃을 여미고 단정하게 앉아서 말하기를 사람이 臣下된 도리로써 마땅히 百姓을 널리 구제할 것이지 내 한 집안의 안일을 위함을 남길 것인가. 子孫이 오래도록 家訓을 지키면 마땅히 후세의 法度가 될 것이므로 어찌 남김이 없다고 할 것인가 하였다. 이 말을 듣는 자 기뻐하며 감탄하였다. 그러한 傳家の 法이 一國의 표본이 되어 모든 職務에 권장되었으며, 임금의 찬조를 얻어 정책을 설계하고 펴는 데 도움을 주어 온 中國에 미치게 하고 속국에까지 미치게 하였다. 그리고 周나라의 周公 단(旦)과 소공(召公) 석(奭)의 선정에 이르게 되어 나라의 柱石이 되어 천하를 편안케 하였으며 한 세상의 만민을 춘대(春臺)에 오르게 했으며 三代의 유풍(遺風)을 中國政法에 되찾게 했다. 君子를 가까이 하고 小人을 멀리 하며 유학(儒學)을 숭상하고 예악(禮樂)을 섬기게 했다. 현재(賢才)를 뽑아 조정에 추천했으며 나라를 근심하는 정성이 마음 속에 연연하며 백성을 윤택하게 하는 道를 허용된 범위 안에서 부지런히 하여 그것이 백성에게 미치게 되었으니 그 은혜가 크다 하겠다. 또한 큰 절개에 임하거나 큰 일에 처했을 때 당시의 대신들도 능히 그를 따를 자 없어 임금이 손발

과 귀와 눈처럼 여겼다. 德化가 四海에 넘쳐서 그 지위가 三台(三公)에 올랐으나 보좌(補佐)하는 道理가 이와 같아 임금이 의심치 않았다.

公은 평소 착한 性品을 길러 티끌만큼도 사욕을 품지 않았으며 독서를 하되 반듯이 論語와 孟子로써 본지(本旨)를 삼고 伊尹의 가르침과 훈설(訓說)의 敎令을 큰 경전으로 삼았다. 무릇 性理를 파고들어 연구하지 않음이 없고 항상 말하기를 정치하는 道는 마땅히 元개(元凱)로써 法을 삼고 백성을 편안히 하는 道는 마땅히 고(皐)와 기(夔)로써 준칙을 삼는 것이 옳다고 했다.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는 데 먼저 힘썼으며 일의 취사선택의 도량을 환하게 갖춰 마침내 훌륭한 정사를 중국에 시행토록 하여 中國 사람으로서 그 德에 훈도되어 착하고 어진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그 청렴하고 절개있는 행동과 性品을 기르고 마음을 온존케 하는 心法이 온 세상에 떨치고 四海에 퍼져 학자들이 嚴谷先生이라 칭송하였고, 皇帝가 공을 보고 말하기를 공의 청렴 결백과 절행 검소함은 先代로부터 자손에 유전되어 卿이 그 家風을 이어 받은 바라 짐(朕)이 심히 가상히 여겨 卿으로 하여금 伊尹이나 周公과 같은 책무(責務)를 부탁코자 하여 어린 世子를 부탁하는 바이며 朕의 자손으로 하여금 청검(淸儉)과 禮節을 본받게 하고 싶다 하였다. 그리고 곧바로 공을 首席政丞을 맡게 하시고 公主를 부탁했다. 公主 또한 공경하고 중히 여기기를 게을리 아니하더니 드디어 그 公主가 장성하여 高麗로 출가하게 될 때, 皇帝가 공에게 말하기를 高麗가 전날 우리 太祖에게 功이 있어 帝室과 통혼(通婚)을 허락하였으므로 이제 公主가 高麗로 출가함에 있어 이미 卿이 부탁받은 바 책임이 있으니, 卿이 公主와 더불어 같이 가서 高麗를 도와서 나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공이 命을 받아 高麗에 도착한즉 임금께서 皇帝의 호의에 감사하고 공의 내조(來朝)를 기뻐하시며 공에게 말씀하시기를 中國의 귀한 신하를 이미 나에게 부탁하시었으니 그 덕택(德澤)이 막중하다. 다행히 하늘이 인자하고 어진 분을 보내주시어 우리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본받도록 하였으니 어찌 공경치 않으리요!

이에 임금께서 공을 政丞으로 삼으시고 측근에 두시어 정사를 보좌토록 하시었다. 공이 나라 안을 돌아보신 후 많은 폐단이 있음을 항시 탄식하여 말씀하시기를 東海 한 구석에 있는 작은 나라가 이렇게 허다한 세공(歲貢)이 있으니 오래지 않아 저절로 바닥날 것이 분명하다. 임금은 장차 무엇으로 백성을 보호하며 백성은 어떻게 임금을 섬길 것인가? 항상 이를 걱정하시었다.

그러던 중 元나라 至正 末葉(1360年代 初葉)에 중국에 들어가시었다. 皇帝가 高麗의 폐단을 친히 물으셨다. 공이 대답하기를 신이 가만히 高麗의 사정을 보건대 땅 넓이가 불과 수 천리이며, 邑이 모두 106에 지나지 않으며, 나라 안의 사람 수도 적은데 5,000명의 童女를 선발하여 萬里 밖으로 공헌(貢獻)하기를 해마다 한다면 민간에서 소동이 납니다. 옛적 新羅 眞平王(辛卯) 때, 唐나라에 使臣을 보내 두 美人을 바쳤더니 위징(魏徵)이 받지 말라 하였다. 太宗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저 林邑에서 앵무새를 헌납하였을 때도 오히려 말하기를 기후가 차서 돌아가려할 것 아닌가? 하였거늘 하물며 두 童女에 있어서랴! 멀리 부모를 이별하고서 어찌하라 하고 使臣에게 일러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오직 저 한쌍의 계집아이도 오

히려 받지 않았거늘 이제 五千名의 女子는 그 수효가 너무 많습니다. 만일 女子는 한이 있는데 한없이 女子를 바치라 하면 그를 충당하기 위하여 사람이 바닥이 나서 나라가 감당하기 어려움이 그 하나이며, 海東은 말이 적기로 나라 가운데 첫째이며, 北方에 접하지 않아 土性이 맞지 않아 기르기 어려워 세공(歲貢)이 三萬匹이나 되니 물건이 다하여 바칠 것이 없어 고려로서 지탱하기 어려움이 두 가지 이유이며, 또한 우(禹)나라가 朝貢하는 것을 보건대 모든 그 物名들이 현훈(玄纁)·직조(織組)·염사(纈絲)·직문(織文) 등으로써 모두가 그 나라 소산물로써 바친 것이지만 東國은 十二州 밖에 있어 별로 화려한 비단이 없는데 三萬同이나 비단을 歲貢으로 바치게 되었으니, 비단 나라의 財力이 바닥날 뿐 아니라 백성들의 근심이 더욱 심해져 작은 나라로서 고질적 폐단이 됨이 그 세 가지 이유이며, 시마(枳麻)·섬호(織縞)는 모두 靑州·徐州에서 바치는 것으로 東國에서는 흠이 맞지 않으며, 혹 경작하는 곳이 있다하더라도 현담(玄統)의 옷을 짓기에는 합당치 않으니 역시 그곳의 소산물인데 이것을 해마다 六萬匹이나 되는 저포(紵布)를 歲貢해야 하니 국고(國庫)에는 저장한 것이 없어 전 국민에게 부과시키게 되니 백성들이 그 어찌 피곤치 않겠습니까? 使役의 과중함이 그 네 가지입니다.

폐하(陛下)께서 진실로 厚하게 주고 얹게 받는 마음으로 미루어서 이 네 가지 큰 歲貢을 감해주신다면 臣이 동방(東邦)에 가서 모든 것을 종도록 補佐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못하면 東邦의 작은 나라로서는 十年을 부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臣이 外國에 가 있는 것은 오직 補佐를 잘하여 君臣의 道理를 다하기 위함입니다. 고질적 폐단이 이와 같은데 없애지 않으면 臣이 宰相의 자리에 있으면서 헛되이 國祿만 허비할 뿐이며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皇帝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탄식하여 말하기를 東國의 歲貢의 폐단이 건디기 어려움을 이제 비로소 깨달았다. 卿의 나라를 위한 정성과 백성을 보호하는 마음을 젊어서부터 알고 있는 터인데 다시 무슨 가부를 말하겠는가. 이제부터 父母之國을 맺고 특별히 각종 네 가지 歲貢을 감하게 하고 조명(詔命)을 내려 公으로 하여금 歲貢帳簿를 수정토록 했다. 公이 장부를 점검하여 東國의 歲貢 童女 五千名, 말 三萬匹, 비단 三萬同, 白紵 六萬匹을 영원히 삭감하고 돌아오셨다. 그리하여 비로소 우리나라가 태평함을 얻었으며 나라에 餘力이 생기고, 百姓이 財産을 남기게 되고 風俗이 淳厚해졌으며 禮法을 성대히 갖추게 되어 완전히 태평성세가 되어 세상에 칭송이 자자함으로 임금께서 그 큰 업적을 가상히 여겨 비로소 萬世의 功勳을 이룩했다. 그러므로 高麗·新羅의 허다한 功臣들도 능히 이에 비견할 자가 없고 모두 그를 믿돌 뿐이었다.

그 功은 세상을 덮고 德은 백성에게 미친지라 나라에서는 功을 으뜸으로 정하고 작읍(爵邑)으로 賞을 주었으며, 벽상삼한창국공신(壁上三韓昌國功臣) 淸白吏 上黨伯을 封하고 本貫을 淸州로 하사하시고 海州와 松禾를 食邑케 하여 편히 쉬게 하시니 나라의 영달과 더불어 장한 일이라 하겠다. 그 때의 나라 다스리는 규모가 모두 中國의 制度에 따랐으므로 禮樂과 文物을 三代의 성대했던 시절로 되돌아가게 하여 箕子의 유풍(遺風)이 완전하였으니 東方

의 빛이 되었었다. 대저 朝鮮은 八道로 지역을 나누어 바다와 접하게 되었는데, 그 德澤을 입지 않은 자가 없어 三韓遺民이 다같이 太平盛世로 돌아오게 되었다.

天地에 정성을 다하고 나라의 발전을 돕는 것은 宰相의 사업이므로 드디어 開國功臣의 으뜸이 되었다. 공은 들어가서는 中國의 정승으로 그 혜택이 널리 천하에 퍼지고 나와서는 東國의 정승이 되어 그 열렬한 功勳이 영원토록 萬世에 힘입게 되었으니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케 하는 道가 그 누구인들 이와 같았으랴. 지위가 崇品 자리에 있었으며 대우가 견줄 데 없었고 좋은 말과 착한 행실이 그 당시 찬란하여 史官들이 대서특필로 글을 지어내고 죽백(竹帛)에 새기고 史蹟에 소소히 기록해서 세상에 전하였다. 공은 말년에 벼슬을 물러나 松禾縣 墨山 아래에서 쉬었다. 그는 進退에 있어 中을 취하며 公正을 잃지 않았다. 나라에서 胥長(几杖)을 보내 노재상으로 예우하고 만약 국가에 큰 일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높은 수레를 보내 墨山에 가서 물었다. 그 판단이 물흐른듯하여 국가의 소망에 부응되니 임금이 감탄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천하의 指針이라 하였다.

公은 어릴 때부터 노년에 이르도록 이름이 北斗七星에 비견되었고, 國勢를 泰山처럼 편안한 데 놓이도록 했으며, 마침내 우리나라의 네 가지 큰 歲貢의 폐단을 삭감케 하여 그 공덕이 萬世의 수범이 되고 우리나라 백성에게도 두루 열렬하게 빛내었다.

나라에서 매양 使臣을 보내 불렀으나 공이 병들어 나갈 수 없다고 사양했다. 나라에서는 공이 늙어서 나오지 못함을 민망히 여기고 오래 보지 못함을 탄식하여 畫工을 공이 사는 데에 보내 진상(眞像)을 그리게 하였다. 옛날 위야(魏野)의 古事처럼 便殿에 그려 걸었으며 당개(唐介)의 古事처럼 事蹟을 朝堂의 벽 위에 걸어두고 때때로 상대함으로써 직접 공을 보는 것과 같이 하였다. 그가 집에서 사시는 행실인즉 修身을 하되 衣冠을 정제하고 안색을 차분히 하고 공손한 자세로 묵중하게 단정히 앉으며 그리고 한가히 거처할 때는 일찍이 일어나서 廟堂에 배알하고 물러나와 別室에 앉아 분향하고 문을 닫고 古典을 열람하여 聖賢의 경지에 정신을 머뜨르게 하고 小人들과는 접촉을 멀리 하였다. 비록 마을이나 이웃 동네의 사람이라도 감히 私的으로는 그 門 안으로 들지 못하였으며 책상에 老莊의 서적을 두지 않고 항상 小學과 大學을 외우며 마음을 바로잡는 요결로 삼고 出入할 때는 화려하게 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다만 말 한필과 童子 두명의 간단한 행장이므로 길가는 사람들이 재상의 행차임을 알지 못했고 그 위의(威儀)와 움직이고 멈추는 법도가 어릴 적부터 노년에 이르도록 비록 몹시 춥고 심히 더운데라도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先祖를 제사지낼 때에는 孝誠을 극진히 하고 아랫사람을 대할 적에는 아주 자비롭게 하였으며 가정 안에서는 夫婦의 사이를 엄하게 하되 온화하고 恩義를 돈독히 하여 즐거움으로 가득찼다. 또한 祭祀는 그 대소를 가릴 것 없이 반드시 정성과 공경을 다했으며 조금이라도 뜻대로 안될 적에는 종일토록 기뻐하지 않으셨다. 祭를 올리는 데 禮에 어긋남이 없을 때는 유연히 기뻐했다. 喪을 당해서는 슬픔을 지극히 하고 음식과 그릇을 각각 그 실정에 맞도록 했다. 손님이 오면 바로 맞이하였으며 집에 있는 대로 장만하여 그 대접을 정성스럽게 하고 친척에게는 비록 먼 사이라도 반드시 정의(情誼)가 미치도록 했으며 동네 사람에게는 비록 미친한 사람이라 하

더라도 반드시 공손히 대접하고 길흉경조(吉凶慶弔)가 있을 때도 결례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며 吉凶慶弔에는 빠지는 일이 없었다. 自己 몸에는 의복이 몸을 가릴 정도였고 음식은 배를 채우면 되었고 거처는 비·바람을 막을 정도로써 보통사람이 감내하기 어려울 처지인데도 이연(怡然)하였다.

朝廷에 들어가셨을 때는 가슴을 조이며 나랏일에 힘쓸 것을 다짐하고 善政을 개진하여 그 임금을 인도하였고 동료와 더불어 政事に 得失을 논의하여 그 결점을 보완하였다. 麗末에 佛法이 문란함을 걱정하여 三代之 儒道가 밝지 못함을 두려워하여 그 天理를 밝히고 人倫을 정함으로써 그 의무를 삼았으니 그를 전후하여 上疏한 글을 다 쓸 수도 없고 年月을 들어 모두 기록할 수가 없다. 先生의 사업은 실로 世道の 성쇠(盛衰)와 관계가 된다. 異端을 물리치지 못하고 儒學을 숭상하는 뜻이 있으면서 미처 이를 수가 없으므로 墨山 아래 물러가 살면서 怡然히 스스로를 즐겼으니 옛날 晉公이 乾岡 자택에서 산 것과 같고, 溫公이 洛園에 물러가 누운 것과 같다. 그 經綸하는 법도와 계획이 正大하고 偉大하며 그 풍성한 功勳과 위렬(偉烈)이 소상히 천명되어 오래도록 더욱더 새롭다.

대저 벼슬할 때 하고 그만둘 때 물러나 마음의 하고자 하는 바를 좇는 것이 先生의 소박한 지조이다. 아들 여섯명이 있는데, 각각 법식대로 수행을 하여 다 大官에 이르러 家庭의 교훈은 석분(石奮)의 家門과 같고, 奉養하는 道는 소광(疏廣)의 집과 같았다. 晩年에는 淸福이 節操에 깃들어 後人들의 모범이 되었다.

洪武 甲戌(서기 1394年) 7월에 환후가 위독하여 여러 아들이 잠시도 옆을 떠나지 않는 가운데 家事에 대하여는 한 마디 말씀도 없이 國事 돕는 일을 훈계하시면서 17日 이연(怡然)히 서거(逝去)하시니 享年 92歲였다. 訃音이 朝廷에 이르니 임금께서 탄식하여 말하기를 하늘이 어찌하여 나의 어진 정승을 빼앗아 가시고 하시며 눈물을 흘리시고 곧 六曹에 命하여 三日동안 소찬(素饌)을 올리라 하고 禮를 갖추어 白川郡 南鶴巖山(남관암산) 아래 院洞 癸坐原에 장사지내고 諡號를 忠憲으로 내리시고 또한 새 명주에 그린 유상(遺像)을 松禾縣 사시던 곳에 하사하시면서 그 고장 선비들로 하여금 祠堂을 세우고 奉安을 하되 한결같이 백록동(白鹿洞) 규모로 하고 祭器를 갖추어 春秋로 두 번째의 丁日에 정성껏 제사를 모시라고 했다. 遺像이 늙연(凜然)하여 보는 사람이 숙연해지고 경모하였다. 配는 淸州韓氏이시니 同正 벼슬을 지낸 文吉의 딸로서 六男一女를 두셨으니 長男은 成柱로 右相 벼슬에 올랐으며 西原伯을 封하였고, 孫子는 伯淵으로 贊成事를 지냈으며 都指揮使로 禮成江 및 晉州班城縣에서 왜구를 격파하여 大功을 세웠으며 돌아가신 후 諡號를 忠簡으로 내리셨으며, 第二子는 天柱로서 左相을 지냈으며 손자는 益貴로서 右尹을 지냈다. 第三子는 萬壽로서 判書를 역임했으며 손자는 貞幹으로 벼슬이 判書에 이르렀다. 第四子는 之壽로서 光祿大夫贊成事(匡靖大夫贊成事)인데 淸伯吏를 하사받았고 西平君을 封했다. 손자 興立은 判書 벼슬을 지냈으며 넷째 손자는 天震으로서 주청사(奏請使)로 中國에 들어가 여러 해를 머물러 있으면서 벼슬을 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수 많은 朝貢帳簿를 영구히 삭감하고 환국하여 나라에서는 그 淸白과 功勳을 표창하여 安岳君을 封하고 食邑토록 했으며 돌아가신 후 諡號를 景安

으로 내리셨다. 第五子は 根으로 密城君에 封해졌고 손자는 文인데 가선(嘉善) 벼슬을 했으며, 第六子は 浦인데 右相을 지냈으며 唐岳君을 封하였고 손자는 東茂로서 吏曹判書를 지냈다. 딸은 判書 朴之長에게 출가했다.

公의 清白과 훈로(勳勞)와 事蹟이 國史에 뚜렷하여 해와 별처럼 萬古에 빛나 썩지 않을 것이며 온 나라가 追慕함이 百世에 걸쳐 더욱더 새로울 것이다.

大匡輔國 崇祿大夫 議政府 領議政 黃喜 撰
(대광보국 승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황희 찬)

忠憲公 巖谷 楊先生 松禾 修證寺 奉安文

충 헌 공 암 곡 양 선 생 송 화 수 증 사 봉 안 문

오직 公은 世上의 英傑(英傑)로 태어나셨다. 산악(山嶽)과 같고 河海와 같아 神靈을 받고 精氣가 쌓여 大任을 맡고 강림(降臨)하셨다. 性品이 탁월하고 마음이 질박하여 清白吏 四知公의 가풍을 기렸다.

일찍 首席으로 科擧에 올랐으며 公卿의 지위에 있으면서 政治를 보좌하여 드디어 팔굉(八紘)을 구제했고, 하늘이 우리나라를 돌보아 東來하시어 宰相이 되었으며 禮樂과 文物을 찬연히 다시 밝히셨다.

뜻이 백성을 平安하게 하고 구제하는 데 있어 한마음으로 경영하셨다. 中國에 使臣으로 들어가 그 首都에서 歲貢의 폐단을 진술하고 네 가지 歲貢을 점검하여 모두 삭감하였다. 그리하여 나라가 富해지고 백성이 安락하게 되어 비로소 太平함을 누리게 되었다. 東國에 끼친 바 施惠가 크므로 세 고을을 封하여 食邑토록 했으며 작록(爵祿)이 화려하였다. 朝廷에서는 그 어진 뜻을 포상(褒賞)하고 畫像을 그려서 정려(旌閭)에 봉안케 하되 그 규모를 白鹿洞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祭需를 정결하게 하도록 했다. 高麗·新羅 이후 萬世의 功을 세웠으며, 三韓의 大賢人으로 東國의 큰 기둥으로 北斗星과 이름을 나란히 하여 나라를 편안히 할 것이다. 또한 萬古에 걸쳐 우리나라에서는 山처럼 높고 물처럼 맑아 百世 후에도 오히려 본받게 될 것이다. 은퇴하여 쉬시던 곳에 祠宇가 우뚝 솟아있고 遺像이 늠름하므로 神靈께서도 공경함을 살피어 알아주실 것이다.

大匡輔國 崇祿大夫 議政府 領議政 河 崙 謹製 號 浩亭
(대광보국 승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하 룬 근제) 호 호정

◆ 용어 해설(用語 解説)

- 兩龔(양궁) : 두 龔氏, 龔舍(五經에 통달하고 魯詩를 가르쳤음)와 龔勝(B.C. 68~B.C. 11, 諫議大夫와 발해 太守 역임) 두 사람을 일컫음.
- 大臚(대체) : 격식, 법식.
- 太常(太常寺)(태상시) : 漢 때 禮樂 · 교묘(郊廟) · 社稷 등의 일을 맡았던 官廳
- 稷(직) : 舜임금 때 4 名臣 중의 한 사람.(고(皐) · 기(夔) · 직(稷) · 설(髡), 곧 皐陶 · 夔 · 後稷 · 髡 등이 4 名臣이었음.)
- 伊尹(이윤) : 殷나라 宰相. 이름은 伊 또는 지(摯), 尹은 벼슬 이름. 탕왕(湯王)을 도와 桀(桀)을 쳐서 탕왕이 天下를 統一하게 하였음.
- 伊尹太公之謀 : 천하를 평정하여 다스리는 계책. 太公은 周의 太公望, 呂尙.
- 樓臺(누대) : 樓閣과 亭子
- 股肱之臣(고굉지신) : 임금이 가장 믿고 중하게 여기는 臣下
- 呂尙(여상) : 周의 賢臣. 姓은 姜, 이름은 尙. 渭水(위수)가에서 낚시질을 하다가 사냥 나온 周 文王을 만나 스승이 되었음. 周 武王이 즉위하자 그를 도와 殷을 멸하고 周를 세운 功으로 齊에 봉해져 始祖가 되었음. 太公. 姜太公.
- 周公 : 周 文王의 아들이며 武王의 동생. 姓은 姬(거), 이름은 단(旦), 시호는 元. 武王을 도와 殷의 紂王(주왕)을 쳐서 周王朝를 세우고 魯에 封해졌음.
- 召公(소공) : 周의 公侯. 姓은 姬, 이름은 奭(석), 文王의 庶子로 武王의 아우. 武王이 紂를 멸하고 北燕(북연)에 封하였으며, 成王 때 周公 旦과 함께 三公이 되어 陝西省(섬서성)을 東西로 나누어 그 서쪽지방을 다스렸음.
- 元凱(원개) : 春秋左氏傳集解(춘추좌씨전집해)를 저술한 杜預(두예)의 字
- 皐(고), 夔(기), 稷(직), 髡(협 ; 설) : 舜임금 때의 네 名臣. 皐 = 皐陶(고도, 고요)
- 魏徵(위징) : 唐 太宗 때의 名臣(580~643)
- 玄纁(현훈) : 검은색과 분홍색의 비단. 帝王이 賢士를 부를 때 쓰는 예물
- 織組(직부) : 무명실로 짠 피륙
- 織文(직문, 치문) : 무늬를 넣어 짠 비단
- 縹絲(염사) : 싼뽕나무로 기른 누에의 고치에서 뽑은 실. 絹絲(견사)
- 三萬同에서 同 : 길이의 單位名. 피륙 50匹(필)을 한 묶음으로 세는 단위(五十匹 爲一同)
- 匹 : 布帛(포백) 4丈(장)의 길이. 1丈=10尺(척).
- 織縞(섬호) : 綺縞(기호), 素縞(호), 紵縞(저호) 등 모두 같은 것으로 고은 모시옷
- 紵布(저포) : 모시풀의 껍질로 짠 피륙. 모시 麻布
- 縞紵(호저) : 생사로 만든 띠와 모시옷. 흰 생사와 모시로 만든 옷
- 詔命(조명) : 帝王의 命令
- 崇品(승품) : 조선시대의 官階, 從一品의 별칭
- 崇祿大夫(승록대부) : 고려시대의 文官의 品階, 忠烈王 24(1298)년에 從一品으로 처음 설정

되었음.

- 竹帛(죽백) : 서적이거나 史記를 이르는 말
- 墨山(묵산) : 地名
- 几杖(계장) : 대신이나 중신이 늙어서 벼슬을 그만둘 때 임금에 주는 물건
- 朝堂(조당) : 朝廷, 君主가 나라의 政치를 의논 또는 집행하는 곳
- 廟堂(묘당) : 宗廟, 나라의 政治를 다스리는 朝廷, 議政府의 별칭
- 威儀(위 의) : 엄숙한 몸차림, 예법에 맞는 몸가짐
- 怡然(이연) : 즐거워하는 모양
- 經綸(경륜) : 일을 조직적으로 잘 계획함. 천하를 다스림.
- 偉烈(위렬) : 위대한 공적
- 異端(이단) : 자기가 믿는 이 외의 道. 옳지 아니한 道
- 素饌(소찬) : 고기나 생선이 들지 아니한 반찬(素膳 : 소선)
- 贊成事(찬성사) : 도첨의부(都僉議府), 門下府의 正二品 벼슬. 정승의 다음 벼슬
- 右尹 : 고려시대 三司의 從三品 벼슬. 조선시대 漢成府의 從二品 벼슬
- 判書 : 고려말 六曹의 으뜸 벼슬, 正三品. 공양왕 元年에 尙書의 고친 이름. 이조시대 六曹의 으뜸 벼슬, 正二品
- 匡靖大夫(광정대부) : 고려시대 文官의 官階, 從二品. 전 이름은 金紫光祿大夫, 개정 후 正二品으로 됨.
- 奏請使(주청사) : 옛날 중국에 冬至使 이 외에 무슨 국사에 대하여 주청할 일이 있어서 보내는 사람
- 嘉善(大夫) : 조선시대 文·武官의 從二品 品階
- 吏曹判書(이조판서) : 吏曹의 으뜸 벼슬, 正二品 벼슬
- 參議(正三品 : 堂上官) → 參判(從二品) → 判書(正二品)
- 同知(同知中樞府事) : 조선시대 중추부(中樞府)의 從二品 벼슬
- 訓說(훈설) : 글자나 文章의 뜻 풀이(= 訓解)
- 八紘(팔굉) : 八方의 끝
- 白鹿洞(백록동) 書院 : 중국 江西省 星子縣 北廬山の 五老峰 아래에 있는 서원.
- 河 崙(하 룬) : 1347(충목왕 3)~1416(태종 16), 조선 초기의 大臣. 號는 浩亭. 諡號는 文忠. 1365년(공민왕 14) 문과에 급제. 簽書密直司事에 이르러 최영(崔瑩)의 공료(攻遼) 정책을 극력 반대하다가 襄州에 귀양. 李成桂가 즉위한 뒤 京畿左·右道 都觀察使로 기용. 1398년(太祖 7) 왕자의 난이 일어났을 때 충청도 관찰사로서 군을 이끌고 서울에 이르러 난을 평정. 정종 즉위 뒤 일등공신에 오르고 晉山君에 피봉. 1400년(정종 2)에 左政丞. 1414년(太宗 14) 領議政府事가 되어 70세에 致仕하고 晉山府院君에 피봉. 太祖實錄 15권을 찬수하였다.
(* 이 분이 우리 始祖 할아버지 逝去시 京畿左·右道 都觀察使였던 것으로 思料됨.)

퇴은공(退隱公)

퇴은공 행적(行蹟)

공의 휘(諱)는 치이며, 忠憲公의 曾孫子로서 西平君派 景安公의 다섯째 아들이시다. 定宗 2 庚辰(1400년) 9월생이시며, 벼슬은 영광군수(靈光郡守), 함길(咸吉)·黃海 兩道の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를 지내셨다. 공은 무용(武勇)으로 발탁되어 절재(節齋) 김종서(金宗瑞)와 같이 오랑캐를 쳐서 육진(六鎭 : 鎭은 지방행정 구획의 하나)을 개척하는 데 큰 功을 세웠다.

사육신(死六臣)의 화(禍)가 지난 다음 고향인 포천 두문동(抱川 杜門洞)에 돌아와 은거 생활을 하셨다. 成宗 16 乙巳(1485년) 4월에 돌아가시니 세수(歲壽)가 86세였다. 묘는 포천 기당 봉수산(抱川 機塘 烽燧山) 기슭 인좌원(寅座原)에 있다. 표석(表石)이 있으며 시향(時享)은 10월 초엿새이다.

퇴은 양선생 유고서(退隱 楊先生 遺稿序)

단종조(端宗朝)의 계유정난(癸酉靖難)과 병자옥사(丙子獄死)에서 忠義를 지킨 신하(臣下)들이 수 없이 죽고 혹은 죽음을 면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모두 불쌍히 여겨 표창을 하고 가상(加賞)을 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 그 심성(心性)과 사적(事蹟)이 더욱더 후세에 뚜렷하게 빛나게 되었다. 지금에 와서 退隱 楊公 遺稿를 대강 보건대 공이 지은 것이 겨우 詩 8首와 후손들이 수집한 실적과 홍징사 직필(洪徵士 直弼)이 지은 전단향사 축문(傳壇享祀 祝文)까지 해서 한 권이 되었다. 애달프다. 너무도 적다. 그러나 그 詩를 읽어보니 公도 또한 癸酉의三公(金宗瑞, 皇甫仁, 鄭 分(笨) 및 丙子의 六臣과 같이 충성스런 마음은 같으므로 글이 적다고 해서 어찌 적게 볼 것인가? 처음 용맹(勇猛)과 지략(智略)으로 발탁되어 金宗瑞를 따라 六鎭을 개척하고, 마침내 黃海·咸吉 兩道の 병마절도사를 역임하던 중 계유년에 옥사(獄事)가 일어나자 곧바로 관직을 버리고 抱川 山中으로 은거하였다. 端宗께서 영월로 유배되고 양혜빈(楊惠嬪)이 공의 종질녀(從姪女)인데 옥새(玉璽)를 내 주지 않아 수양군에 의하여 漢南君·永豐君과 함께 피살되었다. 공이 밤중에 시체를 거두어 남모르게 암장하였다. 항상 동쪽 청령포(淸冷浦)를 바라보며 피눈물을 흘렸으며, 비오고 바람불 때나 매월 초하루 새벽에 관복을 입고 영월을 향하여 곡배(哭拜)하였다. 詩와 노래로써 뜻을 나타냈는데, 이제 그 詩가 百에 하나도 못남았으나 남은 詩는 이 충간공(李 忠簡公)의 수레 위에서 읊은 것과 같아, 우정(禹鼎)을 중히 여기고 사는 것이 좋지만 홍모(鴻毛)처럼 가볍게

죽는 곳에 오히려 영예로운 義가 있다할 것이다. 슬프다! 자고로 忠과 義에 사는 사람은 스스로를 버리고 세상에 파묻히는 자는 사람의 耳目을 끌지도 못하고 소리없이 죽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그 절개가 더욱 어두운 것이며, 그 심정이 더욱 괴로운 것이다.

公이 비록 癸酉 三公이나 丙子 六臣과 더불어 그 슬픔과 영화를 함께 하지는 못하였더라도 그 심정만은 같은데, 어둡고 빛나지 못하는 것은 어찌 된 것일까? 만약 後世에 論者가 있어 이 事蹟(사적)을 보고 감회를 일으키면 반듯이 무릎을 치면서 통한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公의 12世孫 원기(源基)가 유고(遺稿)를 보이면서 나에게 序文 한마디를 부탁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공은 스스로 분수를 다한 분인데 어찌 사람이 바라는 것을 발휘할 것인가?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노능지(魯陵誌)에 넣도록 하여 어느 정도 三公, 六臣의 부록(附錄)에 그 심정을 적어서 百世에 불멸(不滅)하도록 밝힐 따름이다. 마침 써 돌려 보내고 슬픔에 잠긴다.

丁卯 1867年 寒食

大匡輔國 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 經筵事監春秋館事

豐山 柳厚祚 序

◆ 용어 해설(用語 解説)

- 經筵(경연) : 임금이 學問을 닦기 위하여 신하들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을 궁중에 불러 經籍과 史書를 강론케 하던 일.
- 春秋館(춘추관) : 朝鮮시대의 관청. 1392년(太祖 1)에 고려의 제도를 본받아 藝文 春秋館으로 하고, 論議·敎命·國史 등의 일을 맡아 보았다. 監館事는 시중(侍中 : 정승급) 이상이 겸임하였다. 1401년(太宗 1)에 監館事를 領事로 하여 領議政이 겸임케 하였다.
- 禹 鼎(우 정) : 人名. 조선 仁祖 때의 학자. 號는 갈계(葛溪).

咸吉·黃海 兩道 兵馬節度使 退隱 楊公 神道碑銘

檀紀 4333年 庚辰 暮秋

成均館長 月城 崔昌圭 謹撰

悠悠히 흘러흘러 豐饒로 통하는 한내천을 한 가슴에 품어 안고 半月山 王方山을 내다보며 烽燧名山이 번어 내린 瑞氣之陵 寅坐原이 兵馬節度使 諱 治의 佳城이다.

공의 誕生이 1400年 9月이시니 어연 六百星霜 헤아리니 無限有數의 光陰 속에 오늘도 그 風泉之思追慕는 日新으로 悠長하여라.

天光之勢는 依舊하되 人間事 無常이라 했던가 1455年 端宗의 禪位에 얹힌 슬픈 歷史는 公의 從姪女인 惠嬪의 受難에 머물지 않고 全淸州楊門에 휘몰아쳐 氏族一家는 散散이 八道에 離散하고야 말았다. 격동기 歷史의 굴절된 흐름 속에 楊門一族은 저마다 시련과 고난을 겪으며 나름대로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갈고 닦아 여러 모양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다. 謹按하건데 淸州 楊氏는 憂國衷懇에 의한 四大歲貢 削減이라는 絶大功勳을 세운 始祖 忠憲公을 비롯하여 二世 西平君·三世 景安公 등三世에 걸쳐 淸白吏를 輩出하니, 이 나라에 淸白吏라는 낱말을 존재시킨 滿天下 咸頌의 名門世家이다.

淸州楊門의 溯源은 紀元前 2704年 出生이신 中國黃帝로 전하며 그 四十一世孫인 周의 伯僑가 楊氏의 太始祖이고 六十世孫인 後漢의 太尉이며 四知公으로 유명한 伯起 震의 四十三世孫인 起가 高麗 忠定王 三年에 恭愍王과 魯國大長公主가 元에서 귀국할 때 魯嬪都令 金紫光祿大夫 體察使 魯國三命使臣으로 高麗에 나오시어 淸州楊氏의 始祖가 되었다.

公은 高麗末 重臣으로서 과중한 歲貢의 폐단을 痛感하고 明에 들어가 明太祖에게 高麗財政의 어려움을 懇曲히 알리어 童女 五千人·駿馬 三萬匹·緋緞 三萬疋·苧布 六萬疋의 歲貢削減을 確約받고 돌아오니 朝廷에서는 三重大匡輔國 崇祿大夫 上黨伯을 封하고 本貫을 淸州로 下賜하여 淸州·海州·松禾를 食邑으로 내림에 한사코 사양하시니 淸白吏와 壁上三韓昌國功臣을 封하였다. 天壽를 누리시고 1394年 享年 九十二歲로 逝去하시니 諡號는 忠憲이다.

西平君 之壽는 忠憲公의 四男으로서 公의 祖父이시니 匡靖大夫都僉議贊成事이며 淸白吏에 封任되었다.

景安公 天震은 西平君의 四男으로 輔國大夫行戶曹典書인데 奏請使로 明에 들어가 數年間 머물면서 高麗의 사정을 上奏하시어 六府版籍에 들어있는 高麗에 대한 歲貢條項을 완전히 削除하고 돌아오니 나라에서는 淸白吏와 安岳君을 封하였다. 膝下에 七男三女를 두셨는데, 兵使公 治는 五男이시고 長女는 名宰相 領議政 黃喜에게 出嫁하였다.

兵使公은 膝下에 五男一女를 두셨으니 長男 順達은 弘文館校理 行德川郡守이고 次男 孝達은 生員이며 三男 悌達은 通訓大夫 行掌隸院司正이고 四男 允達은 僉正이며 五男 信達은 通德郎이고 長女는 許謹에게 出嫁하였다.

또한 朝鮮前期 四大名筆이며 詩文의 大家로서 中國의 眉山三蘇에 견주는 蓬萊 士彦은 通政大夫行安邊大都護府使로서 公의 曾孫이다.

公은 처음 勇猛과 智略으로 발탁되어 金宗瑞를 도와 六鎭開拓初에 큰 功을 세워 世宗 十九年 靈光郡守를 거쳐 咸吉·黃海 兩道 兵馬節度使에 오르시니 六鎭을 비롯한 北方防衛에 專念하시어 오늘의 中國과의 國境을 劃定하는데 공헌하신 바 크다.

그러던 중 1453年 癸酉靖難의 禍오리가 몰아치자 官職을 버리고 抱川 山中으로 隱居하여 세상과 緣을 끊으시니 이른바 杜門洞에 드심이었다. 이래로 集成村을 이루니 楊村이 아닌가 杜門洞에 드시어 살필재를 담은 문 삼아 隱士의 삶을 사시면서 詩作에 專念하여 四十餘年을 밖에 나가지 않으셨으니 號를 退隱이라 하신 데에는 물러나 隱遁하는 사람이란 뜻이 담겨 있으며, 이 길은 아무나 가는 길이 결코 아니니 忠節과 義理를 重히 여기고 行動으로 實踐하는 賢人의 모습이었었다.

從姪女인 惠嬪이 玉璽事件으로 아들 漢南君과 함께 禍를 당하여 돌보는 이 없으며 公이 밤중에 屍身을 수습하여 不封不誌로 暗葬하시니 杜門洞 드는 入口에 陵內라는 地名이 전해지는 것도 이 史實과 無關하지 않은 것이다.

血肉을 사랑하는 曲盡함이 하늘에 닿아 죽음을 鴻毛처럼 여기는 의연한 모습이었었다.

이후로 不義에 대한 분노와 端宗에 대한 欽慕 忠情을 가눌길 없어 每月 초하루 새벽이면 寧越淸冷浦를 향하여 冠服을 입고 哭拜하였다 하니, 비록 癸酉三公 丙子六臣과 生死를 같이 하지 않았으나 하여도 忠節의 간절함은 한치의 다름이 없으니 忠節의 고장 抱川이 忠義의 賢人, 愛民의 巨人을 輩出하였도다. 抱川儒林에서도 公의 忠節을 기리어 死六臣 俞應孚를 모신 忠穆壇에 漢南君과 함께 三位를 享祀한다.

1485年 4月 享年 八十六歲로 逝去하시어 生前에 솔바람 흐르는 물소리 벗을 삼고 子規의 絶叫을 共鳴하시던 杜門洞 드는 길목을 내려 보고 楊村을 들고 나는 萬人을 살필 수 있는 燧燧山 언덕에 禮葬하니 萬年 幽宅에 드셨도다.

이제 삼가 여기 公의 忠烈과 節義 그리고 愛民精神을 讚揚하고 後孫들의 精誠어린 崇慕의 뜻을 담아 이 碑를 세우고자 抱川의 斯文 崔宗圭 典校와 裔孫 載昌 儒道會長 潤宅 宗會 總務等이 懇誠과 資料를 齎來하고 請文하거늘 그 뜻을 길이 萬人이 우러러 稱頌하며 千萬 億年不泐하리라. 不佞이 마침 猥添首善之地하여 그 景仰의 微忱을 여기 銘하노니 曰勇智兼備에 外攘北方이요 兩道兵馬에 內修六鎭이라 三公六臣에 生死는 雖殊나 衛道衛國에 吾道는 一貫이라 賢祖에 淸白이요 肖裔에 文名이니 移孝思忠에 三統이 有斐어라.

대봉공(大峰公)

대봉공 행적

公의 휘(諱)는 희지(熙止)이며 字는 가행(可行)이다. 忠憲公의 九世孫으로서 당악군(唐岳君)의 八世孫이며 판서공 諱는 미(漢)의 손자이다. 世祖 7年 壬午年(1462)에 生進科에 합격하여 成均館에 있을 때에 圓覺寺 창건(創建)의 잘못을 상소(上疏)하였으며, 그 후에 무녀(巫女)들이 내지(內旨: 妃의 指示)라고 일컬으면서 문묘(文廟)에서 기도와 축제 올리는 것을 보고 분연이 일어나 쫓아냈었다.

成宗 甲午年(1474)에 文科及第를 발표하는 날 임금께서 버들은 드문 가지가 귀하다 하시면서 이름을 희지(稀枝)로 字는 정문(楨文)으로 내리시고 어필(御筆)로 詩 첫 首를 지어쓰고 재신(宰臣)들에게 한 구(句)씩 이어서 기쁨을 기록하라 하시었다. 病申年(1476) 별시(別試)에서 호당(湖堂)에 뽑혔다. 戊午年(1498)에 한훤당(寒暄堂), 일두(一蠹) 등 모든 先生이 西北道에 귀향갔을 때 서신으로 격려하면서 上疏하여 감형을 청하였다. 정암선생(靜菴先生)이 求道할 뜻이 있어 여러차례 배움을 청하였는데 書信을 먼저 내어 한훤당에게 소개하고 희천적소(熙川謫所)에 가도록 권하여 보냈다. 中宗 丁卯年(1507) 나라에서 예조정랑(禮曹正郎) 이현보(李賢輔)를 보내 제사지냈다. 正祖 丙午年(1786)에 士林들이 大邱 梧川에 祠宇를 세우고 祭享의 禮를 행하였다. 文章과 德業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울리게 했고 벼슬은 대사헌(大司憲)에 이르렀으며 八道를 순찰(巡察)하였는데 가장 清白하다고 이름났었다. 國史에 실린데가 많으며 文集 上下卷이 後世에 傳해지고 있다.

사제문(賜祭文)

中宗 3年 丁卯年(1507) 11月 庚子朔 16日 乙卯에 國王은 臣 禮曹正郎 이현보(李賢輔)를 보내 작고한 大司憲 양희지(楊熙止) 영전(靈前)에 祭祀토록 하고 논지(論旨)를 내린다. 지난 날 成宗朝에 뛰어난 人物들이 여럿 있었으나 걸출하고 탁월하기는 오직 경(卿)이었으며, 우뚝 솟아 버금가는 자 드물었다. 成均館에 들면서부터 義롭다는 名聲이 자자했다. 文科에 오를 때 世上에 다시 없는 영광(榮光)을 누리 임금께서 詩로써 이름을 지어주시고 연화대(蓮花臺: 나라 잔치 때 추는 춤)로써 원(院)에 보내 주었다. 예문관(藝文館)에서 清白으로 이름났고, 장의사(藏義寺)에 들게 하여 讀書를 할 여가(餘暇)를 주었다.

높은 벼슬과 요로(要路)를 거치면서도 의젓하고 구차함이 없었다. 흥금을 털어 놓고 임금에게 바른 말을 여쭙었으며, 이단(異端)과 사(邪)된 것을 물리쳤다. 政事에 들면 사실을 고

하고 밖에 나가면 선화(善化)에 힘썼다. 經綸을 비롯한 모든 政事와 文學을 두루 갖추었으며, 산과 바다의 정기(精氣)를 타고나 文武의 才質을 겸비하였으며, 聖代의 지혜로운 신하였다.

운수를 잘 타개하였으며, 그 의지가 우뚝 서 있어 戊午年(1498)에서 庚申年(1500)에 이르는 사이 사화(士禍) 때 어진 선비들을 두둔했다. 한 몸을 아끼지 않고 그 충정(衷情)이 열렬하여 直言으로 인하여 잠시 귀양갔었으나 어찌 서럽다하리. 임금의 마음을 도리켰으니 더욱 아름다움이여라.

내가 사초(史草)를 열람하다가 경(卿)이 남긴 글을 대하게 되어 세번 거듭 읽어보고 길게 탄식하니 구천(九泉)이 망망하구나. 옛날 사저(私邸)에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흠모하던 상란서봉(祥鸞瑞鳳)과 미옥정금(美玉精金)의 자질이 생각난다. 거동(舉動)이 온화하되 바라보면 높은 소나무 같았었다. 이 어려운 때를 당하여 같이 조정(朝廷)에 있지 못함이 한스럽구나. 생각하면 자못 슬픔이 다함이 없기에 대신 잔을 드리게 하니 영혼(靈魂)이 있거든 두루 흠향하라.

대봉공 오천서원 봉안문(大峰公梧川書院奉安文)

삼가 생각하니 先生은 천품(天稟)이 크게 달랐다. 영걸(英傑)의 자질에다 經綸과 기량(器量)을 지녔었다. 큰 뜻과 통찰력이 있어 經典과 外書에도 숙달했다. 급한 일에도 人品을 흐트리지 않았으며, 일을 당하여 머뭇거림이 없고 交遊한 사람들이 다 훌륭한 분들인데 寒暄堂 · 일두(一蠹) 등과 더불어 학문을 닦고 수양에 힘썼다. 藝文에 구애되는 것이 없었고 통달하면서도 고루하지 않았다.

成均館에서 義에 힘을 기울여서 그 名聲이 높았었다. 國運이 창성할 때를 만났으니 이 또한 다행한 기회라 할 것이다. 임금이 이름을 내리신 것만도 영광인데 登科하는 초장에 있어서라. 淸白吏 집안에다 높은 급수였었으니 승진이 빨랐다. 아침하는 자를 물리치는 데 秋霜 같았으며, 이단(異端)을 배척하는 데 굳세었다.

學問이 박식(博識)하고 道理에 맞는 말을 잘하는 교리(校理)였다. 세상에 드문 人才였기 때문에 예종(睿宗)께서 친히 표창하였다. 內 · 外職을 지내는 동안 한결같이 바르고 성심(誠心)이 있었다. 간교한 것들을 미리 판별했으며, 옳은 말을 헌책(獻策)할 때는 先見之明이 있었다.

친상(親喪)을 당해서 三年을 소식(素食)했으며 國政이 혼란할 때는 더욱 절조(節操)를 지켰다. 六條項의 上疏를 올렸는데 나라 근심하는 마음이 간절했었다. 나라가 격동할 때 자취를 감추어 낚시질하고 밭을 갈았다. 벼슬을 주는 교지(敎旨)가 연거푸 왔으나 가만히 돌아가는 것을 관찰했다. 슬프다. 戊午(1498年)에 일망타진(一網打盡)으로 인하여 많은 人材가 아픈 화를 입었으나 朝廷에 가득찬 신하들이 목이 오그라들어 입을 다물게 되었다. 禍中에

도 어진이를 보호했으며, 홀로 특별히 復官되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氣象이 浩然했다. 저들 참소하는 자들도 해치지 않았다. 始終이 한결같아 身名을 온전히 할 수 있었다. 모험하는 것을 보고 일두(一蠹)가 탄복하였으며 어린 임금(成宗)을 보호한 것을 남계(藍溪)가 칭찬했다. 君子로 定評이 있었으며 百世의 公論이었다.

높은 산처럼 우뚝 솟아 우러러 볼 것이며 오래 독실할 것이다. 이곳 達城을 둘러보고 香氣로운 데를 고을로 택했다. 書院을 세우고 융숭하게 봉안하니 멀리서까지 聲援을 같이했다. 오천(梧川) 위쪽의 고요한 祠堂에 吉日을 택해서 위패(位牌)를 모셨더니 士林들이 많이 모였다. 지금부터 제사 모시니 永世토록 폐하지 않으리라.

대봉공 상향 축문(大峰公常享祝文)

황하(黃河)와 오악(五嶽)같은 氣質로 태어난 一世의 偉人이어라. 높은 절개(節介)와 名分을 지키셨기에 官民이 祭享을 받는다.

順菴 安鼎福
(순암 안정복)

◆ 용어 해설(用語 解説)

- 교리(敎理) : 朝鮮代의 관직. 弘文館의 正五品 벼슬. 校書館・承文院의 從五品 벼슬
- 대사헌(大司憲) : 朝鮮代의 관직. 司憲府의 장관으로 正二品으로 임명하였다.
- 호당(湖堂) : 젊고 재주있는 文臣으로서 임금의 特命을 받은 사람들이 공부하던 곳
- 장의사(藏義寺) : 서대문 신영동에 있던 절. 1462년(世祖 8)에는 少年文官에게 풍부한 衣食을 지급, 이 절에서 독서하게 하였다.
- 헌책(獻策) : 일에 대한 방책을 드림.

어촌 양군 묘비명(漁村楊君墓碑銘)

君의諱는 환(暉)이며 字는 이정(以貞)이다. 姓은 楊氏로서 그 先祖는 밀성인(密城人)으로 고려시중(高麗侍中) 起의 후손이다. 高祖父는 洙이며 曾祖父는 建성(建成)이신데 두 분이 다 成均館 上舍였으며, 祖父는 孝立이요 아버지는 허국(許國)인데 다 훌륭한 분들이었다. 어머니는 江陽 李氏 헌능참봉(獻陵參奉) 광록(光祿)의 딸이며, 弘文館 校理 적(迪)의 曾孫이다. 君은 쾌활(快闊)하고 高節을 사모했으며 學問과 行實이 조속하여 어릴 때부터 이미 成人과 같았으며, 글 읽기를 좋아하여 學問에 힘을 기울여 21세에 成均館 進士가 되었다.

그 때가 光海君 末期여서 대비(大妃)를 西官에 가두게 되었는데, 그를 主動한 무리들이 館生들로 하여금 날마다 상소(上疏)를 올려 폐비(廢妃)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大論을 내세우게 되자, 君은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大科에 응시(應試)하지 않고 고향에 돌아왔다. 이때 대북(大北)의 무리들은 말하기를 그것을 큰 禮法인양 큰 소리치면서 利를 챙기는 계제로 삼아, 벼슬을 얻은 자는 모두 옳다고 했다. 그러나 君은 웃으며 말하기를 그럴 바에야 차라리 廣大의 웃을 입고 廣大의 말을 중얼거리면서 衣食을 취하는 것이 보다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했다.

癸亥年(1623)에 光海君을 폐하게 되자 그 先親의 명령으로 太學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太學의 諸生들이 그를 사모하여 더불어 사귀는 자가 많았다. 바야흐로 國家가 中興하여 재조(才操)있고 배움이 많은 선비를 골라 쓰게 되어, 이조(吏曹)에게 수차 추천한 바 있었으나, 한 번도 부름을 받지 못했으니 運命의 소치인 듯하다.

君은 平生을 곧고 옳은 것에 勇氣있게 나아가기를 좋아하고 義氣를 죽여가면서 사람과 더불어 구차하게 영합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그러므로써 좋아하지 않는 자가 많았으며, 또한 그러기에 무겁게 보기도 했다. 君은 母親喪을 당하여 죽만 먹고 시묘(侍墓)를 살면서 經帶(經帶)를 벗지 않고 3年을 곡(哭)하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었다. 상복(喪服)은 아버지가 계실 때는 기년(期年)인데 君子가 禮를 행할 때 그 禮를 극진히 하지 못할까 오히려 두려워하는데, 그것을 法度대로 하지 않았으니 非禮가 되므로 君子로서 孝道의 지나침이라 하겠다.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나 南漢山城이 포위되어 위급(危急)하게 되자 君은 義兵을 이르게 달려갔으나 임금이 城에서 내려와 항복(降服)했음을 듣고 草野에 돌아와 종신토록 나가지 않았다.

君은 54세로 세상을 떠났다. 病이 위독할 즈음 婦女子를 물리치고 앞에 못있게 하였다. 아들 道南이 종신토록 행할 道理를 물었으나 君은 이미 말을 못하고 16字를 써주었다. 그러나 글씨가 잘 되지 않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오직 守死善道 네 글자 뿐이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었다. 그 날이 庚寅年(1650) 11月 18日이었다. 다음 해 正月에 영산현(靈山縣) 서리곡원

(西狸谷原)에 장사지냈다. 配 善山金氏는 사직감 부정(司直監 副正) 재용(在鎔)의 딸로서
一男一女를 두었다. 아들 道南과 사위 박 정(朴 晷)이 있는데 다 선비였다. 손자가 넷인데
명부(明溥)·명점(明漸)·명준(明濬)·명유(明游)이며, 外孫이 셋으로 명한(明翰)·明會·
明德이다.

명(銘)에 孔子님께서 “좀 희라, 흙탕물에 담가도 검지 아니하고 좀 단단한가, 갈아도 닳지
않는구나” 하시었다. 검지도 않고 닳지도 않음이어! 이로써 後人들에게 남기노라.

通訓大夫前行三陟都護府使 許 穆 撰 仍篆
(통훈대부전행삼척도호부사 허 목 찬 잉전)

◆ 용어 해설(用語 解説)

- 상사(上舍) : 생원(生員), 진사(進士)
- 진사(進士) : 小科의 초장(初場)에 급제한 사람의 일컬음. 上舍
- 대북(大北) : 북인(北人)의 한 분파. 임진왜란 직후인 宣祖 32년에 같은 북인인 홍여순(洪
汝諄)과 남이공(南以恭) 등 사이에 반목이 생겨 갈린 후 홍여순의 파를 일컬음.
- 질대(經帶) : 상주가 띠는 삼베로 만든 머리띠.
- 기년(期年) : 둑이 돌아온 한 해. 기한이 된 해
- 사직(司直) : 朝鮮代 五衛의 正五品 軍職의 하나. 司直監은 그 上位職
- 부정(副正) : 朝鮮代 宗親府·敦寧府·奉常寺·사복시(司僕寺)·軍器寺와 그 외 여러 관아
에 從三品の 벼슬

어촌 양선생 광산서원 봉안문(漁村楊先生光山書院奉安文)

엎드려 생각컨대 추노(鄒魯)의 성현(聖賢)을 뒤따른 선비이시며, 士林의 스승이었다. 젊
은 나이에 太學에 드시어 修學할 때 앞길이 열려 있었으나 오직 時局이 혼란(昏亂)하고 윤
강(倫綱)이 폐색되어 연이어 올리는 상소(上疏)는 아침을 일삼고 있어 世上 正論이 다투어
묻혀졌다. 옷깃을 뿌리치고 남쪽으로 돌아와 몸을 깨끗이 하고 清白을 지켰다. 옳은 것을
밝히는 빛이 소생되고 밝은 議論이 다시 살아났다. 이름난 착한 사람을 불러 천거하고 삭관
(削官)하기를 계속하였다. 어찌 길게 가리요마는 그러한 聖代에 녹(祿)을 얻지 못했다. 멀리
서 오랑캐가 남침(南侵)하게 되어 임금의 걱정이 대단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전진(戰陣)에 달려가서 義兵의 행렬이 빛났다. 항복을 맹세하게 되어 통
곡하였다. 총칼마저 써보지 못했다. 名利와 자취를 끊은 채 바른 뜻을 품고 고향에 돌아와
江 위에 집을 짓고 밝은 나날을 보냈다. 꽃과 대나무를 이웃했으며, 고기와 새를 벗삼아 즐
기었다. 진실한 뜻을 세우고 學力을 진실하게 쌓았으며, 사사로운 정을 억누르고 살폈으며

經書에 있는 바를 체험했다. 함부로 말하는 것을 깊이 경계했으며, 수치스러운 일을 상가에 걸식하는 것처럼 간절히 싫어했다. 풍채(風采)가 어두어지지 않고 百世에 빛나야 하거늘 무엇으로 증명할까? 미수(眉叟)의 비명(碑銘)이기에 선비들 마음 졸리고, 떳떳한 德을 닦아 추앙했으며 숭배하고 보답하려는 정성이 온 세상에 감돌았다. 光山 一區는 고향 옛터인데 堂室이 정연하고 묘우(廟宇)가 높고 높아 山高水長한 풍모를 우러러 본지가 어제 같구나. 이에 좋은 날을 가려 절차와 의식을 갖추었으며 선비들의 의관(衣冠)이 정제되었고 제기(祭器)들이 번듯하다. 千萬年에 걸쳐 신령스런 제사가 다함이 없으리라.

後學 李東沆 謹撰
(후학 이동항 근찬)

어촌 양선생 상향 축문(漁村楊先生常享祝文)

學問과 실천(實踐)이 뛰어났으며 절조(節操)가 높아 풍속(風俗)을 깨우쳤다. 祭祀드려 보답(報答)하되 폐하지 않겠사오며 유덕(遺德)을 우러러 기리겠나이다.

後學 李東沆 謹撰

◆ 용어 해설(用語 解說)

- 추로(鄒魯) : 孔子는 魯나라의 사람이고, 孟子는 추(鄒)나라 사람이라는 뜻
孔孟을 가리켜 일컫는 말
- 태학(太學) : 朝鮮大 成均館의 별칭
- 풍채(風采) : 빛나서 드러나는 사람의 걸 모양
- 미수(眉叟) : 李仁老의 字

도곡공(道谷公)

도곡공 사실(道谷公事實)

공의諱는 응춘(應春)이요 字는 인경(仁卿)이며, 景安公의 넷째 아들 주서(注書)億의 9世孫으로서 주부(主簿)號 東園 忠伯의 아들로 甲辰年(1544) 10月 10일에 태어나셨다. 辛卯(1591)년에 회덕현감(懷德縣監)으로 있을 때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나 임금이 西쪽으로 파천(播遷)을 떠날 때, 公은 시묘중(侍墓中)이었는데 분개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나라님의 은혜를 갚지 못하고 國事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義를 다하지 못하고 孝도 온전하게 하지 못한 것이라 하고, 색실로 姓名 석자를 소매 속에 수놓아 시신(屍身)이 되었을 때의 표지를 만든 다음 검은 상복(喪服)을 입고 조중봉(趙重峰)의 義兵에 가담하여 淸州에서 왜병(倭兵)을 대파시키고, 錦山에 이르러 종일 힘을 다하여 세 번 싸웠으나 패(敗)하여 화살이 다 되고 兵士도 다 죽어 맨주먹으로 칼날을 무릅쓰고 싸우다가 趙重峰과 더불어 순절(殉節)하였다.

이조참의(吏曹參議)에 추증(追贈)되고 정려(旌閭)를 세우고, 은진 노포 쌍절사(恩津 魯浦 雙節祠)와 갈산서원(葛山書院)에 配享되었다. 號는 道谷이며 文集 1권이 있다.

도곡공 묘비문(道谷公墓碑文)

선묘조(宣廟朝)의 壬辰·癸巳年 난리에 있어서 錦山싸움이 가장 컸으며 절개를 지키고 大義에 순사(殉死)한 사람이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분이 道谷 楊先生이다.

先生의 諱는 응춘(應春)이며 字는 仁卿이요 本貫이 淸州로서 忠憲公 諱 起의 후손이다. 忠憲公은 원래 元나라 사람으로 우리나라에 나오셨으며 그 후손들은 벼슬이 혁혁했고 대대로 봉작을 받았다. 高祖父의 諱는 발(發)인데 都事였고 曾祖父는 諱가 자장(自章)인데 첨정(僉正)이었으며, 祖父는 諱가 은석(恩碩)인데 첨지(僉知)를 지냈으며 아버지의 諱는 忠伯인데 主簿였다. 어머니는 光山 金氏 참의(參議) 유보(兪甫)의 딸이다. 性品이 착하고 婦德이 있었으며 甲辰年(1544)에 先生을 낳으셨다.

先生은 天性이 비범하여 어려서부터 學問을 좋아하고 天文, 地理, 陰陽 및 복술(卜術) 등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것이 없었다.

조중봉(趙重峰)과 김사계(金沙溪) 같은 여러 어진 선비들과 일찍 친교가 깊었으며 다 같이 名望이 있었다. 47세 때 추천을 받아 회덕현감(懷德縣監)을 제수받았다가 壬辰年에 모친

상을 당하여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와서 장례를 치렀다. 그 해 4月 왜적이 갑자기 쳐들어와 八道가 호늘거리고 임금이 파천(播遷)을 했다.

先生께서는 북쪽을 바라보며 통곡한 후 아버지에게 배결(拜訣)을 고하고 상복(喪服)을 검은색으로 물들여 옷 소매에 흰 실로 이름을 새겨 입고 義兵을 모집하여 조중봉의 전진(戰陣)에 합세했다. 그리하여 淸州싸움에서 크게 이겼는데 軍容과 호령이 엄숙했다. 그 얼마 후 錦山에 왜적이 침입했다는 급보를 받고 병영(兵營)을 금계(錦溪)로 옮겨 싸웠으나 700名の 적은 兵力으로 100萬 강적을 대항하여 여러 차례 싸웠으나 패했다. 병력은 다 쓰러지고 칼과 화살이 바닥이 나서 적수공권으로 칼날을 무릅쓰고 싸우다가 重峰과 같이 義로운 깃발 밑에서 장렬하게 전사했다. 이것이 그 해 8月 18日이었다. 아- 장렬하구나! 忠義스럽고 곧은 節介는 저 太陽과 더불어 그 빛을 다룰 것이다. 그 후 先生의 유해를 거두어 恩津 구로현(九老峴) 先山 아래 癸坐로 모셨다. 配는 숙부인(淑夫人) 河東 鄭氏이며 그 아버지는 효간공(孝簡公) 호(虎)이다. 墓는 합장이다.

아들 천우(天佑)는 통덕랑(通德郎)이고, 손자는 聖民, 哲民, 濟民 등인데 濟民은 첨추(僉樞)이다. 曾孫 이하는 적지 않는다. 슬프다. 先生의 忠節은 더욱더 빛나 여러 차례 표창되어 정려(旌閭)를 세웠으며, 선비들이 院과 祠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으므로 千古에 유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묘 앞에 비석이 없었던 차 후손 두철(斗澈)이 이를 송구스럽게 여겨 일가들과 상의하여 비석을 세우기 위하여 나에게 비문을 청하였다. 내가 감히 감당하리요마는 돌이켜 생각하니 이 세상에 좋은 사업은 퇴락하고 불미한 일만 더해가므로 그 누가 先生의 死後 行蹟을 일으켜 세우랴. 뜻 있는 자 개탄하여 눈물을 흘릴 따름이다. 명(銘)에 덕은(德殷)의 동쪽 老山の 양지바른 곳, 고요한 三尺 묘소에 石物이 휘황하다. 충성스런 의로운 혼백이 百世에 걸쳐 당당하리라. 그 음덕 후손들에 미쳐 영원히 변창하리. 비명(碑銘)을 이렇게 짓노니 공을 소명하는 데 한없이 쓰이리라.

後學 光山 金永煥 근찬(謹撰)

도곡 양선생 춘추향사 축문(道谷楊先生春秋享祀祝文)

맨주먹으로 칼날을 무릅쓰고 싸웠으며 몸을 죽여 仁을 이루었어라. 百世에 높이 받들고자 제사를 드린다.

通訓大夫弘文館校理兼經筵侍讀官春秋館記事官
(통훈대부홍문관교리겸경연시독관춘추관기사관)

俞取基 謹製
(유취기 근제)

◆ 용어 해설(用語 解説)

- 주부(主簿) : 朝鮮代 敦寧府 · 奉常寺 · 宗簿寺 · 內醫院과 기타 여러 관아에 속한 從六品 벼슬
- 현감(縣監) : 朝鮮代 작은 縣의 尹. 從六品 벼슬
- 파천(播遷) : 임금이 都城을 떠나 탄 곳으로 피난함.
- 이조참의(吏曹參議) : 吏曹에 딸린 正三品의 堂上官. 吏曹參判의 다음 직위임.
- 정려(旌閭) : 忠臣 · 孝子 · 烈女 등을 그들이 살던 고을에 旌門을 세워 표창하는 일
- 도사(都事) : 朝鮮代 忠勳 · 義賓 · 忠翊(충익) · 開城 · 中樞 · 五衛都摠 등 各府의 從五品 벼슬
- 첨정(僉正) : 朝鮮代 敦寧府 · 奉常寺 · 宗簿寺 등 각 관아에 속했던 從四品 벼슬
- 첨지(僉知) : 朝鮮代 中樞府의 堂上 · 正三品 武官 벼슬
- 참의(參議) : 朝鮮代 六曹의 正三品 벼슬
- 통덕랑(通德郎) : 朝鮮代 正五品 文官의 品階. 通善郎의 위
- 배결(拜訣) : 訣別의 하직인사. 다시 만날지 못 만날지 모르는 작별인사

민정빈 양씨전(愍貞嬪 楊氏傳)

楊氏는 淸州 사람으로서 현감(縣監) 경(景)의 딸이다. 찬성사(贊成事) 지수(之壽)는 그 曾祖父이다. 世宗 때 後宮에 뽑혀 들어가 혜빈(惠嬪)을 封했다. 세 아들을 두었는데 한남군(漢南君) 어(瑎), 수춘군(壽春君) 현(玦), 영풍군(永豐君) 천(琮)이다. 辛酉年에 현덕왕후(顯德王后)가 端宗을 東宮에서 낳으시고 9日만에 돌아가시니 世宗께서 宮中에서 가장 어린 자로 빈(嬪)을 선택하여 원손(元孫)을 보양(保養)하도록 命하시었다. 楊氏는 힘을 다하여 고르게 보호하고 음식과 기거를 지성스럽게 섬기었다. 元孫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린 德性도 있었으나 楊氏가 바르게 기른 功이 많았다.

世宗·文宗이 연이어 승하하시고 宗室의 영걸(英傑)들이 포진(布陣)하고 있어 국세(國勢)가 위태로우므로 惠嬪이 수기응변(隨機應變)하여 玉體를 편안하게 호위하여 극진함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었다.

乙亥年(1455)에 世祖가 王位를 이어받고 국새(國璽)를 傳해 받고자할 때 惠嬪이 타일러 말하기를 옥새(玉璽)는 나라의 중보(重寶)인데, 先王께서 훈계(訓戒)가 있어 世子·世孫이 아니면 전하지 말라 하셨으므로, 내 비록 죽을지언정 玉璽는 내줄 수 없다고 했다. 그리하여 그날 화(禍)를 입었고 永豐君도 칼을 차고 입시(入侍)하다가 동시에 죽음을 당했으며, 漢南君은 함양(咸陽)으로 귀양갔었다가 丁丑年(1457)에 金성군(錦城君)과 같이 상왕복위(上王復位)를 모의하다가 일이 누설되어 화를 입게 되었다.

숙종(肅宗) 己亥年(1719)에 王命으로 惠嬪의 묘(墓)를 봉분하라 하였으나 묘를 찾지 못하였다. 正祖 辛亥年(1791)에 惠嬪의 시호(諡號)를 추증(追贈)하여 민정(愍貞)이라 하였다.

임금께서 유문(侑文)을 만들어 말씀하시기를 슬프다! 오직 楊氏는 옛적의 아보(阿保: 保母)와 같다. 칭송은 주빈(周嬪)처럼 드러나고 功은 한모(漢姆)보다 고매한데 丙子·丁丑年을 맞이하여 禍가 後宮에 미치었다. 두 아들과 같이 죽었으니 六臣들과 같이 돌아갔구나. 時代는 달라도 방모(滂母)와 같고 女子로서 굳세고 인자하였다. 두견새는 옛 누각에서 우는데 봄은 신단(新壇)에 다시 찾아 왔구나. 義는 千秋에 일어나기에 禮로써 제현(諸賢)과 강신의 잔을 드린다. 생각건대 六宮에서 제일 높으셨는데 어찌 제사를 똑같이 지낸단 말인가. 지난 일을 감히 말하자니 슬픈 감회가 지극히 깊고 깊구나. 禮를 거행(舉行)하여 이름을 바꾸어 愍貞이라 한다.

임금께서 제물을 드리며 이르기를 내가 진심으로 내려주는 것이며 法度에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에 술을 내려 현판을 만들게 하고 제사를 오래 이어가도록 한다. 일이 이 때를 기다린 것 같고, 이 보은(報恩)은 실로 先王 때부터 있었던 터이다. 官으로 하여금 제사를 지성스레 모시도록 하였으니 바라건대 이 제물을 흠향하소서. 또한 시호(諡號)를 漢南에게 내리고 정도(貞悼)라 했으며 永豐은 정민(貞愍)이라 하고 장능(莊陵) 忠臣壇에 配享케 하였다.

매산거사(梅山居士)가 말하기를 嬪이 世宗의 後宮의 반열에 있으면서 많은 희빈(嬉嬪)들

을 가르쳐 내재(內宰)의 직분을 다하고 阿保의 임무를 받아 元孫을 보양하는데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수고로움을 게을리 하지 않고 마침내 상전(桑田)이碧海(碧海)가 되고 세상이 변천할 즈음까지도 義를 붙잡아 몇몇한 것을 지켰으니 아- 장렬하구나. 婦人이란 性品이 유(柔)하여 禍와 福에 걸쳐앉아 子孫의 견제로 해서 스스로의 주장을 못하는 자가 많은데 嬪만은 빛나는 묘당(廟堂)에서 얼마든지 편안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데도 다만 端宗 있음만 알고 자기 자식도 돌보지 않고 진력하다가 母子가 같은 날 함께 죽고도 뉘우침이 없었으니 이른바 天地가 변화해도 나는 그 바른 것을 얻으려한 자이다. 의로운 충성이 지극하여 日月과 더불어 빛을 다투게 되니 이는 저승에 돌아가 世宗을 배알할 적에도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世宗의 內治가 성대(盛大)하여 슬기롭고 밝았음을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正祖 때에 와서 忠節을 높이 들어내고 어진 것을 이룰 수 있게 하고, 잠기고 숨은 것은 밝혀내고 諡號를 내리고 유문(侑文)을 극진하게 내리시고, 뿐만 아니라 嬪의 두 아들을 장릉(莊陵)에 배식(配食)토록 하였으니 구부렀다가 펴고, 나타났다가 어두어지는 것이 스스로 그 때가 있고, 天道가 갇고 베푸는 것을 시험한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嬪의 창자에 가득찬 열혈(熱血)이 天地가 다하도록 썩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또한 어찌 극진히 했다고 하겠는가?

梅山居士 唐城 洪直弼 記
(매산거사 당성 홍직필 기)

민정빈 양씨 사실(愍貞嬪 楊氏 事實)

世宗의 惠嬪 楊氏는 上黨伯의 曾孫 縣監 景의 딸이다. 端宗의 王位를 물려 줄 때에 그 두 아들 漢南君 어(瑢)와 永豐君 천(琬)과 같이 六臣의 禍를 입어 순사(殉死)했다. 正祖朝 辛亥年(1791)에 특별히 신원(伸冤)을 베풀어 諡號를 愍貞이라 하사하고 神主를 세우고 이의 형(李儀亨)을 시켜서 그 祭祀를 받들게 하고 임금께서 친히 祭文을 지어 가까운 臣子를 보내 제사를 지내게 했다.

◆ 용어 해설(用語 解說)

- 찬성사(贊成事) : 高麗 때 참의부(僉議府) · 도참의 사사(都僉議使司) · 도참의부(都僉議府) · 문화부(門下府) 등의 正二品 벼슬. 侍中 또는 政丞의 다음임.
- 빈(嬪) : 朝鮮代 正一品의 내명부(內命婦)의 품계(品階)
- 수기응변(隨機應變) : 그때 그때의 기회를 따라 일을 적당히 처리함.
- 유문(侑文) : 보살펴 주는 내용을 담은 글

- 아보(阿保) : 보살펴 키움.
- 벽해(碧海) : 깊고 푸른 바다
- 신원(伸冤) : 원통한 일을 풀어 버림.

蓬萊 士彦先祖 行蹟

抱川文化院 副院長 十三代孫 潤宅 謹識

蓬萊 楊先生은 中宗 12年(1517) 抱川郡 新北面 機池里에서 出生하시니 敦寧主簿를 지내신 希洙님의 아들이시다. 中宗 35年(1540) 24세의 나이로 進士에 及第했는데, 이 때에 科試에 지은 丹砂賦는 너무도 有名하며 두 아우 士俊·士奇와 함께 文名을 떨치어 中國의 眉山三蘇에 견주었다. 또한 天衣無縫의 詩作과 草書·楷書에도 能하시어 鮮初 四大名筆로도 有名하시니 金剛山 萬瀑洞에 큰 글자로 새겨 놓으신 “蓬萊楓嶽 元化洞天” 여덟 자는 世人이 評하기를 崔孤雲의 “雙溪石門”이 이에 못 미친다고 하였다. 可히 仙風道骨의 風貌가 아니신가?

明宗元年(1546) 文科에 及第하여 大同丞에 발탁되고 이어 三登·咸興·平昌·江陵 府使를 지내시고 內職으로 著閤·成均館 司成·宗簿寺正을 歷任하시고 다시 淮陽·鐵原 郡守를 歷任하셨으니 자연 경치를 사랑하는 病이 깊어 山水 좋은 시골만을 골라 外職을 自請한 것이다.

明宗 19年(1564) 關東에 移住하여 九仙峯 아래 鑑湖閣에 居處를 마련 堂號를 鑑湖라 하고 飛來亭을 짓고 風流를 벗삼아 소요하였다.

크게 飛字를 써서 障子를 만들었는데 하루는 괴상한 바람이 불어 바닷속으로 휩싸고 들어갔다. 그런데 그 날이 바로 先生의 觀化日이었기에 太學士 柳西垞이 그 일을 記로 쓰기까지 하였다.

宣祖 10年(1577) 安邊大都護府使가 되었을 때의 일이다. 이 고을은 邊方이라 風俗이 사납고 잔인하기까지 한 것을 孝悌로 다스리고 教化에 힘쓰자 感化했던 이곳 사람들은 先生의 死後에 父母의 恩惠보다 무거운데 喪服을 입지 못했다고 한탄하며 恩德을 稱頌하여 去思碑를 세웠으니, 이러한 현상은 前任地 모두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렇듯이 模範의인 善政은 말할 것도 없고 앞날의 일을 豫測하여 有事時 많은 軍馬가 먹을 수 있는 우물과 乾草를 準備하여 實際狀況에 有用하게 活用하는 등 道內에서 으뜸이 되어 觀察使가 朝廷에 上奏하여 堂上官 品階인 通政에 오른 例는 너무나도 燦然한 歷史的인 事實이다.

불행히도 安邊大都護府使 在任時 智陵의 火災에 責任을 지고 유배되어 2년 뒤 유배는 풀렸으나 現地에서 病死하시니 宣祖 17年(1584)의 일로 享年 68세로 생을 마쳤다. 先生은 非常한 天才인데다가 부단한 努力으로 읽지 않은 冊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었다.

及第後 40여년간 다스린 고을이 8개에 이르렀어도 단 한 톨의 부정이 없어 들어감에 한 톨도 넉넉함이 없었고 나감에 말 한 필도 변변하지 못하여 妻子를 위해서는 추호도 계획을 하지 않았고 항상 말씀하시기를 “나는 四知公의 후손으로 가히 先祖께 욕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 했다 하니 참으로 清白吏의 본이 되는 面貌가 아닌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 가르치시는 바가 실로 크다 하겠다.

길명사(吉明祠)

일동면 길명리 소재 : 향토 유적 제32호

조선 전기의 문신이신 양사언(楊士彦 : 1517~1586)의 위패와 영정을 모신 사당이다. 정면 3칸·측면 2칸으로서 맞배 지붕에 방풍판을 달았고, 삼문은 정면 3칸·측면 2칸의 솟을 대문에, 담장은 자연석 막돌 담장이다. 선생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1991년에 건립하여 매년 9월 16일(음력)에 제향을 지내고 있다. 선생은 신북면 기지리에서 출생하였고, 자는 응빙(應聘) 호는 봉래(蓬萊)·완구(完邱)·창해(滄海)·해객(海客)으로 희수(希洙)의 아들이다. 명종 1년(1546)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고 삼등·함흥·평창·강릉 부사 등을 지냈다. 회양 군수로 있으면서 금강산에 자주 찾아 만폭동의 바위에 새긴 “蓬萊楓嶽 元化洞天”이란 글씨를 남기기도 하였다. 이 후 안변 부사로 있으면서 지릉(智陵) 화재사건의 책임을 지고 유배되었다가 2년 후 돌아오는 길에 병으로 돌아가셨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뵈이로다”라는 시조는 너무나 유명하고 선생의 시는 천의 무봉하고 기발하다는 평을 들었으며, 시집인 「봉래시집」을 남겼다. 특히 초서와 큰 글자를 잘 써서 조선 전기 4대 서예가 중 한 분으로 꼽힌다. 묘는 길명리 마을 뒷편 금주산 기슭에 있다.

연도별 장학금 수혜자 명단

연도	장학생	학교명	주 소	연도	장학생	학교명	주 소
89년 (10명)	양창훈	청주공고	충북 괴산군 증평읍 증평리	92년	양진호	영남대	대구 북구 봉덕동 693-22
	연옥	경명여고	대구 동구 신암4동 106-39		영태	국제대	서울 도봉구 미아동 291-230
	시윤	포항공고	경북 경주시 안강읍 육통1리		인섭	외국어대	서울 강동구 천호1동 16-11
	혜경	영등포여상	서울 구로구 고척2동 239-14		경철	순천전문대	전남 보성군 벌교읍 진광리
	진영	순천매산고	전남 보성군 벌교읍 마동리		연숙	계명대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0-167
	계병	영남대	대구 달서구 두류동 77-117	93년 (11명)	인석	경북대	경북 달성군 다사면 달천리
	건석	동국대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300-3		지정	서울대	경남 창령군 유어면 진창리
	효현	서울대	울산 중구 우정동 15-4		경철	순천전문대	전남 보성군 벌교읍 진광리
	윤경	추계예술대	부산 송내동 588-1		희자	대전여상	대전 서구 용문동 281-22
	은숙	영남대	대구 서구 비산동 1021-1		귀연	매곡여상	충북 음성군 음성읍 소여리
90년 (10명)	철표	강경상고	충남 논산시 상월면 주곡리		경석	청주공고	충북 청주시 사직동 656
	정엽	대구상고	대구 남구 이천2동 229-9		지원	경원고	대구 나무 대명동 뉴코스모스A 5-106
	진영	순천매산고	전남 보성군 벌교읍 마동리		철훈	부산가야고	부산진구 개금동 주공A 210-1502
	주혜	효성여대	대구 북구 산격동 시영A 7-403		봉철	순천효천고	전남 보성군 벌교읍 진광리
	은희	동아대	경남 창령군 유어면 광산리		재홍	벌교고	전남 보성군 벌교읍 마동리
	철조	대구계명대	대구 북구 군우동 634-2		영식	직업훈련원	경기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동원	충북대	충북 괴산군 증평읍 증평리		진태	대진대	경기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원우	대구계명대	경북 달성군 다사면 달천리		봉길	경북산업대	대구 북구 복현2동 241-2
	진운	강원대	포천군 군내면 하성북리 236		희조	주성전문대	충북 괴산군 증평읍 증평리
	종석	동의대	전남 보성군 벌교읍 치동리 596	94년 (14명)	광직	충남대	대전 서구 변동 45-7
91년 (10명)	진철	수원공고	화성군 마도면 백곡리 275		진석	경북대	경북 달성군 다사읍 달천리
	진영	순천매산고	전남 보성군 벌교읍 마동리		은주	조선대	광주 서구 능성2동 642-34
	상환	벌교고	전남 보성군 벌교읍 마동리		경철	서경대	전남 보성군 벌교읍 증광리
	정화	경북여상	대구 중구 동인동 2가 227-7		지원	서울공대	대구 남구 대명동 1101
	원직	논산고	충남 논산시 상월면 주곡리		현주	대진대	경기 포천시 화현면 지현리
	철표	강경상고	충남 논산시 상월면 주곡리		경석	청주공고	충북 청주시 사직동 656
	희석	충북대	충북 청주시 봉동면 464-4		세웅	경원고	대구 달서구 본리동 433
	정태	장안전문대	부천시 남구 소사동 177-16		현아	경일여고	대구 수성구 두산동 동아A 7-402
	동준	영남대	경남 창령군 유어면 광산리		진호	능인고	대구 수성구 범물동 화성타운106-1402
	종석	동의대	전남 보성군 벌교읍 칠동리	95년 (17명)	재만	계룡공고	충남 공주군 장기면 당암리
92년 (9명)	원섭	광성고	서대문구 남가좌동 216-137		옥수	경원대	의왕시 내손동 주공A 118-105
	재홍	벌교고	전남 보성군 벌교읍 마동리		문경	계명음대	대구 북구 산격동 예텐A 16-103
	구성	대구상고	대구 달서구 칠성동 500-7		진환	계명공대	대구 남구 대명동 240-8
	귀선	구남여상	대구 수성구 지산동 산 86		구정	고려대	대구 수성구 지산동 1281-13

연도	장학생	학교명	주 소	연도	장학생	학교명	주 소
95년	양혜수	원광대	전남 순천시 저전동 60-1	97년	양혜원	이화음대	서울 중랑구 묵동 238-80
	희성	군산공대	충남 논산시 상월면 주곡리		상봉	순천효천고	전남 보성군 조성면 매현리
	순덕	이화여대	서울 노원구 상계동 692		혜원	경일여고	대구 수성구 지산동 390
	광직	충남대	대전 서구 변동 45-7		양금	별교상고	전남 보성군 별교읍 마동리
	우철	별교고	전남 보성군 별교읍 정광리		진만	포천실고	경기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상철	별교고	전남 보성군 별교읍 정광리		수양	조종고	경기 가평군 상면 태봉2리 244
	정우	별교고	서울 은평구 신사동 228-22		은주	제일여상	대구 북구 국우동 639-3
	준호	명덕외국어고	서울 마포구 창천동 381-4		대협	포항고	포항시 북구 득량동 126-21
	정숙	경명여고	대구 북구 국우동 679		희찬	명덕외국어고	양천구 목6동 목동A 123-604
	대용	조일공고	대구 수성구 범물동 1306-1		진태	대진대	경기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3리
	수경	원주여고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983-3		정훈	순천향대	경기 용인시 김량장리 193
	희숙	포천실고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256-1		재환	포항공대	대구 수성구 상동 394-2
	경석	청주공고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656	98년 (13명)	혜진	광운대	경기 양주시 옥정동 774
96년 (15명)	현희	수원전문대	경기 안산시 본오동 818-1		상봉	울산공대	전남 보성군 조성면 매현리
	혜진	광운대	경기 양주시 옥정동 774		종훈	전남법대	광주 동구 산수동 63-8
	희성	군산대	충남 논산시 상월면 주곡리		희은	혜린전문대	충남 아산시 영인면 성내리 690
	수열	국민대	대구 수성구 지산1동 545		미정	포천실고	경기 포천시 군면 하성북3리
	시윤	성균관대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동리1475		진수	울산공고	울산 중구 학성동 401-16
	진만	포천실고	경기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승직	청석고	성남시 중원구 광금동 2503
	병연	영신고	대구 동구 상암 3동 신암A 12-14		찬경	순천여고	전남 보성군 별교읍 칠동리 825
	광혁	경북과학고	경북 경주시 사정동 372-2		화일	별교상고	전남 보성군 주성면 매현리 413
	순분	대구여상	대구 수성구 수성3가동 350-1		희선	온양여고	충남 아산시 영인면 성내리
	혜주	포항여고	경북 포항시 북구 수창동 618-9		정숙	대구대	대구 북구 관음동 1345-10
	연주	이천여고	경기 이천시 설성면 상봉4리		선희	우석대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2가 24-7
	수경	새일고	대구 서구 새문동 281-2		성구	연대신학과	포천시 포천읍 신읍리 167-4
	혜진	대구제일여상	대구 북구 우동 212	99년 (13명)	종철	안양과학대	성북구 안암동 삼선맨촌 A-203
97년 (15명)	희찬	명덕외국어고	양천구 목6동 신시가가지A 123-604		혜진	광운대	양주군 회천읍 옥정리 774
	화일	별교상고	전남 보성군 초성면 매현리413		진아	효성미대	대구 수성구 범물동 1306-1
	혜진	광운대	경기 양주군 회천면 옥정리		승직	서울대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청룡리546-3
	승엽	서울법대	대구 북구 산격동 1221-26		은영	한남대	대전 서구 괴정동 한신A 101-30
	승운	홍익미대	충남 논산시 상월면 주곡리		미숙	포천실고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356-1
	종훈	전남법대	광주 동구 산수동 63-8		경목	경북공고	경북 영천시 북안면 용계리 240
	성병	서울대	대구 달서구 진천동 월배A 201-1008		승원	대구공고	대구 수성구 범물동 1306-1
	용수	단국대	영등포구 영등포5가 동남A 901호		수정	동방여고	대전 서구 관서동 원앙마을 204-110

연도	장학생	학교명	주 소	연도	장학생	학교명	주 소
99년	양혜리	부천고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서광빌라 202		양상렬	서울대	대구 서구 원대동3가 53-2
00년 (15명)	경석	충주대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사직A10-411	02년	미숙	관동대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256
	선영	수원과학대	경기 용인시 이동면 덕성리		지효	선문대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청암주택C-202
	성호	경산대	대구 남구 대명7동 2258-45		철오	건국대	노원구 중계동 중계그린 A 105-1003
	직수	영남대	경북 경산시 조명동 578-2		봉옥	강북고	대구 북구 읍내동 목련A 4-311
	은영	한남대	대전 서구 괴정동 한심 101-301		난희	의정부여고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149
	유진	신명여고	대구 남구 대명2동 15-87		창주	영등포고	양천구 신월5동 77-5
	대규	대구경신고	대구 수성구 중동 598-1		진명	포천중고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157
	은경	별교상고	전남 보성군 별교읍 칠동리 822		지희	철원여고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838-88
	수미	조성고	전남 보성군 조성면 매현리 413		지훈	대원고	서울 광진구 중곡동 194-75
	창주	영등포고	서울 양천구 신월5동 3-15	03년 (10명)	승석	홍익대	서울 노원구 하계동 274
	영아	포천고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3리 163		희범	한남대	충남 논산시 상월면 주곡리
	가영	명성여고	서울 광진구 중곡3동 194-75		병옥	경북대	대구 서구 중리동 중리시영A 3-501
	난희	포천고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3리 149		세직	강원대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569-23
	수정	동방여고	대전 서구 관저동 원앙마을 304-1103		은정	경북대	대구 달서구 용산동 우방미전A 202-603
	수직	대전공고	대전 유성구 구암동 610-6		철승	남서울대	서울 성북구 장위동 238-381
	성희	중앙대	서대문구 남가좌동 216-137		웅식	홍익대	경기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617
	소라	충남대	대전 서구 가수원동 오토피아 303-1303		응기	연세대	울산 남구 무거1동 1249-4
	후미	영진전문대	대구 서구 내당3동 대형주택 102호		희광	경민고	경기 양주시 옥정2동
	재화	관동대	부산 사하구 괴정3동 446-9		은미	별교여고	전남 보성군 별교읍 칠동리 882
01년 (15명)	주호	우석대	서울 광진구 중곡동 30-55	04년 (12명)	가영	단국대	서울 광진구 중곡동 624-24
	난희	의정부여고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149		희선	청주대	충남 아산시 영인면 성내리 690
	지연	경북예술고	대구 중구 동인3가동삼익빌라 1-502		세직	강원도	경기 포천시 신읍동 27-3
	소민	이화여고	강서구 영창동 신동아A 3-303		영규	서울공대	의정부시 용현동 주공A 303-403
	희정	광동여고	경기 양주시 옥정동 404		진아	성신여대	서울 강남구 내발산동 674-27
	연화	수원여고	화성군 마도면 백곡리 688		인지	대진대	경기 양주시 옥정1동 774
	혜리	부천북고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새광빌라 2002		정두	경산자동차고	대구 수성구 지산동 1027-9
	영아	포천여고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163		설희	일동중고	경기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375
	은경	별교상고	전남 보성군 별교읍 칠동리 825		선희	포천중고	경기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663
	수환	별교고	전남 보성군 별교읍 마동리		은미	별교여고	전남 보성군 별교읍 칠동리 822
	수직	서대전공고	대전 대덕구 오정동 37		희광	경민고	경기 양주시 옥정2동 404-2
18년 (13명)	희정	영진전문대	대구 수성구 지산동 971-7	계	대 학 생	99명	합계 202명
	희진	이화여대	이천시 울면 신추3리 348		고 등 학 생	103명	
	경복	신흥대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174				

各 派宗會 任員

西 原 伯 派 任 員

직 책	성 명	주 소	전 화 번 호	비 고
고 문	양철우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67(교학사 사장)	02-717-3555	
	양철곤	경기 군포시 산본동 수리A 808-1101	031-347-6285	
	양희용	서울 광진구 중곡3동 30-42	02-452-1313(016-472-1314)	
회 장	양승직	충남 논산시 상월면 산성리 66-5	041-732-4008(011-425-4009)	
부회장	양철세	충남 논산시 상월면 지경리 16-1	041-732-4502(016-869-4502)	
	양대길	경기 광명시 철산2동 주공A 307-1305	011-225-3189	
	양철남	충남 논산시 상월면 지경리	041-732-4050(011-9741-4050)	
총 무	양희명	충남 공주시 계룡면 경천중학교	041-852-4013	
재 무	양화남	충남 논산시 상월면 주곡리	041-732-4537	
	양철운	충남 논산시 상월면 지경리	041-732-9613(011-401-9613)	
감 사	양철야	충남 논산시 상월면 주곡리	041-732-4264(011-409-4271)	
	양형식	충남 논산시 상월면 지경리	041-732-5167(016-466-5167)	
운영위원	양대규	충남 논산시 상월면 주곡리	041-732-4208	총 손
	양희명	상 동	041-733-1891	문 장
	양희갑	상 동	041-732-4351	
	양희직	상 동	041-732-4307	
	양동직	상 동	041-733-2291	
	양화남	상 동	041-732-4537	
	양철한	상 동	041-732-4305	
	양만직	충남 논산시 연산면 표정리	(016-464-5413)	
	양철운	충남 논산시 상월면 지경리	041-732-9613	
	양승직	상 동	041-732-9691	
	양철의	충남 논산시 두마면 유동리 대동A 106-1302	042-541-1232	
	양승직	충남 논산시 상월면 산성리	041-732-4008	
	양철세	충남 논산시 상월면 지경리 2구	041-732-4502	
	양대길	경기 광명시 철산2동 A 307-1305	02-687-3189 (011-225-3189)	
	양철남	충남 논산시 상월면 지경1구	041-732-4050	
	양희명	충남 공주시 계룡면 경천중학교	041-852-4013	

政丞公派 任員

직 위	성 명	주 소	전 화
고 문	양종근	경기 용인시 이동면 덕성리 948	031-332-7602
	규성	경기 이천시 모가면 서경리 22	031-632-3164
회 장	범수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440-24	011-479-5776
부회장	희서	경기 화성시 마도면 백곡리 602	031-356-1492
감 사	환기	경기 용인시 이동면 덕성리	031-332-7617
	병택	서울 강남구 청담동 현대A	02-542-7589
총 무	병주	서울 성북구 장위동 238-381	02-918-5084(019-9737-5084)
이 사	종환	인천 계양구 효성1동 88-2	032-542-6647
	동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A 415-804	02-938-8773
	전수	경기 용인시 이동면 시미리 367	031-336-7298
	병천	경기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66	031-334-0689
	병열	경기 안성시 삼죽면 배태리	031-672-4272
	병욱	강원 평창군 진부면 거문리	
	정근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778-9	031-292-9714
	건직	경기 화성시 마도면 백곡리 686	031-356-3938
	문주	경기 화성시 마도면 백곡리 422	031-357-0570
	희택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757-6	031-295-1495
	홍직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LG빌리지A 309-2003	031-291-1024
	희용	경기 화성시 마도면 백곡리 305	031-356-0595
	희주	인천 남구 용현 2동 409-11	032-881-8071
	희화	경기 화성시 마도면 백곡리 251	031-356-3871
	영백	경기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28-1	031-255-6856(011-227-9330)
	석직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1동 미리내마을A 925-1502	032-674-3375(011-363-7160)

※ 龍仁 義信派 齋室

재실주소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상봉리

건립년도 : 1998년도 건립

건 평 : 30평

位牌모신 분 : 義字信字 外 13 兩位분 奉安됨.

典書公派 任員

職 位	姓 名	住 所	電 話	郵便番號
會 長	楊 鎮 錫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51 대우트럼프월드A 103동 402호	02-785-5345	150-896
副會長	雨 錫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장성동 186	043-291-9312	361-206
	熙 永	충북 증평군 증평읍 증천2리 636	043-836-4488	367-904
	致 完	충북 괴산군 사리면 증흥리 진암 629	043-836-7280	367-821
監 事	澈 敏	서울 송파구 문정2동 웨미리A 108동 104호	02-449-7961	138-767
理 事	廷 植	충북 증평군 증평읍 증천 5동	043-836-3496	367-904
	澈 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291-24	043-224-6500	360-807
	煥 吉	서울 양천구 신정동 973-17(양천 신경외과)	02-2607-9901	158-860
	明 植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삼익A 105동 302호	019-549-5778	361-748
	澈 玉	충북 증평군 증평읍 신3동 1105 선경주택 19호	043-836-2494	367-907
	永 植	충북 증평군 증평읍 증천2동	043-836-4771	367-904
總 務	相 植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용전	043-838-4564	365-852

西平君派 任員

職 位	姓名	派	世	住 所	電 話
顧問	永熙	평산파	20	서울 중구 신당4동 294-70	
	澈愚	노성파	22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67	02-717-3555
	樂柱	봉래공	18	경기 부천시 원미구 원미2동 풍림A 105동 603	032-611-8796
	麟錫	대구파	21	대구 중구 대봉동 162-18	053-425-2531
	寅穆	금산파	25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리 현대그린빌라 101동 302	031-264-2647
	鳳雄	함흥파	27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A 101동 808	02-544-9432
	春得	인동파	20	서울 마포구 서교동 346-32	02-336-2267
	貞圭	보성파	20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82-109	02-737-5297
	城都	보성파	21	서울 동작구 대방동 501-대림A 103동 503	02-6264-1197
	允奎	포천파	19	서울 광명시 철산2동 주공A 1110동 203	017-281-0234(02-2617-0237)
會長	柄華	신령파	20	대구 남구 봉덕3동 698-10	011-504-4163
	致炳	예산파	2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8-1 로얄파레스 A동 2905	011-222-5325(02-583-8815)
副會長	載昌	포천파	19	경기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011-9779-6917(031-532-6917)
	廷權	대구파	18	대구 남구 봉덕2동 효성타운 203-706	011-509-0025
	昌萬	함흥파	25	서울 강동구 성내동 463-2	011-223-2655
監 事	喜燮	부여파	20	서울 중구 만리동 2가 231-28	016-9304-4093(02-392-4093)
	常鉉	포천파	20	서울 서초구 방배1차 현대A 105-1201	017-334-8747
理 事	庚烈	신령파	21	서울 성동구 금호동 벽산A 107동 603	011-782-2095(02-2296-2096)
	龍德	경주파	24	경기 화성시 우정면 석천리 216-3에다원모텔	011-9993-7572
	熙準	삼화파	20	인천 부평구 부개동 494-1대동A 6동 709	032-213-0140
	柄斗	신령파	24	경기 양주군 광적면 덕도리(두양섬유)	011-230-8181
	柄周	경주병사공파	22	경북 포항시 북구 학산동 159-2	054-242-6020
	聖福	경주부사공파	22	경북 영천시 북안면 명주동 429	054-337-9029
	柄澤	경주사정공파	20	대구 수성구 범어2동 429	053-751-5756
	鍾萬	보성파	21	전남 순천시 남정동 550-12	061-744-2740
	原錫	서천파	21	충남 서천군 관교면 등고리	041-951-5146
	永福	영면파	22	경기 의왕시 왕곡동 세종A 104-703	031-459-1800
	泰珍	금산파	27	충남 금산군 추부면 장대리 539-14	041-752-5400
	宅鎭	은진파	26	충남 논산시 연무읍 안심8리 1101-9	041-742-0416
	正植	연천파	23	서울 종로구 평창동 182-25	018-312-8588
	璿錫	대구파	19	대구 달성구 다사읍 달천리	053-588-0566
	基成	영평파	20	경기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031-532-6559
	昌鍾	가평파	19	경기 가평군 하면 현4리 261-1	018-239-6559
	炯哲	순천파	24	전남 순천시 서면 죽평리 212	011-645-2504
	載範	지현파	19	경기 포천시 화현면 지현리	031-532-9775
	澈昭	괴산파	22	경기 이천시 읍면 석산리	031-643-7342
	東春	포천파	20	경기 포천시 가산면 정교리 553	031-542-0730
	在福	장단파	22	경기 파주시 월롱면 위전2리 606	031-945-0065
	在植	청주파	21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595-32	043-253-5139
	潤宅	봉래공파	20	경기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031-535-6447(031-535-6447)
	載一	대흥파	21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7-1	011-398-1160
	載千	천안파	21	서울 마포구 합정동 412-34현대빌딩 101호	011-267-6764
	敬完	영암파	20	서울 중구 소공동 80 북창빌딩 1층(베르샤니오)	011-770-5668
	永實	기지리파	21	서울 송파구 잠실5동 주공A 507동 709호	011-286-3718
	文鍾	회천문중	20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마을나이프A 703-303	031-717-7863
	戊吉	시흥파	21	서울 금천구 가산동 235-34	02-863-0723
	載權	협공문중	19	경기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031-534-7677
	應哲	강화파	22	서울 구로구 고척1동 164-37	02-2614-0219
	庚生	연천파	21	경북 영천시 화북면 오동리 352	054-337-6208
	常設	포천파	20	서울 강북구 수유3동 174-40호	02-996-5377(011-260-0945)
	奉九	경주파	23	서울 서대문구 홍제4동 현대A 117-708	02-379-9199(010-2282-8870)
	大植	대구파	21	서울 중랑구 묵동 174-1 삼구빌딩 3층 368-35	02-564-0301(019-255-1001)
	景植	괴산파	23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정동 388-33	032-674-2234(019-735-1214)
總 務	成植	마전파	23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56-34	02-719-4298(중화 719-4298)

密城君派 任員

職 位	姓 名	住 所	電 話
회 장	양택규	경남 창녕군 유어면 진창리	055-532-7109
부회장	수웅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322 한신타워 103동 905호	051-809-1051
	진승	경남 창녕군 유어면 광산리	055-532-7502
위 원	삼주	경남 창녕군 유어면 진창리	055-532-7116
	진옥	울산 울주군 범서면 구영리 377-1 월드빌라 401호	052-244-7769
	석철	경남 창녕군 유어면 광산리	055-532-7297
	승준	경남 창녕군 유어면 진창리	055-532-7103
	진한	경남 창녕군 유어면 광산리	055-532-7403
	육주	경남 창녕군 유어면 진창리	055-532-7202
	진명	부산 사하구 하단동 1176 가락타운 302동 204호	011-871-3853
	희준	경남 창녕군 유어면 광산리 42	055-532-7333
	창규	부산 동래구 명륜동 691 대진아파트 1동 143호	051-553-3258
총헌사 유 사	진을	경남 창녕군 유어면 진창리	055-532-8761
광산서원 유사·총무	진영	경남 창녕군 유어면 대동리	055-532-7409
석담재 유 사	석규	경남 창녕군 창녕읍 탑하리	055-533-5165
이산재 유 사	희정	경남 창녕군 유어면 대동리	055-532-7765
감 사	석원	부산 연제구 연산4동 603-11 6/2	051-861-4560
	진윤	부산 수영구 망미1동 441-11 26/1	051-754-5249

唐岳君派 任員

職 位	姓 名	住 所	電 話
會 長	楊 九 烈	서울 강남구 논현동 신동아A 101-903	019-428-8450
副會長	楊 又 甲	대구 수성구 지산동 516	053-784-3188
	楊 東 植	대구 수성구 범물동 1306-1	053-782-3505
理 事	楊 運 甲	대구 달서구 이곡동 1000-280	053-581-6780
	楊 九 千	대구 수성구 지산동 654-3	053-784-8576
	楊 應 壽	대구 수성구 지산동 1160-31	053-781-8889
	楊 允 周	대구 수성구 지산동 1268-2	053-781-0944
	楊 高 柄	대구 수성구 지산동 529	053-781-6659
	楊 淸 吉	대구 수성구 지산동 1281-13	053-781-6193
	楊 在 睦	대구 수성구 지산동 544-2	053-783-2569
	楊 延 柄	대구 수성구 지산동 669-1	011-526-3564
	楊 雙 九	대구 수성구 지산동 356	053-782-8850
	楊 鳳 大	대구 수성구 범물동 775 동광빌라 202호	053-783-3370
總 務	楊 種 邱	대구 수성구 지산동 1268-18	010-7309-6916

楊 治 (兵使公) 遺詩

(40餘年 동안 遺詩 中에서)

菊萎霜降日이오 松落歲寒時라

物色猶多變이나 吾心斷不移라

국화는 서리 내리는 날에 시들고 솔잎은 달이 찰 때 떨어진다.

물색은 오히려 변하기 쉽지만 나의 마음은 단연코 변치 않으리라.

(退居 機塘村舍 = 기당리 촌사에 은거하시면서)

世事茫然已白頭요 千年遺恨子規樓라

功名武勇今何用이요 但願歸從六鬼啾라.

세상사 망연한데 이미 머리는 희고 천년의 끼친 한은 자규루에 머물렀구나

공명 무용은 이제 어디에 쓸고 다만 원하노니 돌아가 사육신 혼귀와 같이 울리라

聞鵲樓下水는 無情空流去요

露梁江上楓은 含悲自落來라

문견루 아래 물은 무정하게 부질없이 흘러가고

노량강 위의 단풍은 슬픔을 머금고 스스로 떨어지는구나

(退居 抱川山中 作歌以示己志 = 포천 산중에 은거하면서 시로써 공의 뜻을 보이다)

此身願爲 山中之 谷中蘭하여

莫使世人 聞其香 嗅其臭하리라

이 몸은 원하노니 산중에 지초나 골짜기에 난초가 되었다가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게 하리라.

淸寧祠를 돌아보고(瞻拜淸寧祠)



十七代孫 潤宅(抱川文化院 副院長)

청백리(淸白吏) 서평군은 만인의 귀감(龜鑑)이요
자손된 우리에게 그 더욱 본이 되니
오늘을 사는 후손들 몸맘가짐 바르세

서평군 청렴정신(淸廉精神)만천하 유전하여
충절(忠節)의 문중으로 명성을 떨치더니
계유(癸酉)의 정난(靖難) 회오리 거세게도 몰아쳤네

퇴은(退隱)의 혈육사랑 영욕(榮辱)을 버리시어
도포에 품은 혜빈 평토장 매장하니
청녕사(淸寧祠) 언저리에는 돌보는 이 없었네

반천년(半千年) 흐른 후에 후손의 뜻을 모아
사지(祠地)를 쓰다듬어 돌나무 골라말라
청녕사 우뚝 세우어 서평군(西平君)을 절하네

慶祝 淸寧祠 重建



十七代孫 載昌(抱川鄉校 典校)

勝 地 風 光 歲 重 明
승 지 풍 광 세 중 명

이름난 터전은 해를 더하면서 빛나고

淸 寧 祠 宇 乃 完 成
청 령 사 우 내 완 성

청령사우를 이제야 마무리 하였네

日 迎 嶠 嶠 千 秋 色
일 영 교 교 천 추 색

일영산 봉우리는 높고 높아 천 년 동안 변함없고

釜 谷 汾 汾 萬 古 聲
부 곡 분 분 만 고 성

부곡천 맑은 물은 영원히 흐르네

淸 白 傳 承 先 代 蔭
청 백 전 승 선 대 음

청백 정신은 선조님들의 음덕이요

忠 孝 繼 奉 後 孫 情
충 효 계 봉 후 손 정

충효 덕성 이어 받들은 후손들의 정이라

秩 居 匡 靖 垂 功 績
질 거 광 정 수 공 적

광정대부 도침의 찬성사 지내시니

靑 史 流 芳 不 朽 名
청 사 유 방 불 후 명

꽃다운 행적은 청사에 빛나리라.

《提 言》

葬禮文化 改善点에 관한 小考!

(扶餘派 會長 二十世孫 楊 喜 燮)

유구한 역사 속에 인류는 피할 수 없는 生老病死를 맞게 된다. 따라서 사람이 사망하면 장례를 해왔는데, 고대로부터 각 나라마다 사회계급 계층의 관습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장례문화가 있어 왔다. 즉, 무덤·묘·묘(墓)·영(塋)·총(塚)·분묘(墳墓)·고인돌·풍장(風葬)·수상장(樹上葬)·폭장(曝葬)·수장(水葬)·화장(火葬) 등등으로 부르며, 임금이나 황제의 묘는 능(陵)이라 부른다.

묘란 무엇인가? 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사체를 처리하는 곳이라는 설과 기념관(形象物)이라는 설이 있다. 사체를 처리하는 곳이라는 근거는 사람이 죽으면 곧 부패하여 악취가 풍기고 보기에조차 흉하므로 어떤 방법으로든 시체를 처리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처리 방법으로 묘가 생겼고, 특수층은 시신을 보관하는 기념관(形象物)도 있다.

원래 총은 흙을 쌓고 나무를 심은 무덤, 묘는 흙을 쌓는 대신에 건조물을 세운 무덤 등으로 차이가 있으나, 현재는 혼용되며 일반적으로 이들을 총칭하여 분묘라 칭한다.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뿌리깊은 사회 제도나 관습을 인위적으로 바꾸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한 사회의 도덕적 규범의 바탕으로서 국민의 오랜 감정과 정서 등이 내재되어 있는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장례문화는 일반적으로 매장 위주로서 묘지의 형태가 봉분형이기 때문에 묘지의 필요면적이 넓으며 풍수설에 따라 묘지를 설치해 왔기 때문에 국토에 묘지가 분산 누적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묘지제도에 대한 관행이나 장례문화의 불합리성이 많다.

우리 나라의 경우 과거의 풍수지리, 종교와 무속신앙이 결합되어 조상을 숭배하고 유교사상과 예의를 근본으로 하는 데서 멀리 벗어나 권력과 부를 획득한 사람들이 많은 면적을 분묘로 조성, 집안의 내력을 과시할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경향도 많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늘어나는 인구와 이에 비례한 묘지의 증가로 한정된 국토가 기하급수적으로 잠식되어 그 면적이 전국 주택면적의 50%가 되고, 매년 여의도의 1.4배가 묘지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20~30년 후의 사망자 수를 추산해 볼 때 전 국토가 묘지화되지 않을 까 염려가 된다.

※ 앞으로 매장했을 경우 : 3회 이상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자치구에 따라 기간이 다름) 필히 화장하여 납골묘나 납골당으로 의무적으로 옮겨야 하는 2번의 장례절차를 밟는 폐단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한 곳에 (납골묘·납골당) 선대의 위패를 합동으로 모시면 일가들이 일정 장소에서 참배하게 되므로 관리가 편리하고 상호 접할 기회가 있어 친목을 도모할 수 있으나, 동·서·남·북에 따로 따로 묘를 설치 했을 경우 그 후손이 만일 무손이 되면 그 묘가 관리되지 못하고 흉물로 방치하게 되어 불효를 저지를 수 있다.

늦게나마 정부에서 2001년 1월 13일부터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니, 우리 모두 좁은 국토의 미래를 위하여 정부 정책에 호응하자.

漢字를 正確하게 알고나 씀시다

(靑城 漢詩會 會員 十九世孫 楊 載 昌)

漢字는 참으로 어렵다. 바로 쓰기도 어렵고, 바로 읽기도 어렵고, 바로 알기도 어렵다.
光復 後 우리 나라의 漢字에 對한 政策은 여러 번 바뀌었다.
엮치락 뒤치락 했다는 말이 맞는다.
最近에 와서 南廣祐 教授의 漢字混用 遺書事件을 契機로 해서 漢字教育 畧이 일고 있다.
初等學校에서도 漢字를 가르치고 있으며, 漢詩會가 雨後竹筍처럼 생겨나고 있다.

1) 늘어만 가는 漢字의 數

大體 漢字의 數는 얼마나 될까? 이왕 漢字를 가르치기로 했으니 알아둘 必要가 있는것 같다.

漢의 許慎이 지은 設文解字가 玉篇類의 嚆矢인데 거기에 적혀진 漢字는 都合 九千三百五十三字이다. 그 以後 時代가 지나면서 계속 늘어서 梁의 玉篇엔 一萬六千九百十七字, 唐의 廣韻은 二萬六千九百九十四字, 宋의 集韻은 二萬九千百十六字, 明의 篇海類纂은 三萬八千四百字, 淸의 康熙字典은 四萬七千百十六字가 收錄되어 있다. 康熙字典 以後에도 계속 增加됐을 것으로 보아 지금은 얼마나 되는지 짐작도 하기 어렵게 됐다.

2) 잘못된 漢字의 形

漢字는 한 劃, 한 点만 틀려도 사뭇 딴 글자가 되고 만다. 바르게 쓰기란 老師宿儒도 어려운 일이다. 지금 우리들이 通常 쓰는 漢字로 말하면 좀 風을 처서 그 太平이 訛誤라고 해도 결코 過言이 아닌 形便이다. 우선 容易하다거나 變異한다는 “易”字는 “日”字 밑에 “勿”字요, 그 두 字 사이에 “一”字를 더 넣은 것은 陽의 古字인데, 이 두 字는 識者들도 混同한다.

“易”字의 右邊을 가진 錫(주석석)과 “易”字의 右邊을 가진 錫(당노양 : 말굴레양)의 두 字도 混同하는 경우가 많다.

大體 漢字의 數는 얼마나 될까?

이왕 漢字를 가르치기로 했으니 알아둘 必要가 있는 것 같다.

漢字는 한 劃, 한 點만 틀려도 사뭇 딴 글자가 되고 만다.

바르게 쓰기란 老師宿儒도 어려운 일이다.

또 “一”字와 “手”字로 된 承字의 中間을 “了”字에 加三點처럼 通用해서 手部에 둔 것은 理解가 더욱 안 되며 “入”字 아래 “王”字로 된 全部를 “人王全이라고 불려서 “入”部에 둔 것도 그렇고, 面의 古字 “面”을 回還의 回와 混同하고 地名으로 쓰는 “伏”字를 府伏의 “伏”字와 混同하고 있다.

“靜”, “淸”字의 月은 “丹” “卽” “丹”字요, “勝”, “朝”字의 月은 卽 “丹”字의 略劃이며, 肉部는 “月”인데 全部 “月”部로 쓰며, “冊(관)”字는 무엇을 꺾어든다는 뜻이며, “毋”(무)字는 무엇을 못하게 禁한다는 뜻이고, “母”(모)字는 父母의 母인데 全部 “母”字로 쓰고 있다.

3) 알기 어려운 漢字의 意(뜻)

張維의 詩에 月落烏啼霜滿天 江楓漁火 對愁眠이란 句가 있는데, 愁眠은 엄연히 山名이다. 普通의 山名으로 치면 도리어 詩味가 減少되는듯 하지만 公교롭게도 山名이 愁眠이라서 言外의 韻響을 지닌다. 역시 唐人의 詩에 東邊日出西邊雨, 道是無情也有情이란 句가 있다. 當時에는 情이 晴과 同音이었다. “情”, “晴” 兩字가 同音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天才라도 有情無情을 解釋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4) 잘못 읽는 漢字(誤讀)

阮丈의 阮은 누구나 “완”으로 읽지만 그 本音은 “원”이요, 또 繡帶는 누구나 “봉”으로 읽지만 그 本音은 “팽”이다. 그렇다고 완장을 완장, 봉대를 팽으로 읽을 수는 없다.

만일, 本音을 따진다면 괴(槐)는 회, 걸(乞)은 글, 모(母)는 무, 구(毆)는 우, 해(亥)는 헤, 소(召)는 조, 탁(卓)은 착, 외(畏)는 위, 택(宅)은 척, 혁(革)은 격으로 읽어야 한다. “유(綏)”字는 旗旄下垂란 뜻으로 “유”요 편안하다는 뜻으로 “슈”다. “復”字는 回復의 뜻으로 복이요 再次的 뜻이면 “부”다. 復活・復興은 부활・부흥이라야 옳는데, 日本式 發音으로 복활・복흥으로 읽는 사람들이 있다.

紙面 관계로 여기서 興味없는 너스레는 줄이겠지만, 漢字를 愛用하는 讀者들에게 그리고 漢字쓰기를 自負하는 江湖의 文士들에게 參考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靑少年 禮讚

- 迎新(영신)에 즈음하여 -



(前 서울高等學校 校長 二十一世孫 楊 柱 錫)

삶의 單回性(단회성)

동양에서는 촌음(寸陰)을 아껴 쓰라는 격언이 있고, 서양에는 “시간이 돈이다”라는 격언이 있다. 이는 목표없이 시간을 허송하는 이에게 주는 교훈이다.

나는 시간을 돈이라고 보기보다는 ‘시간은 人生’이라고 보고 싶다.

그렇다. 시간을 돈으로 살 수는 없다. 운동경기는 이번에 패하면 다음에 승리할 수 있다. 칠전팔기(七顛八起)라는 말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그러나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다시 태어나서 살아갈 수 없다. 하루가 새롭고 한 해가 아쉬울진대 어찌 방황할소냐.

보라! 푸른 새 날이 밝아 오누나.

그대, 생각하여라.

오늘을 어찌 헛되어 보낼 것인가.

오늘은 영원에서 태어나 영원 속으로 흐르다가

밤이면 묻혀 가리라.

보라! 푸른 새 날이 밝아 오누나.

그대 생각하여라.

오늘을 어찌 헛되어 보낼 것인가.

迎新(영신)에 自己(자기) 다짐

미래에 대해 자기 설정(自己 設定) 목표가 없는 젊음은, 찾아가야 할 항구가 없이 표류하는 선박이 비유 될 수 있다. 내가 도전하여야 할 대상은 무엇이며, 성취코자 하는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자기 미래상을 성찰하는 깊은 생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자기 실현의 무대는 밀레니엄의 21세기다.

삶의 영위는 도래할 시·공간적 장을 떠나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산업의 발전은 후기 산업 사회(後期産業社會)를 넘어 탈산업화(脫産業化)할 것이고, 국제화·정보화·자동화·폭넓은 대중 사회의 다원화·탈이데올로기 시대가 전개되며, 고도한 과학기술사회(科學技術社會)로 하이테크(high-tech)와 노하우를 갖춘 능력경쟁사회(能力競爭社會)가 여러분의 삶의 무대가 될 것이다.

인류 문화·사상·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고 있음을 통찰하여야 한다. 방황하는 젊은이여, 먼저 인용한 토머스의 시구- “보라! 푸른 새 날이 밝아 오누나”를 다시 한 번 음미하여 보라. 사람은 누구나 천부의 소질과 취미가 있게 마련이다. 미래에 대한 자기 설정에는 자기의 소질과 취미, 부모의 염원과 사회의 요구 등을 감안하여 부단한 자기 개발(自己開發)이 요구된다.

자기가 서야 할 무대, 자기 몫의 역할·분야 등 자기의 미래상이 설정되면 그 길을 향하여 뛰어야 한다. 비록 그 길에 고난과 역경이 있고 고뇌와 눈물이 있더라도 극복하여야만 한다. 성취하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 그것이 동력(動力)이 된다. 그 분야에서 대성취인이 되고, 명인이 되고, 제일인자가 되고, 숙련자가 되고, 거장이 되고,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뛰어 야 하리라. 오늘 뛰어야 할 때 뛰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도 늦으리라.

忍耐(인내)의 美學(미학)

에디슨이 말한대로 무엇을 하든 간에 땀으로 뒤통이 났을 정진과 노력없이 그리고 피가 마르는 고뇌와 비애를 맛보지 않고는 성취의 감격과 환희의 미학을 맛보지 못하리라. IMF 전에 우리 사회에 3D 업종을 거부하는 병적 현상(病的 現象)이 있었다. 조그만 어려움도 피하고, 거친 일은 안 하려 하고 편안 일만 고르며, 사소한 수모에도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가 하면, 약간의 어려움도 참지 못하고 손을 든다. 그리고서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무엇이 되려 하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일진대, 하루하루의 삶을 지극하게 알차게 창조해 가려는 지혜와 실천 덕목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 가장 으뜸 가는 슬기는 참고 견디며 끈기있게 밀고 나가는 지구력과 인내력일 것이다. 여러분 앞에 전개되는 세상에는 할 일이 많다. 정열적으로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지는 생활,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모험도 해 보는 미래지향적인 생활로 매진하자. 그리고 대천명(待天命)하리라.

姓氏와 族譜

二十三世孫 楊 景 植

근년 들어 여성계에서 호주제(戶主制)를 폐지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고 있다. 들어보면 재산상 불이익 같은 것은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보완할 차선택을 찾아야지 덮어 놓고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바로 성씨(姓氏)가 문제다. 진작부터 일부 여성들은 부모의 양성(兩性)을 다불인 명함을 가지고 다녔고, 어떤 여성은 한 술 더 떠서 앞으로는 부모의 양성(兩性) 중, 아버지 성(姓)을 따르든 어머니 성(姓)을 따르든 본인 의사에 맡기자고 떠돌고 다닌다.

그렇게 되면 동생은 김씨(金氏), 언니는 이씨(李氏), 본인은 김이씨(金李氏)가 되어 하루 아침에 남이 되는 기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또한 재혼(再婚)을 했을 경우 양부(養父)의 성(姓)을 쓰게 해달라고 한다. 재혼을 한 번 해도 그런데, 두 번 혹은 세 번을 했다면 문제는 사뭇 달라진다.

가령 김씨(金氏)였던 아이가 이씨(李氏)로, 이씨에서 다시 박씨(朴氏)가 되었다면 아이는 성(姓)의 정체성에 큰 상처를 입을 것이다. 어제까지 김씨였던 아이가 어머니의 재혼으로 인하여 이씨가 되었다고 치자. 그러면 이 아이가 오늘 당장 '나는 이씨(李氏)다!' 하고 과연 다닐 수 있을까?

못난 짓도 분수가 있는 법이다. 지금 다른 나라 여성들은 결혼과 동시에 잃어버린 자기 성(姓) 되찾기 운동을 하는 판에, 그래 그 잘난 미국 여성들도 가지지 못한 제 성을 번듯하게 가진 우리나라 여성들은 무엇이 부족해서 이 야단을 떨고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간다. 손자 재롱도 수염을 잡아 당기는 지경에 이르면 더 이상 재롱이 될 수 없듯이 치기(稚氣)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다 알다시피 옛 소련이 몽골을 점령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몽골인들의 성씨를 폐지시킨 일이었다. 백 년이 채 안 된 지금 몽골에서는 근친혼(近親婚)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삼촌이니 고모니 하는 친족간의 호칭을 아예 모른다고 하니 그럴 법도 하다. 성씨의 중요성이 이러한 것이다.

소련의 그림자 아래에 있던 북한도 본관(本貫)을 폐지하고 '일인일적제(一人一籍制)'를 시행하면서 모든 성씨를 한글화시켜 버렸다. 청주 양씨(淸州 楊氏)도, 남원 양씨(南原 梁氏), 제주 양씨(濟州 梁氏)도 다 같은 소위 '한글 종씨(宗氏)'가 되어버린 것이다.

우리에게 창씨(創氏) 개명(改名)을 강요했던 일본의 경우에는 원래 왕실(王室) 및 일부 명문가(名門家)들만 족보를 만들었지 일반인들은 족보는 커녕 성(姓)조차도 없었다. 명치유신(明治維新) 이전까지만 해도 열에 아홉은 성이 없었다가, 이후 서서히 늘어나다가 1945년

호주제 폐지 이후 성씨가 토끼 새끼 늘어나듯 해서 지금은 3만 개가 넘는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본인들을 보면 어딘가 오종종하고 비실한 느낌을 받는다. 어떤 학자는 이러한 현상을 근친혼(近親婚)에 이유를 대기도 하는데, 동물학자들의 연구를 보더라도 그렇다. 서식지가 극히 제한된 지역에 사는 동물들은 어쩔 수 없는 근친교배로 인하여 새끼를 낳아도 비실비실거리다가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렇듯 호주제를 폐지하면 변성(變姓)을 야기할 것이고, 변성은 또 근친혼을 낳게 될 것이고 결국 100년 혹은 200년 뒤에는 열성인자(劣性因子)로 인하여 민족의 자질(資質)을 형편없이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2000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씨가 728개로 조사되었다. 1985년 조사 때는 273개이던 성씨가 15년 사이에 급절이나 늘어난 것이다. 토착(土着) 성씨가 286개, 특히 외국인들의 귀화(歸化) 성씨가 442개로 훌쩍 늘어난 것이 이채롭다. 성씨(姓氏)로만 보면 단일민족(單一民族)이라고 하기에 좀 그렇게 되었다.

성씨가 늘어났다고 해서 하는 말이지만 창씨개명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인들이 발간한 창씨명감(創氏名鑑: 1940년, 조선신문사 발행)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태(泰)'자 돌림의 윤씨(尹氏) 5명의 성씨가 '조산(朝山)'이니 평천(平川)'이니 해서 모두 다르고, '영(永)'자 돌림의 김씨(金氏) 19명 중에 6명만 성씨가 같고 모두 다르다. 이 중에는 형제도 있을 것이고, 사촌도 있을 텐데 성씨가 각기 다른 것이다.

책장을 넘기면 넘길수록 누가 일본식으로 창씨개명을 잘하는가 보는, 무슨 대회장에 내놓은 시험지 같다. 서울에 사는 안병수(安丙壽)란 사람은 이등박문의 성을 따서 '이등수일(伊藤壽一)'이라 개명을 했고, 이천군에 사는 변태호(卞太鎬)란 사람의 기록을 보면 직업은 지주(地主)로 '변하대이랑(卞下大二郎)이라 개명을 하여, 어디까지가 성이고 어디부터 이름인지 도통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첨을 부렸다. 이들이 각각 흩어져서 한 50년 살았다고 치자, 생각하기도 싫지만 몽골짝이 날 것이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성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본래의 성씨를 넣거나 본관(本貫)을 넣거나 파조(派祖)의 시호(諡號) 그리고 고향이나 살고 있는 동네 지명(地名)으로 성씨를 삼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반면에 친일명부(親日名簿)랄 수 있는 조선신사대동보(朝鮮紳士大同譜)를 보면 잘 난 조상을 죄다 팔아먹다 못해 시조(始祖)까지 팔아먹고 있다.

하여간 우리 선조 분들은 창씨명감에 네 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안성(安城)에 사는 한 분과 장단(長湍)에 사는 한 분의 성이 각기 달랐고, 포천(抱川)에 사는 두 분의 성만 같았다. 결국 하나의 성씨가 셋으로 나뉜 것이다.

그런데 포천파(抱川派)와 우리 이천파(利川派)의 창씨 개명이 꼭 같았다. 10여년 전 고향의 면사무소에 가서 창씨개명 여부를 확인했을 때, 본적(本籍)에 기록된 창씨개명과 꼭 같은 성씨(姓氏)였다. 사실 창씨(創氏)를 안했기를 바라면서 갔던 걸음이라 뒤돌아올 때는 좀 아쉬웠지만, 이번에 확인된 것으로 미루어보면, 그면 포천 일가(一家)와 어떻게든 서로 연락을 하여 같은 성씨로 창씨개명을 하자고 약속을 한 듯하다. 혈족(血族)의 단결력이란 이

런 것이구나 하고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닌 게 아니라 씨족(氏族)을 한자로 풀어보면 그 답이 나온다. 본래 식물의 씨앗을 뜻했던 '씨(氏)'의 고문자를 보면, 복숭아 씨앗처럼 그려놓은 아래쪽에 뿌리가 뻗은 모습을 그렸고, 위로는 잎이 돋아난 형상을 그려 놓았다. 성씨(姓氏)란 곧 한 씨앗의 뿌리에서 잎이 돋고, 가지가 나누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각 문중(門中) 모임의 이름이 '화수회(花樹會)'나 '수목회(水木會)'나 하는 것이다.

'족(族)'자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은 '겨레'의 뜻으로 많이 쓰지만, 고 문자를 보면 전쟁에 쓰던 깃발과 화살을 상형화한 무시무시한 한자였다. 화살(矢)은 곧 사냥과 전쟁을 의미했다. 따라서 씨(氏)가 같은 사람들이 한 깃발 아래 화살을 들고 때로 모여서 사냥을 하러 나가거나 다른 씨족과의 전쟁에서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는 한자가 '족(族)'자다.

14세기부터 쓰기 시작한 조상(祖上), 곧 조(祖)의 고문자를 보면 남근(男根)을 상형화(且)했다. 생명 씨앗의 원천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도 된다. 모계사회에서 수놈은 그저 씨앗을 퍼뜨리는 존재에 불과했지만, 차츰 부계사회가 되면서 성씨(姓氏)도 퍼뜨려서 오늘날과 같은 부계(父系) 혈통이 온전하게 남아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여자의 몸(女)으로부터 태어났다(生)는 뜻의 '성(姓)'이란 한자가 말해주듯 고대 모계사회에서는 어머니 성을 따랐다. 중국 고대 8대성(八代姓)을 보면 강(姜)·희(姬)·이(姒)·원(嫫)·영(嬴)·길(姁)·운(妘)·위(媯)씨로 모두가 모계성(母系姓)을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어찌 되었든지 성씨와 족보는 부계혈통으로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앞으로라도 여자가 남자보다 월등하게 힘이 더 세지 않는 한, 부계혈통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족보의 시작은 다 아는 바와 같이 왕실의 사적(事跡)을 기록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후 사대부들이 이어받으면서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결국 족보는 양반계급사회의 산물(產物)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에 족보 없는 사람은 있어도 성씨 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성씨와 본관을 반듯하게 알고 있지만, 전쟁이나 재해 기타 등등의 이유로 선대에서 족보를 잃어버려 오랜 세월 족보에 올리지 못해, 그 후손들이 어쩔 수 없이 줄 끊어진 연(鵲) 신세가 된 분들이 많다. 그러면 그 분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 그렇지 않은 것이다.

사실 100여년 전만 해도 말뚝(末同)이니, 끝순이(末順伊)이니 해서 그저 그가 누구라는 것 정도의 표식에 불과한 이름만 있었지 성씨가 없는 노비(奴婢)나 천민(賤民)들이 많았다. 또한 서자(庶子)인 경우에도 족보에 오르지 못했다. 당시의 노비문서를 보면 '외조부(外祖父)에게 막개(莫介) 등 노비(奴婢) 네 구(四口)를 매매(賣買)함'이라 해서 동물 취급을 하고 있으니 족보가 있었을리 만무하다.

이들이 후에 어떻게 족보를 가지게 되었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지만, 하여간 지금 조상의 뿌리를 찾는 분들의 대부분은 선말한초(鮮末韓初)의 혼란기와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전쟁으로 부모를 잃거나 족보를 잃어버린 분들이 많다.

멀게는 150년, 가까이는 50년을 전후로 해서 잃어버린 뿌리를 찾는 것이다. 먹고 살기도 바쁜 세상에 돈까지 써가면서 애타게 찾는 이유는 바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것이다.

그래서 하는 말이지만 앞으로 호주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 폐지가 된다면 족보의 중요성은 새삼 두말 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족보가 아니면 어디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을 것이며, 후손들은 또 무슨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그렇다고 창씨(創氏)를 해서 시조(始祖)가 된다면 되레 웃음거리만 될 것이다.

지금 중국이 고구려 역사를 통째로 앗아가려고 하고 있다. 한 마디로 우리나라 중시조(中始祖)쯤 되는 고구려를 도깨비 땅 떠가듯해서, 중국 역사로 편입하겠다는 것이니 기가막힐 노릇이다.

우리가 성씨를 후손에게 올바르게 전하려는 것도 사실은 역사의 정체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근원없는 물줄기 없고, 뿌리 없는 나무가 없다'라는 중국 속담을 다시금 생각하길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친다.

宗財 保全에 關하여

首席副會長 二十世孫 楊 致 炳

宗中은 三國時代 以前부터 傳해 내려온 說도 있으나 儒敎에 더 잡은 制度여서 儒敎가 發興하던 高麗末에 우리 社會에 뿌리를 내려서 最近 都市文化와 個人主義 隆盛과 西洋文明의 導入 및 核家族化 등 宗中 概念이 退色되어가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氏族觀念을 공고히 함으로써 宗中間에 人和團結 親睦을 圖謀하여 우리 社會에 상당히 肯定的 慣習으로 傳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좋은 役割을 할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또한 先祖에 대한 追慕의 信念이 強해지고 宗族間에 相扶相助하는 데 힘이 되고 組織이 공고히 되고 있으며, 不動產價格의 上昇으로 많은 財産을 保有한 宗中也 많이 생겨났다.

또한 宗中の 崇祖 道義精神을 宣揚하고 先祖奉祀 墓域 祠宇 宗財保全 獎學事業 先祖의 遺物 史蹟保存 및 顯揚에 關한 目的으로 構成되는 氏族의 血緣的 自然的 集團으로 組織이 結成되어 우리 社會에 상당한 肯定的 慣習으로 내려왔고 앞으로도 훌륭한 役割을 할 것으로 期待된다. 그러므로 宗中間의 紛爭이 發生하지 않도록 未然에 裝置를 마련하여야 좋은 制度로서 管理할 수 있다.

이와 같은 宗中の 基本觀念을 지키기 위하여 전해 내려오는 宗中財産의 管理 方法은 各樣各色으로 維持 保全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宗中間에 財産 싸움을 하는 경우를 新聞紙上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또는 주위에 있는 知人으로부터 듣고 보아오고 있다. 宗中에서 같은 宗員들과 宗中 財産 關係로 民·刑事 訴訟이 進行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같은 氏族이나 兄弟間 또는 가까운 親姻戚間에 紛爭은 서로 相對方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私的인 感情까지 합쳐서 서로 돌이킬 수 없는 정도까지 道가 심해지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우리 人間은 財物에 눈이 어두워지면서 父母도 兄弟도 親姻戚도 親舊도 없다는 것을 자주 듣고 보아 왔으므로 事前에 예방조치를 갖추는 것이 가장 훌륭한 財産 保全의 方法이 될 것이다. 우리 先祖들은 과거에 林野·垡地·田畝 등 不動產의 價格이 저렴하였기 때문에 宗中員들 間에 穀食을 거두거나 돈을 모아서 많은 不動產을 買收하였으나 그 當時에는 宗中 名義로 登記를 할 수 없도록 法이 되어 있어서 宗孫의 名義나 또는 宗中員 중 有力한 사람 몇 名의 共同 名義로 登記를 하여 소위 名義 信託을 하여 내려온 慣習이 있었다.

그런데 歲月이 흘러 宗中財産을 購入했던 宗中員들이나 名義信託된 登記人들은 전부 죽고, 社會의 變遷과 文明發達로 集團을 이루고 이웃에서 살던 宗族들은 뿔뿔이 都市 各處로 흩어져서 生活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名義信託했던 財産에 關하여 宗族들 間에 歲月이 흘러 잊혀 지자 그 名義人들의 子孫들이 마음대로 賣渡하거나 名義人의 財産이라고 主張하게

되어 紛爭이 始作된다.

또한 最近 들어서 不動產의 價格이 暴騰하여 巨額의 財産이 되자 그 紛爭의 도는 더욱 심하여졌다. 이러한 宗中財産에 대한 特別한 法은 없었으며 民法 第1條에 對한 定義 같이 民事에 關하여 法律에 規程이 없으면 慣習에 依하고 慣習法에 없으면 條例에 依한다는 條文과 같이 오랜 歲月에 慣習으로 내려오면서 大法院判例에 依하여 宗中에 關한 法的 理論은 形成되어 왔다. 그러므로 宗中은 構成員으로서의 宗中員이 있고 對內的인 面에서는 宗中을 代表하는 宗長이 있으며 對外的으로 行爲를 할 때에는 宗中代表(또는 宗中會長)를 選定할 必要가 있다.

大法院判例는 宗中財産에 關하여는 宗中 代表者만이 宗中을 代表하여 그 管理分權을 갖는다고 判示하고 있다.

또한 民事的인 問題에서 大部分 宗中으로써 資格이 있느냐 하는 問題와 宗中 財産이 틀림 없느냐 하는 問題가 重要な 爭點이다. 宗中이라고 하지만 말로만 宗中이지 아무런 組織도 갖추어있지 아니하면 소위 當事者 能力이 없어서 財産도 所有할 수 없다고 본다. 宗中員이 하나의 組織體로 될려면 外部的으로 볼 때 하나의 團體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宗中은 法人格을 가지지 아니한 私團이라고 하는 것이 判例의 通說이다. 宗中으로서 實體를 될려면 우선 定款이 制定되어야 하고 이 定款과 一般慣習에 따라 組織이 되고 運營되어야 한다. 우리 先祖들은 오랫동안 宗中財産을 買收하여 宗中員 名義로 信託하여왔으나 文書로 證據를 남기는 習慣이 없었다. 그 當時 關與했던 名義信託者도 죽고 文書도 保存되어 있지 아니하여 論難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現實이다.

이와 같은 事項에 대하여 1995年 7月 1日부터 不動產 實權利者 名義登記에 關한 法律이 施行되면서 누구든지 不動產에 關한 物權을 名義信託約定에 依하여 名義受託者의 名義로 登記하여서는 안 되게 되어 있으나(위 法律 第3條), 宗中財産에 對하여서는 이를 許容하고 있다(위 法律 第8條). 一般的으로 宗中財産을 名義信託하는 境遇에 名義受託者인 그 本人은 慾心을 부리지 아니하는 것이 보통이나 그 後代에 가서는 宗中財産인 事實을 잘 알면서도 相續받은 自己財産이라 억지를 쓰는 境遇가 자주 있음을 볼 수 있다. 現在까지 名義信託만 하고 다른 措置를 取하지 아니한 경우는 名義受託의 後孫들이 參加한 가운데 宗中會議를 召集하여 財産의 所有權 및 管理關係를 分明히 하고 名義信託財産임을 確認하는 內容의 文書を 公認된 公證人의 公證을 받아 놓는 등 차후에 發生할 法律的 紛爭素地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忠憲公 始祖님의 行狀에서 奏請使로 活動하신 年代에 대한 異見

成均館大學校 名譽教授 二十二世孫 楊 澈 坤

忠憲公 始祖님의 曾孫婿이며 朝鮮 初期의 名相이었던 黃喜(1363~1452) 政丞이 撰(찬: 저술)한 우리 始祖님의 行狀 중에 始祖님께서는 당시 우리나라의 큰 弊端이었던 歲貢을 削減 받기 위해 奏請使로 中國에 가신 해가 “明나라 洪武 末年”이라 記錄되어 있으며, 다른 데에는 洪武 末年(1386년)이라고 記錄되어 있거나 단순히 洪武 末年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 大同譜上의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모두 忠憲公의 行狀에 記錄된 內容을 引用한 데서 온 結果라 思料된다.

이 점에 대하여 筆者는 考證할 만한 內容物을 당장 提示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다음과 같은 事由를 들어 異見을 提示하며 平素 關心을 갖져온 一家분들에게 앞으로 많은 研究와 檢討로 우리 大同譜上에 記載된 時期나 年代에 잘못이 있다고 確認된다면 正式으로 修訂할 수 있는 機會를 갖어보자는 뜻에서 提議하는 것이다.

筆者가 提示하는 事由로는

첫째: 서기 1386年은 洪武 19년에 該當하는 해로, 洪武 年號는 1368년부터 1398년까지 31년간 지속되었으니 初·中·末葉으로 區分해볼 때, 1386年은 洪武 中葉에 해당되어 末年이라고 記載한 데는 多少 거리감이 있다는 점.

둘째: 우리 始祖님께서는 1303년에 태어나셨으니 1386年은 84歲가 되시는 해로 外交 慣例上으로 보나 健康 또는 當時의 交通上으로 보아 그 年歲에 먼 明나라까지 使臣으로 가셨다는 것은 쉽게 理解되기 어렵다는 점.

셋째: 始祖님께서는 元나라의 政丞으로 奉職하시다가 “公主와 더불어 같이 가서 高麗를 도와서 나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라”(즉, 元나라의 國益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는 朕의 뜻)는 皇帝(順帝)의 命을 받고 1351년에 魯國公主를 陪從하여 우리나라에 오신 뒤 바로 國政에 參與하시면서 歲貢에 대한 큰 弊端을 알게 되시었고, 이것이 長期的인 次元에서 결코 두 나라의 國益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 모로 歲貢內容과 不合理한 點을 把握(파악) 하셨는데, 이것을 36年이란 긴 세월이 지난 1386年에 그것도 生面不知라고 推定되는 明나라 皇帝(朱元璋)를 拜謁(배알)하고 歲貢削減을 奏請하는 자리에서 가까운 臣下였던 것처럼 “歲貢의 고질적 弊端을 없애지 않으면 臣이 宰相의 자리에 있으면서 헛되이 國祿만 허비할 뿐이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라고 力說하신 점과, 이에 대하여 “卿이 나라를 위한 精誠과 百姓을 보호하는 마음을 젊어서부터 알고 있는 터인데 다시 무슨 가부를

말하겠는가”라고 皇帝가 答한 內容은 元나라 順帝의 경우가 아닌 明나라 皇帝(朱元璋)와는 對話될 수 없는 내용이라 思料되는 점.

넷째 : 高麗時代 文散階 品階의 改廢面에서 볼 때 文官 正一品의 品階로 壁上三韓 혹은 三重大匡이라 呼稱하던 것을 1362年(공민왕 11)에 둘을 合하여 壁上三韓三重大匡(단순히 壁上功臣이라고도 함)이라 하였다가 1369年(공민왕 18)에 폐지하여 그 뒤로는 壁上三韓이라는 品階의 呼稱을 쓰지 않았다는 점.

다섯째 : 1353年 徐州에서 軍事를 일으킨 바 있는 朱元璋이 1364年(恭愍王 13)에는 江南에서 軍사를 일으켜 吳나라 王을 稱하게 된 外勢의 變化를 알아차린 恭愍王은 노골적으로 元나라에 대하여 反抗의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고, 1368年 朱元璋이 明나라 太祖가 되면서 高麗朝廷은 親元派와 親明派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1374年 恭愍王이 세상을 떠나고 禡王이 郎位하면서 위 두 派間의 對立이 深化되어 明나라를 宗主國으로 섬기면서 때로는 北元의 年號도 쓰며 종종 北元과 使臣의 來往도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明나라는 高麗에 더 冷酷(냉혹)한 태도를 취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狀況에서 親元派로 밖에 解釋될 수 없는 우리 始祖님께서 明나라 洪武末年에 奏請使로 가실 立場이 아니었다는 점.

以上 다섯 가지의 事由를 감안할 때, 어느 모로 보나 우리 始祖님께서 奏請使로 中國에 가신 것은 물론 한·두 번이 아니겠으나, 가신 年代는 1360년대 初葉으로서 魯國公主가 작고하기 이전으로 元나라 至正 末葉이라 思料된다.

祖上을 위한 獻誠金, 金石에 새겨야 하나?

前 永川市議會 議員 二十一世孫 楊 庚 生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말이 있다. 일생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나아가 우리 인류를 위해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간 수많은 사람들은, 후세 사람들이 영원히 잊지 못하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지금도 각 지역의 향교마다 성현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고, 추모하는 행사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어느 문중이나 가정마다 훌륭한 조상들의 업적을 길이기 위한 서원·사당·묘소·제사 등에서 조상 숭배와 추모행사를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과장·허위·왜곡된 가정이나 문중들도 간혹 찾아볼 수 있다. 각 지역을 방문하다 보면 이해 못할 일들을 가끔 볼 수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후손들이 많은 성금을 기탁하였는데, 원래 사용목적은 뒷전이고 헌성금 많은 사람의 동상까지 건립하고, 별도의 금석을 조각하여 세운 성금록이 먼저 보일 때 씁쓸한 마음이 든다. 부자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인가, 부지런하고 절약하고 많은 사람에게 신뢰를 받을 때 돈이 모아지지 않겠는가 마는, 게으르고 허풍떨고 과분한 생활을 하는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조상을 위해 헌성금을 많이 기탁하였다고 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며 금석에 새겨 놓았다면, 후손들에게 모범이 되고 타인에게 칭찬을 기대하지 못한다고 본다. 오히려 그를 평가하고 지역간 또는 세대간 문중 집안에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조상을 위한 일이며, 남이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文書로서 남기고, 알리고 전달하면 될 것이다.

오늘 우리 사회가 아무리 각박해도,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다. 權不十年 富不三代라고 한다. 그러나 처신과 관리를 잘하여 300년 이상 富를 누리면서 나라가 어려울 때 많은 독립자금을 헌납하고, 사회교육이 메마를 때에 전 재산과 국보급 유물들을 교육재단에 기증한 집안도 있으며, 일생 동안 푼푼이 모은 수억 원의 전 재산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탁한 사람도 많이 있다. 하물며 조상을 위한 헌성금에 인색할 때, 부끄러움을 모두들 경험했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 청주 양씨는 清白吏 후손답게 우리 사회에 문중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다만 전문 지식이 부족하고 과욕으로 빚어진 오·남용이 있었을 때 아쉬울 뿐이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 대종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고생하시는 여러 분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뿐이다.

이름도 남길 때 남겨야지 남기지 않을 때 남기면 후손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삼가 글을 씁니다.

구국(救國)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

高麗大學校 政經大 校友會 事務局長 二十一世孫 楊 大 植

요즘 들어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일들을 돌이켜 보면 기쁨보다는 견디기 힘든 일들이 더 많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여전히 구태와 타성이 반복되어 사회적으로는 도덕적 해이현상이 극심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현 실정을 보면,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위기의 시대가 아닐 수 없고 미혹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방향과 정체성의 혼돈에 대해, 거센 풍랑 속에서 난파 위기를 맞고 있으며 지금 우리는 간첩죄로 복역했던 인물이 정부 요직에 앉아 남파 간첩을 민주 인사로 둔갑시키는 이 나라 장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탄이 쏟아진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누구를 찍었느냐와 관계 없는 것 같다.

그만큼 살기 어렵고 이 나라의 장래가 불안하기 때문일 것이다.

대한민국호는 지금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좌파들이 득세로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로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과 두려움을 갖고 있다.

정통성은 수호되어야 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켜야 하며, 도덕성과 명분을 되찾아 새로운 비전과 이에 부응하는 인물을 만들어 안전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건강하고 양심적인 자유진영의 목소리를 널리 퍼서 보수의 깃발아래 젊은 네티즌들을 묶어내야 할 것이다.

특히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온라인 매체의 확보는 절체절명(絶體絶命)의 과제이고, 청년 자유주의자들을 길러내고 미래를 이끌어갈 비전과 논리를 만들어 양심적 보수를 지향하는 미디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때 나라를 걱정하는 뜻있는 인사들이 흥분과 울분이 아닌 당신이 먼저 하라고 등만을 떠밀 때가 아니라 힘 있는 한 목소리로 나가야 할 것이다.

周邊을 일깨우는 楊門의 큰 일꾼!

西平君派 慶州 門中代表 二十三世孫 楊 鍾 澤

鍾澤 一家는 23世孫(歸庵公의 19世孫)으로 現在 慶州에 居住하면서 慶北地域에 居住하는 一家(200餘戶)들에게 崇祖精神을 드높이며, 一家相互間의 親睦을 增進시키는 데 크게 寄與하고 있는 한편, 地域社會 發展에도 큰 힘을 보태고 있다.

1988년에는 自費 800餘萬원을 드려 祖上의 훌륭한 業績을 기리는 의적지(懿績誌) 700卷을 發刊하여 全國 230餘個의 鄉校, 各 門中, 儒林 150餘名, 國內 30餘 名門大學校의 圖書館, 慶北地域居住 200餘名의 一家 및 國立臺灣大學校 圖書館을 비롯한 國內外 關聯機關等 50餘 곳에 配布하여 우리 祖上의 훌륭한 業績을 널리 알린 바 있으며, 2002년부터는 慶北地域에 居住하는 一家 280餘名으로부터 齋室建立費 7,000餘萬원을 거둬 2004年 5月 歸庵公派 齋室을 竣工하기까지 큰 功을 세운 바 있다.

그리고 佛國寺 溫泉水를 開發하여 地域社會 發展에 크게 寄與한 바 있어 鍾澤一家의 숨은 功을 알리며, 現在는 淸州 楊氏 西平君派 慶州地域 門中代表, 國際Rotary 慶州크럽 總務, 慶州鄉校 掌義 및 慶州都市計劃 變更 推進協議會 副會長職 등을 맡아 奔走히 活動하고 있다.

清州 楊氏 忠憲祠 位置 現況

1. 忠南 論山市 上月面 酒谷里(忠憲祠)
2. 全南 寶城郡 筏橋邑 馬洞里(忠憲祠)
3. 慶南 昌寧郡 游漁面 陳倉里(忠憲祠)

1) 忠南 論山市 上月面 酒谷里의 忠憲祠

• 忠憲公 外 四位 奉安

- (1) 楊 起(清州楊氏 始祖=忠憲祠〈墓：黃海道 延白郡 柳谷面 永成里〉)
- (2) 楊 治=西平君派 4世(退隱公=兵馬節度使)〈墓：抱川市 新北面 機池里〉
- (3) 楊熙止=唐岳君派 9世(大峰公=大司憲)〈墓：慶南 蔚州郡 凡西面 內砂洞〉
- (4) 楊 暉=密城君派 14世(漁村公=司馬科合格)〈墓：慶南 昌寧郡 丈麻面 東亭里〉
- (5) 楊應春=西平君派 12世(道谷公=懷德縣監)〈墓：忠南 論山市 可也谷面 隱村里〉

2) 全南 寶城郡 筏橋邑 馬洞里의 忠憲祠

• 忠憲公 奉安

3) 慶南 昌寧郡 游漁面 陳倉里의 忠憲祠

• 忠憲公 奉安

淸州 楊氏 先代の 墓所 位置

- **楊 起** : 1303~1394年 卒(92歲) = 中國 弘農楊氏 43世孫. 元의 政丞벼슬로서 高麗 忠定王 3年(1351年)에 元의 魯國公主가 高麗恭愍王과 結婚하여 歸國할때 陪從하고 東來하시어 淸州楊氏의 始祖가 되심.(政丞, 淸白吏, 忠憲公에 封함)
配 : 淸州 韓氏
墓 : 黃海道 白川郡 柳谷面 永成里 池洞 鶴巖峰 및 癸坐이다.
- **一子** : **成柱** : 西原伯派(大匡輔國 崇錄大夫 議政府 右議政)
配 :
墓 : 黃海道 長湍郡 東北面 馬踏里 楊陵洞 酉坐原이다.
- **二子** : **天柱** : 政丞公派
配 : 貞敬夫人 光山金氏
墓 : 京畿道 龍仁市 二東面 時美里 산28-4 이다.
(京畿 利川郡 大月面 大浦里 96번지 合窆, 1976. 11. 2. 高速道路建設로 移葬)
- **三子** : **萬壽** : 典書公派(禮曹典書)
配 :
墓 : 未詳(後孫들의 墓는 忠北 槐山 等地에 있음)
(6世孫 汀 = 咸吉道 節制使 · 漢城判尹 · 戶曹判書의 墓 : 曾坪邑 蓮灘里 塔山 後麓子坐이다)
- **四子** : **之壽** : 西平君派(匡靖大夫 都僉議贊成事, 淸白吏, 元의 國舅이다)
配 : 貞敬夫人 密陽 朴氏
配 : 貞敬夫人 竹山安氏(信化宅主) 三位 合窆.
墓 : 京畿道 楊州郡 長興面 釜谷里 戌坐이다(享祀 = 陰 10月 5日이다)
- **五子** : **根** : 密城君派
配 :
墓 : 未詳(後孫들의 墓는 慶南 昌寧 西面 等地에 있다)
(14世孫 : 暉 = 漁村公, 司馬科 合格, 丙子胡亂 때 義兵을 일으켜 功을 세움)
- **六子** : **浦** : 唐岳君派(政丞, 高麗朝 때 龍虎 上將軍 歷任)
配 : 貞敬夫人 安東金氏(左贊成 金時鉉의 딸이다)
墓 : 忠北 淸州 內倉近地인데 失傳이다. 前에는 碑碣이 있었는데 山 밑에 사는 사람이 뽑아서 밭둑 사이에 묻었다고 한다. 光復 以後 甲寅 3月 15日 宗議로 大邱市 壽城區 巴洞 39番地 梧川書院 左稍 上艮坐原에 設壇하고 每年 陰 3月 15日에 享祀한다.

清州 楊氏 宗土現況

1. 楊 起의 位土 現況 : (總 19,485坪)

位	置	區 分	面積(坪)
黃海道 延白郡 柳谷面 永成里 山34		林野	11,970
黃海道 延白郡 柳谷面 永成里 50		垡	77
黃海道 延白郡 柳谷面 永成里 274		垡	80
黃海道 延白郡 柳谷面 永成里 275		垡	122
黃海道 延白郡 柳谷面 永成里 51		田	806
黃海道 延白郡 柳谷面 永成里 64		田	638
黃海道 延白郡 柳谷面 永成里 276		田	781
黃海道 延白郡 柳谷面 永成里 49		畚	670
黃海道 延白郡 柳谷面 永成里 294		畚	1,148
黃海道 延白郡 柳谷面 永成里 302		畚	1,233
黃海道 延白郡 柳谷面 忠武里 665		田	1,960
合計	19,485坪 = (林野 11,970坪 + 垡 279坪 + 田 4,185坪 + 畚 3,051坪)		

※ 石儀錄 : 墓碣, 魂游石, 床石, 香爐, 酒罇, 羊石, 八臺石, 庶日石, 長明燈, 神道碑 (丁卯, 11月 20日 立)

※ 當初 忠憲公의 黃海道 先山은 後孫인 楊金植씨가 巨財를 喜捨하여 마련하고 享祀하여 오던 중 여러 번 난리를 거쳐 失傳되었다가 甲午年에 이르러 後孫인 天安派 11世孫인 憲奭이 主管時苾, 德一과 함께 誌石을 鶴峰 아래 院洞에서 찾아 封墳을 고치고 碑를 세웠고, 또한 宗土를 마련한지가 200餘年이 경과했고, 壬寅年에 와서 다시 後孫 聖時, 正彥, 廷彬이 主管하여 全國 後孫에 募金하여 宗土를 買入했고 宗土 文書를 全國 各門中에 保管토록 했다. 庚戌 1850年 月 日 後孫 廷弼 謹書. (族譜 1卷 pp.3~6 참조)

2. 忠憲祠의 宗土 現況(總 16,277坪)

位	置	區 分	面積(坪)
忠南 論山市 上月面 酒谷里 山62		林野	6,000(2町步)
忠南 論山市 上月面 酒谷里 62		垡	551
忠南 論山市 上月面 酒谷里 69		垡	382
忠南 論山市 上月面 酒谷里 83		田	655
忠南 論山市 上月面 酒谷里 3		畚	937
忠南 論山市 上月面 酒谷里 20		畚	836
忠南 論山市 上月面 酒谷里 45		畚	555
忠南 論山市 上月面 酒谷里 226		畚	515
忠南 論山市 上月面 酒谷里 234		畚	816
忠南 論山市 上月面 酒谷里 314		畚	1,018
忠南 論山市 上月面 酒谷里 7		畚	303
忠南 論山市 上月面 酒谷里 16		畚內	1,472
忠南 論山市 上月面 酒谷里 24		畚內	2,237
合計	16,227坪 = (林野 6,000坪 + 垡 933坪 + 田 655坪 + 畚 8,689坪)		

※ 論山 酒谷里 忠憲祠는(大宗孫이 宗土를 管理하는 곳) 士林들이 祭祀를 모시는 곳으로서 200餘年이 經過 됐으면 庚子年에 後孫 禧壽와 達赫이 主管하여 모든 宗中들과 相議하여 淸州楊氏의 譜所를 影堂에 두고 全國 宗丈들을 參與토록하여 上記와 같은 宗土 現況을 後孫들에게 알리고 모든 宗事業務를 協助받아 運營해 오고 있다.(族譜 1卷 pp.8~11 참조 : 1987年 發行)

덕강서원(德岡書院)과 양청재(養淸齋)

淸州楊氏 新寧派 會長 楊 漢 基

덕강서원은 광해군 13년(1621) 정간공(靖蘭公) 양효지(楊孝智)를 봉향하기 위하여 건립한 서원이다.

楊孝智는 世宗 때 參判을 지내다가 癸酉靖難(계유정난 : 1453년 수양대군이 단종과 원로 신하들을 없애고 정권을 잡은 사건)으로 慶北 永川에 낙향하여 서당을 세우고 후학을 가르쳤다. 그는 매월 초하루와 보름날에 江原道 寧越땅을 향하여 端宗의 애석한 죽음을 원통히 여겨 망미대를 세웠다. 사당인 景節祠는 정면 3칸·측면 2칸의 팔각 지붕이며 강당이 있다. 서원 입구에는 정간공 神道碑가 있다. 서원은 高宗 2년(1865) 大院君의 서원 철폐령으로 훼손되었다가 1921년 복원되었다. 서원의 묘우는 경절사이다. 養淸齋는 朝鮮朝 世祖 때의 학자로 천품이 순후하고, 우애가 돈독한 成均館 校理 楊白漢을 추모하여 후손들이 지은 정자로서, 현재 齋室로 사용하고 있다. 좌우에 각 1칸의 방을 두고, 가운데 2칸의 대청을 둔 맞배지붕의 일반정자 양식이다.

(교리공 양자한은 정간공 양효지의 아드님이시며, 양청재는 덕강서원 좌측에 있다.)

※ 참고 : 영천 향토사 연구회 골별 5집과 신령향교 교지 738쪽에 게재되어 있음.

조선관직 품계표(요약)

구 분		동 반	서 반	외명부③ (문무관 처)	잡 직		토 관 직	
					동 반	서 반	동 반	서 반
상 당 (上堂)	정1품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 상보국승록대부 (국구-후기) 보국승록대부		부 부 인 (왕비모) 정경부인				
	종1품	승록대부 승정대부		봉보부인 (대전유모) 정경부인				
	정2품	정헌대부 자헌대부		정 부 인				
	종2품	가정대부(가의) 후개(後改) 가선대부		정 부 인				
	정3품	통정대부	절충장군	숙 부 인				
하 당 (下堂)	(정3품)	통훈대부	어모장군	숙 인				
	종3품	중직대부 중훈대부	건공장군 보공장군	숙 인				
	정4품	봉정대부 봉렬대부	진위장군 소위장군	영 인				
	종4품	조산대부 조봉대부	정략장군 선략장군	영 인				
상 참 (上參)	정5품	통 덕 랑 통 선 랑	과의교위 충의교위	공 인			통의랑	건충대위
	종5품	봉 직 랑 봉 훈 랑	현신교위 창신교위	공 인			봉의랑	여충대위
	정6품	승 의 랑 승 훈 랑	돈용교위 진용교위	의 인	공직랑 여직랑	봉임교위 수임교위	선직랑	건신대위
	종6품	선 교 랑 선 무 랑	여절교위 병절교위	의 인	근임랑 효임랑	현공교위 적공교위	봉직랑	여신대위
하 참 (下參)	정7품	무 공 랑	적순부위	안 인	봉무랑	등용부위	희공랑	돈의도위
	종7품	계 공 랑	분순부위	안 인	승무랑	선용부위	주공랑	중의도위
	정8품	통 사 랑	승의부위	단 인	면공랑	맹건부위	공무랑	분용도위
	종8품	승 사 랑	수의부위	단 인	부공랑	장건부위	직무랑	효용도위
	정9품	종 사 랑	효력부위	유 인	복근랑	치력부위	계사랑	여력도위
	종9품	장 사 랑	전력부위	유 인	전근랑	근력부위	시사랑	탄력도위

고금관작 대조표(古今官爵 對照表)

기관 계급	입법부	정부기관	지방행정	대 학	군 인	사법부	외무부	경찰계	문교부	정부투 자기관	일반행 정부	조선	품계
	국회의장	대통령				대 법 원 장							
		국무총리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정1품
		부총리										좌찬성 우찬성	종1품
	장 관 차 관	도지사		대 장	대법원 판 사	장 관 차 관	본부장	장 관 차 관 교육감		장 관 차 관	판 서 좌참찬 우참찬		정2품
	차관보		학 장	중 장	법원장 검사장	차관보				차관보	참 판 관찰사		종2품
1급		관리관		주 임 교 수	소 장	2호이상	관리관		관리관	관리관	관리관	참 의 목 사 도호부사	(당상관) 정3품
2급		이사관 국 장		교 수	준 장	4호이상 판검사	이사관	치안정 감	부교육 감	이 사	이사관	집 의 사 관	종3품
3급		부이사 관(3년 이상)		부교수	대 령	6호이상 판검사	부이사 관	치안감		이사 3년 이 하	부이사 관	군 수 사 인 령	정4품
					중 령							경 력 첨 정	종4품
4급		서기관 (과장)	군 수 부군수 국 장	조교수	소 령	9호이상 판검사	서기관	경무관 총 경 정 정	교장 6 호 이 상	부 장	서기관	현 령 관 평	정5품
												정 량 교 리	종5품
5급		사무관 (계장)	과 장 (면장)	전임강 사	대 위		사무관		교감 9호이상	과 장 (차장)	사무관	좌 량 감 찰	정6품
												현 감 찰 방	종6품
6급		주 사	주 사 (계장)	전임강 사(2년 미만)	중 위		주 사	경 감 위	21호이 상	계 장 (대리)	주 사	박 사	정7품
7급		주사보	주사보	조 교	소 준 위 위		주사보	경 사	30 호 이 상	평사원 (3년 이 상)	주사보	직 지 장 작	종7품
													정8품
8급		서 기	서 기		상 사 중 사		서 기	경 장	31 호 이 상	평 사 원	서 기	정 훈 사 도	정9품
9급		서기보	서기보		하 사		서기보	순 경		평사원	서기보	참 봉	종9품

歷代王都表

(韓國族譜三十年史 參考)

建都年代	建都年代	現地名	年數
箕子朝鮮	平壤又王儉	平安南道 平壤市	900 餘年
衛滿朝鮮	同		87
高句麗東明王	卒本扶餘	平安南道 成川	39
琉璃王 22	國內尉那嚴	平安南道 義州	206
山上王 13	丸都又安寸忽	平安南道 寧遠郡劍山	38
東川王 21	平壤		91
故國原王 12	丸都		1
同 13	平壤東黃城	平安南道 平壤木覓山	84
長壽王 15	平壤		159
平原王 28	長安		83
同	平壤		
			合計：705年
百濟溫祚王元	河南尉禮	忠清南道 天原郡稷山	13
同 14	韓山	京畿道 廣州	375
近肖古王 26	北漢山	京畿道 楊州	104
文周王元	熊津	忠清南道 公州	63
聖王 16	泗班又南扶餘	忠清南道 扶餘	123
新羅朴赫居世三元	辰韓	忠清南道 慶州市	992
高麗太祖 19	開州	京畿道 開城市	296
高宗 19	江華	京畿道 江華郡	37
元宗 11	開城		20
忠烈王 16	江華		2
同 18	開京	開城市	90
辛禑 8	漢陽	서울市	1
同 9	松京	開城市	7
恭讓王 2	漢陽	서울市	1
同 3	松京	開城市	1
			合計：456年
朝鮮太祖元	松京	開城市	3
同 4	漢陽	서울市	4
定宗元	松京	開城市	6
太宗元 5	漢陽	서울市	506
			合計：519年
純宗 3	漢陽	서울市	
日帝期	漢城	서울市	
李承晚	서울	서울市	
尹潽善	서울	서울市	
朴正熙	서울	서울市	
崔圭夏	서울	서울市	
全斗煥	서울	서울市	
盧泰愚	서울	서울市	
金永三	서울	서울市	
金大中	서울	서울市	
盧武鉉	서울	서울市	

賜貫 및 賜姓 一覽表

(韓國族譜三十年史 參考)

賜姓	始祖	本來의 姓名	賜姓王朝	備考
英陽南氏	敏	金氏	新羅景德王	
廣州安氏	邦傑	父：李 瑗	新羅景文王	
順興安氏	子美	李瑗의十一世孫	"	
竹山安氏	邦俊	父：李 瑗	"	
安東權氏	辛	慶州 金氏	高麗 太祖	
鐵原弓氏		"	"	
慶州裴氏	玄慶	本名 白玉衫	"	中祖
沔川卜氏	智謙	本名 卜沙貴	"	
平山申氏	崇謙	本名 三能山	"	
忠州魚氏	重翼	忠州 池氏	"	
江陵王氏	丈(의)	江陵 金氏	"	
海州王氏	儒	朴氏	"	
豐壤趙氏	孟	本名 巖	"	
延安車氏	孝全	文化 柳氏	"	
義城洪氏	儒	本名 弘述	"	
一直孫氏	凝	荀氏	" 顯宗	
盧氏	英	本名 式篤兒	" 忠烈王	盧氏의 一派
延安印氏	侯	本名 忽刺歹(홀자알)	" 忠烈王	
德水張氏	舜龍	本名 三哥	" "	
鄭氏	公	本名 五十八	"	鄭氏의 一派
車氏	信	本名 車忽耨(차홀래)	"	車氏의 一派
隋城崔氏	永奎	安東 金氏	"	
光州李氏	珣白	慶州 金氏	" 忠肅王	
		弓裔의 後孫		
醴泉崔氏	暹	昕氏 (흔씨)	忠穆王	
青海李氏	之蘭	本名 佟豆蘭	朝鮮 太祖	女眞系(浮海의 後孫)
金海金氏	忠善	本名 沙也可	朝鮮 宣祖	後 金
甘泉文氏	世光	慶州 金氏	宋 朝	
旌善文氏	林幹	金氏	"	
仁川李氏	許謙	泰仁 許氏	唐 朝	

淸州 楊氏 始祖 및 各派 先代祖 祭享日

先 代 祖	祠宇 및 墓 所	經過	所 在 地	順位	祭 享 日	連 絡 處
始祖 忠憲公 諱 起	忠憲祠 (昌寧)		경남 창원군 유어면 진창리	1	매년 陰3월3일오전6시	양희준011-827-7332
13世祖 道谷公 諱應春	葛山祠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산로리	2	매년 陰3월10일	양택진011-408-0416
二世祖 唐岳君 諱 浦	祭壇(失 墓)		대구 수성구 파동 오천서원 위에 제단설치	3	매년 陰3월16일	양종구016-507-6916
九世祖 大峰公 諱熙止	梧川書院		대구시 수성구 파동	4	상 동	상 동
始祖 忠憲公 諱 起	忠憲祠 (寶城)		전남 보성군 벌교읍 마동리	5	매년陰9월10일➡(8월20일)	양홍석011-9622-1957
二世祖 密城君 諱 根	失 墓		경남 창령군 유어면 광산리 제단설치 않됨.	6	매년 陰 월 일	양희준011-827-7332
14世祖 漁村公 諱 暉	光山書院		상 동	7	매년 陰9월9일 오전6시	상 동
五世祖 靖簡公 諱孝智	德岡書院		경북 영천시 화산면 화산리	8	매년 陰9월9일	양경생010-9374-6208
13世祖 道谷公 諱 應春	葛山祠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산로리	9	매년 陰9월10일	양택진011-408-0416
四世祖 退隱公 諱 治	忠穆壇		경기 포천시 소흘읍 무봉1리	10	매년 陰9월11일	양재창011-9779-6917
始祖 忠憲公 諱 起	忠憲祠 (論 山)		충남 논산시 상월면 주곡리	11	매년 陰9월 中丁日	양승직013-0273-3899
七世祖 蓬萊公 諱士彦	吉明祠		경기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12	매년 陰9월16일	양윤택031-535-6447
始祖 忠憲公 諱 起	墓 所		黃海道 白川郡 柳谷面 永成里 池洞 鶴巖峰 癸坐原	13	매년 陰10월1일	在 北
	始 祖 影幀奉安		黃海道 松禾縣修證寺	14		상 동
二世祖 西平君 諱之壽	淸寧祠와墓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15	매년 陰10월5일	양치병011-222-5325
二世祖 典書公 諱萬壽	祭壇(失 墓)		충북 증평군 증평읍 증평동 (흑표 군인 아파트부근)사당에서	16	매년 陰10월 첫째일요일	양희영016-770-4481
四世祖 兵使公 諱 治	退隱齋와墓		경기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17	매년 陰10월6일	양재창011-9779-6917
四世祖 歸庵公 諱 培	歸庵齋와墓		경북 영천시 북안면 명주동	18	매년 陰10월8일	양종택016-622-4468
二世祖 政丞公 諱天柱	墓 所		경기 용인시 이동면 시미리	19	매년 陰10월9일	양범수011-479-5776
二世祖 西原伯 諱成柱	墓 所		경기 장단군 북면 마답리 양릉동 유좌	20	매년 陰10월10일 (주곡리제실에서 봉향예정)	양철세010-4488-4502
五世祖 愍貞嬪 楊氏	祭 壇		경기 고양시 원당1리(수춘군 묘소 아래 공양왕릉 서편)	21	매년 陰10월13일	李氏 後孫

政丞公(諱 天柱) 墓를 찾는 來歷!

政丞公派 會長 二十世孫 楊 範 洙

失傳된 先祖의 墓를 찾기 爲하여 긴 歲月 동안 꾸준히 努力한 끝에 失傳墓를 찾아서 封墳을 돋우고 石物도 갖추고 位土도 마련하여 時祭도 받들게 되어, 後孫으로서 感激的이고 感謝하는 마음을 우리 楊門 모두에게 특히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알리어 祖上 崇拜의 精神을 깨우치는 契機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기에, 이 이야기를 宗報에 掲載한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300餘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時代의 이야기이다.

二世祖이신 政丞公(諱 天柱)의 墓를 失傳 狀態에서 墓를 찾을 方法을 여러 모로 생각한 끝에 京畿道 一圓을 살살이 찾아보기로 하고, 길들인 매를 준비하여 나섰던 어느 날 京畿道 龍仁郡 三面 三巨里(지금의 龍仁市 新葛) 近處의 어느 마을 사람들이 매를 보고서 보정산 기슭에 핑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기에 그 산을 찾아 산기슭을 한나절이 넘도록 누벼 찾은 끝에 핑이 날아 오르자 매가 핑을 채가지고 어디론가 가버렸다는 것이다.

一行이 핑을 찾느라 헤맬 때 나무꾼들이 楊政丞 墓 쪽으로 내려 앉았다고 말하기에 그 方向으로 가보니 뜻밖에도 封墳도 허술하고 石物도 없는 墓를 發見하게 되어 封墳 앞을 파보니 誌石이 나타나, 이를 通하여 政丞公의 墓임을 確認하게 되어 꿈에도 그리던 先祖의 墓를 찾게 된 것이다.

그 후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인하여 1976年 11月 2일에 이천군 대월면 대포리 산96번지로 이장하였는데, 그곳도 군사작전지역으로 증발되어 1988년 12月 20일에 용인시 이동면 시미리 산28의 4번지로 이장하여 현재 보존중이다.

편 집 후 기

宗報編纂委員會 委員長 二十二世孫 楊 澈 坤

우리 大宗會의 定款 제3조에 明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崇祖精神을 振作하며 一家 相互間의 親睦을 圖謀하는 데 寄與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力點을 두고 지난 5月 中旬頃 宗報 제2호를 發刊하기로 宗報編纂委員會에서 意見을 모은 바 있으며, 한편 어떻게 編輯을 하면 오래간만에 刊行되는 이 宗報 제2호를 읽어보는 데 一家분 모두가 興味를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볍게 읽어보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막상 시작하고 보니 紙面이나 餘他の 制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處地에다 讀者 모두가 共感할만한 興味를 誘發(유발)시킬 수 있는 原稿를 수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닫고, 부드러운 感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우선 급한대로 우리 後孫들의 崇祖精神을 振作시키고 또한 자신의 뿌리를 理解하는 데 一助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溯源錄(소원록)과 우리 始祖님의 行狀 및 忠憲祠에 位牌를 모시고 있는 네 분 先祖님 외 愍貞嬪(민정빈) 楊氏와 蓬來公 先祖님의 行蹟 등 판단되는 用語는 별도의 解說을 가하여 理解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모두의 눈 높이가 서로 달라 理解하는 데 큰 불편은 없으실는지 염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이 편집과정에서 한 가지 慄懼(송구)스럽게 생각되는 점은 뚜렷한 考證도 없이 歲貢을 削減받기 위해 우리 始祖님께서 奏請使로 中國에 들어가신 해가 “明나라 洪武 末年”으로 記載되어 있는 것을 “元나라 至正 末葉(1360년대 초엽)”으로 고쳐 기재한 점이다. 이는 “忠憲公 始祖님의 행장에서 奏請使로 활동하신 年代에 대한 異見”이란 題下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여러 事由들을 편집위원회에서 나름대로 論議해본 끝에 우선 關心이 있는 一家분들의 研究課題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修訂 提示해 보는 것이 意味가 있다는 데에 뜻이 모아져 大同譜上에 “明나라 洪武 末年”이라 되어 있는 것을 “元나라 至正 末葉(1360년대 初葉)”이라 記載하게 된 것이다. 많은 關心을 갖고 研究 檢討하시어 좋은 意見을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

그리고 一家 相互間의 친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되도록 많은 일가분들의 連絡處를 登載해 드려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여러 가지 事情으로 많이 登載하지 못하고 각 派宗會에서 비교적 많이 活動하시는 일가분들의 연락처만 등재하게 된 점 또한 慄懼스럽게 생각하며, 다음에 機會가 주어지면 많은 一家분들의 연락처를 등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끝으로 日常의인 내용 外에 文藝나 提言部分에 玉稿를 보내주신 一家님들과 이를 애써 整理해 주신 喜燮 一家님, 그리고 이 宗報를 發刊하기까지 物心兩面으로 크게 도와주신 澈愚 大宗 會長님 및 致炳 常勤 副會長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조그마한 책자가 자라나는 우리 後孫들의 祖上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자신의 뿌리를 이해하는 데 一助가 된다면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다.

公知事項

다음 宗報에 게재할 원고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淸州 楊氏 후손들의 정성어린 소식을 정성껏 전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원고 내용 : 각 소파중회 소식

宗員님의 동정(직장 이동 및 주소 변경 등)

宗員任의 기고문(詩·기행문·폰트·칼럼·수필 등)

●접수처 : ㉠ 121-800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82-5 동국빌딩 104호

淸州 楊氏 大宗會

전화 : (02) 719-4298

팩스 : (02) 714-7533

Homepage : www.chungjuyang.com

E-mail : yangsstar@yahoo.co.kr

淸州 楊氏 宗報 (第2號)

2005년 2월 21일 인쇄

2005년 2월 28일 발행

인 쇄 (주)교학사

발행처 淸州 楊氏 大宗會

서울 · 마포구 공덕동 82-5 동국빌딩 104호

전화 : (02) 719-4298

팩스 : (02) 714-7533

Homepage : www.chungjuyang.com

E-mail : yangsstar@yahoo.co.kr

〈비매품〉

본 자료는 종보 제2호를 원본 그대로 스캔하여 작성한 자료에서 정오표 내용을
반영하여 교정한 자료임을 밝혀 둡니다.

2006년 3월 19일

작성자 - 양운근 017-327-8447

